

제12권제8호 발행 1993년 10월 8일 제3종우편물 (사)교육일보 92-19-5-44-1111-1111 1993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정복남 27000-81103-32-9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영로77번지우 110-760

교육일보

1993

8

특별기획 1 독립 운동사 교육의 재인식

특별기획 2 교원 연수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달의 선생님 • 역사 교사임을 자부하는 이범중 교사

시론 • 문민 시대의 광복절과 역사 의식

지상 중계 • 대전 EXPO93, 현장을 안내한다



新한국의 新교육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新한국 창조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新한국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교육도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세계 속의 한국,
이는 오늘의 우리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월보'는 이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대화의 광장이 되려 합니다.

어떤 것은 지금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훗날 다시 찾게 될
新한국을 창조하는 교육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권두시	4	지금껏 실속을 못 차린 8·15/김광림
교육현장은 말한다	6	최영선/김상희/정영순/오해경/김진태/최영희/박창렬/정기채/정갑정
이달의 선생님	8	역사 교사임을 자부하는 이범중 교사
시론	12	문민 시대의 광복절과 역사 의식/강만길
	14	한미 정상 회담이 남긴 뜻/김찬규
	16	환경 오염과 삶의 위기/이흥근
	18	땀흘려 일하게 하는 교육/임영철
특별기획 ①		독립 운동사 교육의 재인식
	2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범통성과 문민 공화 정부/이현희
	26	국내에서의 독립 운동/김창수
	30	중국 등북 지역의 항일 민족 독립 운동/박영석
	36	연해주에서의 독립 운동/권희영
	40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 운동/신재홍
	44	미국에 있어서의 광복 운동과 반응/손보기
	50	일본에서의 독립 운동/조향래
특별기획 ②		교원 연수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54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1)/이윤식
	60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2)/유현숙
	66	교육자치제와 시·도 교원연수원 운영의 개선 방안/조병호
	72	교원 연수의 유인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최상근
	78	사학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방안/서연호
교육 정책	88	'94년도 대학 시설비 투자 방향/최종률
지상 중계	84	대전EXPO 93, 현장을 안내한다/송하성
박물관 탐방 ①	98	한국의 불상/글 조용중, 사진 김대벽
교육 정보	92	기억 촉진 수업 모형 외/권낙원
	96	신간 안내
교단 문원	106	잔디를 베고 누워/최일순
	107	산/전정배
	108	첫 발령의 추억들/손의중
	109	나의 일상/최진기
교육뉴스 종합	110	'94 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 전형 계획 외
	116	시·도 교육청 뉴스
교육월보 지상전	121	관계 93-120A, 두 개의 상황/김계관

국정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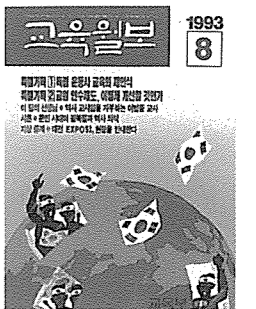
● 신한국 창조 ●

1. 깨끗한 정부
2. 튼튼한 경제
3. 건강한 사회
4. 통일된 조국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1.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2.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
3.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 기술 교육
4.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5.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제 호: 일종 김충현
□ 표지화: 김진국
□ 편집미술: 박상희



※ 교육월보에 게재된 내용은 교육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① 김영삼 대통령은 7월 10일 청와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강력 대응과 신태평양 공동체 제안 등 양국간의 우의와 협력을 다졌다.

②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희집)는 7월 1일 설악산 오색그린 아드호텔에서 '대학 교육의 개혁을 위한 자율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③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7월 5일 스테펜 조엘 트래첸베르크 미국 조지 워싱턴대 총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대학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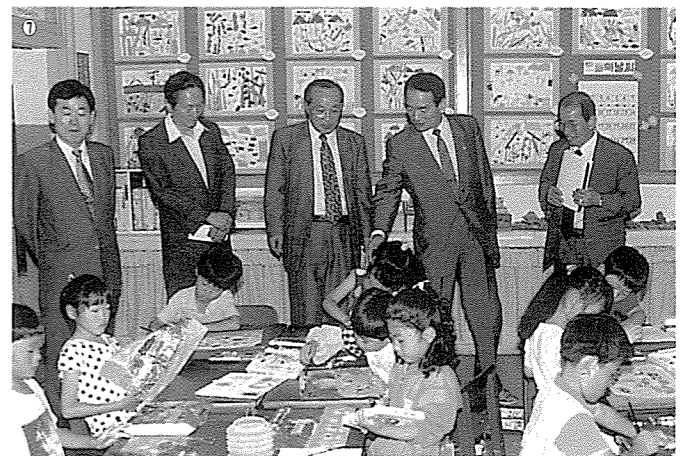


④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는 6월 22일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술대학 제도 신설 구상과 전문대학의 진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한종하)은 7월 2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연수 담당자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 연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⑥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7월 3일 강원도 속초여자중학교를 방문,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교육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⑦ 인천수 교육부차관은 7월 9일 경북 경주군 감포국민학교를 방문, 수업 현장을 둘러보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광복절 아침에 ● 이정현 (서울기독교단학교 6학년)

지금껏 실속을 못 차린 8·15

김광림

팔월은 이마의 땀방울이
눈물되어 흐르는 달
감격의 눈물과 울분의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기쁘게도 슬프게도 맞이할 수 없는
그저 안타깝기만 한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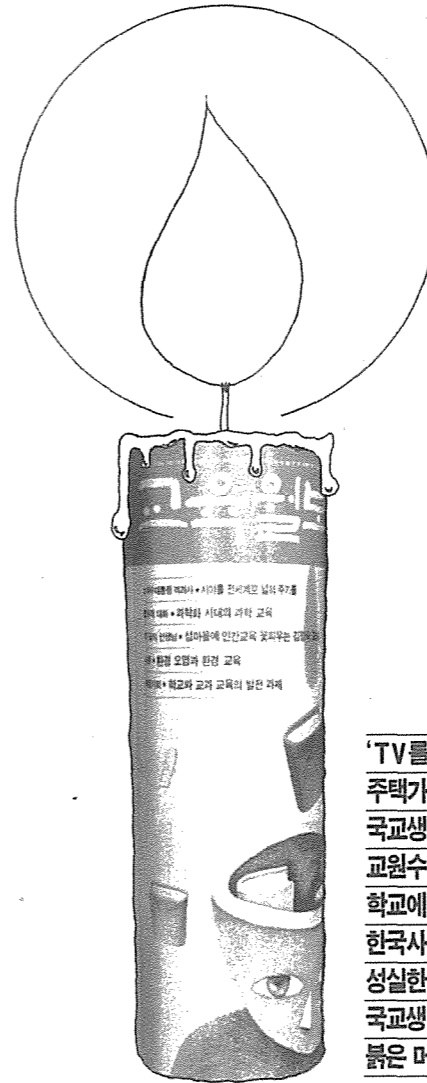
이제부터
슬슬 더위가 가시기 시작하는데
서른 두 해 만에
참으로 바라던 문민 시대의
새바람이 불어닥쳤는데
그 바람은
썩은 데를 도려내는 날이 선 칼

끓은 데를 터트리던 기탄없는 쇠망치
멍든 데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

바람아 진정 새바람아
반 세기가 다 되어 가도록
딱 막힌 남북의 벽가슴일랑
이제사 허물기 시작하면 되는 것을

오오 8·15
민족 해방의 날
지금껏 허울만 좋아보고
정작 실속을 못 차린
이 답답한 것이

'교육월보'는 교육현장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 'TV를 끄자'에 공감 / 최영선
- 주택가 단란주점, 청소년 정서 해처 / 김상희
- 국교생 주관식 학습 평가 환영 / 정영은
- 교원수 동결에 재고를 / 오혜경
- 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 김진태
- 한국사 바로잡기, 지속적 노력을 / 최영희
- 성실한 교사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 박창열
- 국교생 학교 급식 확대를 / 정기재
- 붉은 머리띠 섬뜩 쟁의때 피했으면 / 정갑정

'교육월보'는 항상 교육현장과 함께 숨쉬고 그 속에 깨어 있고자 합니다. 들려 오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편집 방향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교육 문화의 마당을 열겠습니다. 여기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지 두 장에 능숙시켜 보내 주십시오. 우편, 팩시밀리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실린 분에게는 그 달치 교육월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TEL: 736-3977, 738-2343 FAX: 738-2343

교육 현장은 말한다

우리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평을 기다립니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제도나 관행, 그리고 불만스러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설적 제언이아말로 우리 교육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그달치 '교육월보'와 소정의 원고료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주소, 소속 기관을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110-760 서울특별시 세종로1가 77번지
교육부 장학편수실 '교육월보' 편집실, TEL:(02)736-3977, FAX:(02)738-2343

'TV를 끄자'에 공감

최영선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지난 7월 7일은 서울 YMCA를 중심으로 하루만이라도 TV를 보지 말자는 시청자 운동이 전개됐다.

오늘날 우리의 TV 방송은 특정 프로그램의 저질성을 논할 단계를 지나 방송 이념과 철학 부재로 인한 전반적인 방송의 저질화라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들 말한다.

사실 TV를 켜 놓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 든 자녀들과 함께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다. 10대 인기 연예인을 앞세운 소란스럽고 경박한 쇼, 허수아비 차림의 의상,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과 말씨 등등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배워서 곤란한 내용들이다. 아이들이 꼭 TV를 통해서만 저질스런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건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TV임을 감안할 때, TV의 질 개선은 절실하다.

며칠쯤 TV를 안 보아 방송 프로그램이 개선된다면, 이 운동에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교육자이기에 앞서 부모로서 방송 담당자에게 당부하는 바이다.

주택가 단란 주점, 청소년 정서 해쳐

김상희 서울원촌국민학교 교사

보사부는 지난 6월부터 주택가에서

도 단란 주점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예정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고 있다.

주거 지역의 밤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적 생활 질서면에서도 어긋나지만, 무엇보다도 술 취해 인사 불성된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학교와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이지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의 책임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근 상업 지역에 한해 소음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영업을 하도록 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한 일이나, 어찌되었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국교생 주관식 학습 평가 환영

정영순 광주실업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수십 년간 시행해 온 선택형 중심의 평가 방법을 개혁해 단답형·논술형 주관식 문항 및 5지선다형 등 여러 형태의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각 문항별로 배점을 달리 하는 평가 방법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평가 방법의 개선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번의 경기도 교육청의 일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물론 주관식 시험을 치르게 되면 채점하는 교사의 일은 그만큼 늘어나고, 또 채점상의 오류도 선택형보다는 많아 지겠지만, 이러한 어려움보다 학생들의 사고력, 고등 정신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필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일선에 있는 교사로서 2세 국민들의 교육을 내다보면서, 가까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염두에 두면서, 국민학교에서의 주관식 평가를 환영하며, 모든 교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교원수 동결에 재고물

오혜경 고양시 성라국민학교 교사

정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면도 있지만, 교육에 관한 한 실망이 크다.

정부는 신경제 계획 기간 동안에 교육 재정과 관련, 유류 특별 소비세의 목적세로의 전환, 교원수 동결, 교육의 수익자 부담 강화, 기술 대학 설립 추진 등 4가지의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교육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교육 환경의 수준을 보여 주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보아도, 우리 나라 국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6명으로 세계 185개국 중 120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고통을 분담하지는 정부의 시책에는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보다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 다른 분야는 그만 두고라도 교육 환경 개선 분야는 재고해 주었으면 한다.

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김진태 대전태평국민학교 교사

국민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물놀이와 수영이 여러 시간 배당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의 실습 교육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교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거나 학교 인근 바다나 냇가 수영장이 있는 곳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물놀이 배움을 수는 없다. 물놀이 내지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운동량에 있어서도 타에 비할 수 없이 많으며, 온몸 운동이 안 되는 부위가 없다. 이렇게 운동의 효과가 크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수영에 대한 시설은 교육 현장에 우선하여 설치해야 할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시키지 못하고 입으로만 교육한다면 그 교육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영장 시설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권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필수 시설로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예산이 문제되겠지만 교실이나 강당에 반지하식 수영장도 계획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 바로잡기, 지속적 노력을

최영희 전남 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정부는 주변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잘못 기술된 한국사(韓國史)를 바로잡

기로 했다고 한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를 정확히 대외에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때, 이번의 조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중·러시아와의 관계를 빼고는 우리의 근·현대사는 사실상 기술할 수가 없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나라는 이들 주변 4개국에 의해 국가적 운명이 결정적으로 영향받아 왔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으나 이들 주변국들마다 잘못 혹은 왜곡된 기술은 진즉 시정되어야 했다.

기왕 시작된 일이니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가와 모든 국민들의 협력으로, 그리고 주변국들에서 전 세계 국가들로 그 범위를 넓혀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도 이를 계기로 우리 역사의 바른 인식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성실한 교사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박창렬 경상남도 하동교육청 장학사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수도권 교사들의 약 93%가 돈 봉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수도권 교육 풍토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런 풍조가 우리 나라 교육계 전반적인 풍토인 양 매도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한심스럽게만 느껴졌다.

농어촌 학교에서 묵묵히 봉직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은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왜 하는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계 비리라는 말을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 실상인즉 농어촌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런 설문을 보냈다면 '전혀 없다.'는 응답이 93% 이상 나오리라 본다.

언론에서는 수도권 교사와 학부모가 우리 나라 전체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

한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라며, 사회는 대다수의 성실한 교사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워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교생 학교 급식 확대물

정기채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학부모

올바른 식사 습관을 기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요즘 무절제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이 범람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음식 문화 자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늦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사 습관을 심어 주고, 반찬 투정을 하는 버릇도 고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식을 고쳐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급식이라고 믿는다. 특히, 학교 급식은 짭 소비를 늘리고, 학부모의 점심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며,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등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문제는 국가 교육 재정에 있겠는데, 이는 일정액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겠다.

최근 학교 급식을 하는 학교는,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 교육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붉은 머리띠 섬뜩, 쟁의 때 피했으면

정갑정 전북 순창군 순창읍 학부모

625전쟁이 어떻게 시발됐는가를 아직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43년 전 '붉은 완장'이나 혹은 '붉은 띠'를 기억하는 우리는 아직도 붉은 색이 살벌한 냉기를 느끼게 되는 거북한 색깔임을 알고 있다.

요즘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협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서로 순화하는 의미에서 파란 색깔로 된 깃발이나 띠를 사용했으면 한다.*

역사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산다

서울 중앙중학교 이범중 교사



지난날 편향된 역사 교육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범중 교사, 그는 2세들에게 밝고 건강한 역사 의식을 심어 주는 게 자신의 평소 역사 교재관이라 강조한다.

이 교사의 수업 시간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다. 그 중에서도 근대사 시간은 더욱 실감이 난다. 철저한 교재 연구와 오랜 교직 경험에서 비롯된 까닭도 있지만, 이 교사 조상들의 항일 운동사가 곧 우리 민족의 항일 운동사요, 저항과 투옥으로 점철된 그의 가족사가 곧 우리 민족의 근대사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3학년 국사 시간.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쓰인 칠판 위의 학습 문제가 선명하다. 일본인의 본능, 일본 문화의 바탕과 원류, 한·일 관계의 과거·현재·미래를 설명해 가는 교사의 표정은 풍부한 교재 연구와 경험으로 자신감에 차 있다. 조는 학생도, 한눈 파는 학생도 없이 모두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다.

역사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섭니다

“역사를 편향적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오류는 본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애국 충정은 객관적인 망국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 교사로서 그 점을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말하는 이범중 교사. 그는 서울 중앙중학교에서 19년째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 교사를 처음 만나는 순간, 씩이러는 나이에 걸맞지않게 젊고 강직함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오늘날 다수의 교사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심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을 듣는 것과는 달리 이범중 교사는 역사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히, 3·1운동과 6·10만세 운동 등 항일 독립 운동의 진원지였던 이곳 옛 중앙고보의 자리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이 그러한 자부심을 더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3·1운동 책읽비, 6·10만세 기념비, 삼일기념관 등은 물론이거니와 담쟁이 넝쿨 덮인 벽돌 한 장, 교정에서 있는 나무 한 그루에서도 그는 선인들의 독립 정신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재주가 이둔해서인지, 문학을 숭상하던 전통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학보다는 국어나 역사 과목에 더 흥미가 많았어요.”

역사 교사가 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타고난 적성 탓으로 돌린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국 지사의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애국 지사들의 무궁담을 들으며 자라온 그가 필경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아니겠는가.

그는 독립 운동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증손자다. 석주 선생의 형님되시는 상동(相東), 봉희(鳳羲) 선생도 독립 운동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다.

이 교사의 조부, 그러니까 석주 선생의 아드님되시는 준형(濬衡) 선생도 한일합방이 되자 만주로 망명, 부친께서 결성하신 ‘경학사’, ‘서로군정서’ 등을 이끌고 독립 운동을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교사의 선친되시는 병화(炳華) 선생 역시 6세 때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가서 농민 운동 및 청년 운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때 이 교사의 증조부를 중심으로 한 가계에서 아홉 분이 독립 운동에 참가하여 건국훈장을 받은 영예로운 집안이다.

잘못 기술된 역사 바로잡기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소년 시절, 막연한 동경으로 국문학 과를 지망했었는데, 당시 국어를 가르쳐 주시던 김휘준 선생님께서 “너는 꼭 사학과(史學科)에 가야 해.” 하시면서 입학 원서를 빼앗아 지망 학과를 바꿔 주셨단다.

“그 당시엔 저 자신이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망설이던 참이었고, 또 워낙 존경해 왔던 선생님의 충고이기에 시키는 대로 따랐지만, 지금 와 생각하니 우리 집안 내력이나 가정 형편을 소상히 꿰뚫어 보고 계신 훌륭한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미망(迷妄)의 제가 지금 요만큼이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이 교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가르쳐 주신 은사님의 은혜를 빼놓지 않는다.



이범중 교사는 고려대 문과대 사학과를 나와 수원 매향여고, 서울 한샘여중 등을 거쳐 현재 서울 중앙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올해의 광복절은 국가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 예년과는 다른 감회를 느낄 것 같습니다. 문민 정부의 범통성은 임시정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최근 정부에서 임정 요인 네 명의 유해를 봉환하여 꿈에도 그리던 광복된 조국의 품에 고히 모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무척 고무돼 있다. 그리고 기왕 시작된 일이니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실질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아울러, 그를 더욱 신명나게 하는 소식은 일제 시대 친일 행적에 대해 살살이 파헤치자는 사회 여론과 국회에서의 친일 규명·청산에 대한 역사 논쟁이다.

우리 사회에서 친일딱지가 붙으면 바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정황을 감안할 때, 선인들의 행적은 추호의 사심이 없이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60여 년 전, 일제의 온갖 협박과 고문과 회유책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한 선인들이 많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창씨 개명 자체도 친일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고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친일이나 항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바랐다.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과 분단으로 이어진 우리의 주름진 역사가 마치



(석주유고) 원본 등 각종 희귀 고서들이 소장된 고려대 도서관의 '석주문고'. 1972. 4. 26 도서관 책임자 윤병태(현 경북 대 교수·서지학자) 씨와 이범중 교사(오른쪽)

창자 협착증이 치유되는 것처럼 바로 잡힐길 기대해 봅니다. 항일과 친일이 확실히 가려지는 역사 바로잡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면, 민족 정기를 가르치는 역사과 교과로서 신바람이 아니 날 수가 있었습니까?”

아울러,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주변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잘못 기술된 한국사를 바로잡기로 했다는 신문 기사를 내보이며, 진즉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고 덧붙인다.

“우리 나라의 근대사는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주변 4대국들에 의해 국가적 운명이 크게 영향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근대사는 곧 이들 주변 국가들의 근대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실상과는 전혀 다르게 각기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기술해 두고 있다면 국민적 수치일 뿐만 아니라, 발전적 국제 관계 정립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급히,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사의 어린 시절은 어느 독립 운동가의 후손들처럼 가난하기만 했다. 경북 안동에서 나서 네 살 때 서울로, 그리고 일곱 살 때는 피난처를 헤매다가 다시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6·25로 인한 피난 시절,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어린 이 교사는 학교에도 못 다니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이웃 친구의 숙제를 대신 해 주고 삶은 고구마 한 개를 얻어 먹다가 아버지한테 들켰다. 호된 꾸지람과 온종일 땀들 위에 꿇어 앉아 추녀 끝에 떨어지는 비를 다 맞으며 벌을 받던 기억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엄한 가르침이었다.

그날 아버지의 지엄하신 목소리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이놈아, 학은 굶어 죽어도 좁쌀은 먹지 않는 법이여.”

당시 그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배고픈 서러움과 체벌에 대한 원망의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는데, 훗날 철이 들

면서 그 말씀의 참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께서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뒤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 부친의 가르침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가풍 속에 자라 온 그는 60년대 결식 대학생 생활, 그리고 당시 요령만 있으면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군대 생활 속에서도 어린 시절 그 엄훈(嚴訓) 한 마디로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독립 운동가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지킬 수 있었다.

이 교사의 수업 시간은 항상 힘이 있다. 그 중에서도 근대사 시간은 더욱 실감이 난다. 이 교사 조상들의 항일 운동사가 곧 우리 민족의 항일 운동사요, 저항과 투옥과 율령으로 점철된 그의 가족사가 곧 우리 나라의 근대사이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발전적 사관의 시각에서 봅니다. 시대가 지나 올수록 다수인의 자유는 점차 확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사가 지닌 듣직한 자부에도 결코 우쭐대거나 자랑삼지 않는다. 오히려 차분하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역사를 관조한다.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인간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대인들의 손가락질을 좀 받을지라도 남보다 늘 앞서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르고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등불을 스스로 밝혀 가면서 전향적으로 남을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는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하라고 가르친다. 주변 국가 사람들의 사고의 뿌리와 본능과 역할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곤 한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이란다.

이 교사의 수업 지도안에는 주서(朱書)가 유난히 많다. 강조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난 극복 사례 요약에서부터 불우 이웃 돕기, 부모님 공경하기 등. 이 교사는 이렇게 주서로 표기된 부분 위에 밑줄을 긋고, 또 그으며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

이러한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선 선생님이기 앞서 자상한 아버지로 통한다.

“선생님께서 일러 주시는 말씀은 집에서 들상 듣는 내용이지만,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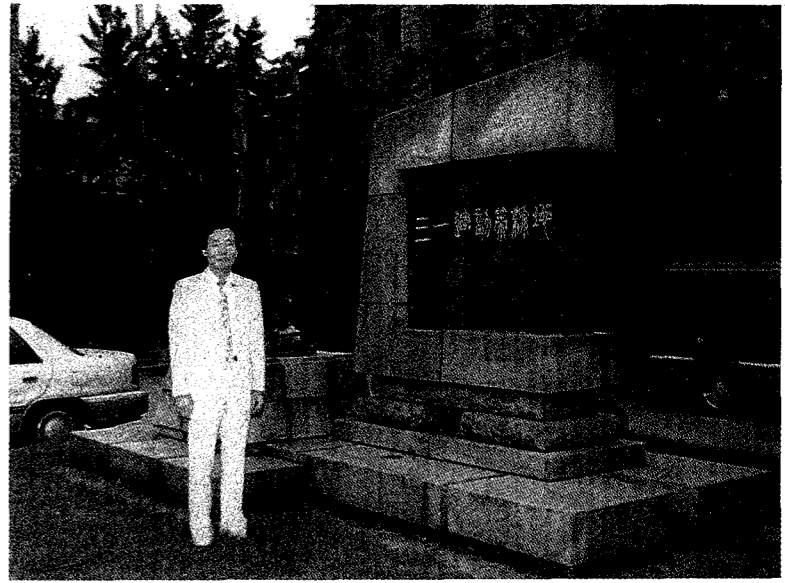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얼 지시할 때는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 준다. 교사라 해서, 부모라 해서 무조건 지시해도 되고, 제자나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 교사에게는 없다.

그러기에 이 교사가 지향하는 학생상도 뚜렷하다.

“저는 농경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산업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은 저와는 판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저에게 오직 사랑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역사 새역사 창조를 기쁨으로 삼아야 해

그가 생각하는 미래의 한국인상은 오늘의 우리들과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에게는 순종과 추종을 미덕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자기보다 나은 권위에 맹종하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선인들의 독립 정신이 깃든 '3·1운동 책원비' 앞에 선 이범중 교사.

퍼뜨리는 창의성, 미지 세계에 대한 다양한 모험심, 그리고 도전 의식도 당연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분명히 저항할 줄도 알게 해야만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좌절과 분열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의 우리 기성인들이 저절러 둔 역사적 책임을 제대로 규척의 손질로 얼마나 모면할 수 있을가를 걱정한다.

이 교사는 1972년 고향 안동의 종가가 안동댐으로 인해 수몰 지구로 변하게 되자, 〈석주 유고〉 원본 등 500여 년간 가보(家寶)로 소장해 오던 각종 서적 1309책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여 ‘석주문고(石洲文庫)’를 만들었다.

이 서적들은 우리의 독립 운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으니, 멸사 봉공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날 편향된 역사 교육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 교사, 그는 2세들에게 밝고 건강한 역사 의식을 심어 주는

게 자신의 역사 교재관이라 강조한다.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기반 형성은 잘못된 역사의 실상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역사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소박하게는 범람하는 외래 문화로부터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걸러지지 않고 들이닥치는 외래 문화의 충격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작은 힘이나마 노력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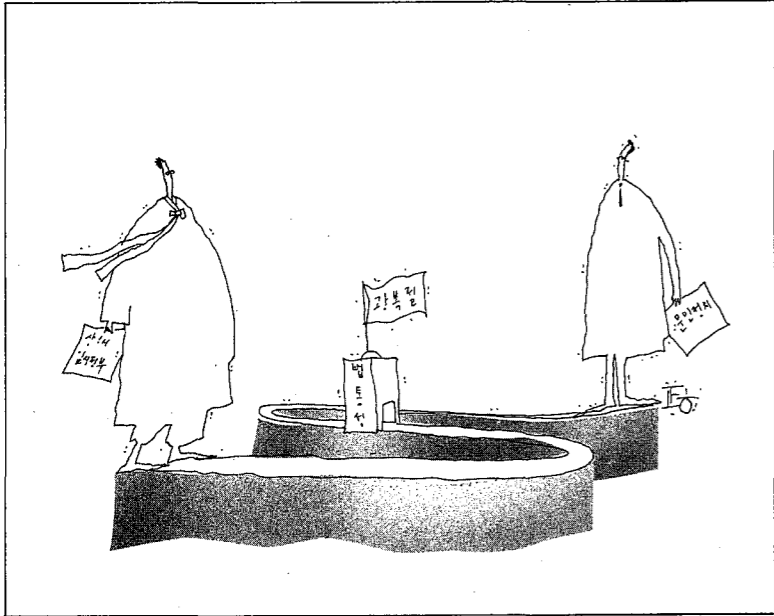
이 교사의 이번 여름 방학 계획은 분명했다.

대학 은사님의 소개로 부인 임은실(상계고교 교사) 씨를 만나 한 달치 월급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부부가 역사 교사로서 함께 2세 교육에 힘쓰고 있는 이범중 교사, 그에게 있어서 '93년의 8월은 누구보다도 의의 있는 달이 될 것이다.*

취재·김영운 교육부 교육연구사

문민 시대의 광복절과 역사 의식

강만길



강만길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나와 동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다. 저서에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의 다수가 있다.

역사적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지만, 8·15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도 예외는 아니다. 식민지 시대를 산 세대에게 있어서 8·15는 두말 할 것 없이 해방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를 살지 않았고, 주로 8·15후의 분단 시대에만 산 세대에게는 8·15는 해방이란 의미보다 분단의 시발점이란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게 마련이다.

8·15를 직접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그것은 분명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것은 제말과 이름을, 그리고 국가적 독립을 찾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앞날이 내다보이는 해방이었다. 그러나 3년간의 혼란 끝에

남북에 분단 국가가 성립되어 서로 대립하다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 체제와 독재 체제는 강화되어 갔고, 민주주의가 압살되어 갔다.

분단 정권으로서의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의 실정(失政)을 감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 체제로 나아갔고, 그것을 뒤엎은 4·19로 인해 집권한 장면 정권은 한정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민족적 과제로서의 민족 통일 문제에는 소극적 정책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군사 독재 정권 등장의 길을 열어 놓고 무너졌다.

이후 30년간 지속된 군사 정권이 이 시대의 우리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당장이라도 분명한 몇 가지는 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압살이다. 두 번의 군사 쿠데타와 한 번의 선거를 통해 지속된 군사 정권은 긴 말 할 것 없이 4·19를 통해 겨우 회복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30년 후 퇴시킨 것이다.

군사 정권 30년간의 유일한 '발전적 현상'으로 흔히 경제 성장을 든다. 그러나 꼭 군사 정권만이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성장이 군사 정권 아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독점 체제의 강화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 때문에 독점 체제의 횡포와 그 결과로서의 경제적 불평등이 군사 정권을 뒤이은 문민 정권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도 남는다.

군사 정권 30년이 사회·문화적으로 남겨 놓은 유산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뿌리깊이 박힌 군사 문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 군사 문화 체제 속에서 사회·경제적 부정과 부패와 병리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민 정권 성립과 함께 최대의 과제로 등장한 '혁명적' 사정 작업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정권 30년간을 통한 최대의 역사적 정체(停滯)는 무엇보다도 민족 통일 문제의 제자리 걸음이다. 군사 정권 시기를 통해서도 7·4 남북 공동 성명도 있었고, 남북 기본 조약의 체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 정권 자체의 전진적 통일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4·19 후에 폭발한 민간 통일 운동의 열기와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엄청난 희생을 바친 민간 통일 운동의 요구에 밀린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운동의 열기와 요구에 의해 일정한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해도 적어도 군사 정권 아래서는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었다. 물론 분단 체제 아래서의 민족 문제는 상대성 문제이다. 그러나 평생을 군인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직업 군인 출신 통치자에게서 여유와 양보와 화합에 의한 민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군사 정권 30년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민족 문제의 역사적 추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나면, 이제 그것을 뒤이어 어렵게 성립된 문민 정권의 역사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문민 정권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늠할 만하다. 특히, 문민 정권 출범 이후 최초로 8·15를 맞는 감회

'신한국 건설'을 표방하는 문민 정권은 '8·15 공간'에서 통일 민족 국가 수립 노선에 섰던 진정한 의미의 민족 세력의 처지로 돌아가서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 문제의 주체적·평화적·호혜적 해결을 과제로 삼을 때 비로소 그 정권의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또 다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민 정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민족 문제 등을 두고 1945년 8·15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전제주의 체제인 채로 식민지로 전락했고, 이후 35년간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1945년 8·15의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전제주의적·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철저한 근대 민족 국가를 수립해야 할 단계에 있었다. 그것이 분단과 전쟁과 독재 체제로 이어지면서 크게 제한되었다. 그렇다면 문민 정권이 당면한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신장해 가는 일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호 개방 후 경제 문제의 당면 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의 농민적 소유를 달성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는 이를 역행하여 지주제가 오히려 강화된 위에 산업 부문에서는 일본의 독점 자본이 지배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민족 해방 운동 전선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경제 부문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토지의 국유화와 농민에의 재분배를, 산업 부문에서의 주요 기업 국유화를 지향했다.

그러나 8·15 후 민족 해방 운동 세력이 정권에서 배제되고, 독재 정권·군사 정권이 계속됨으로써 토지의 농민적 소유는 불철저해졌고, 독점 자본 중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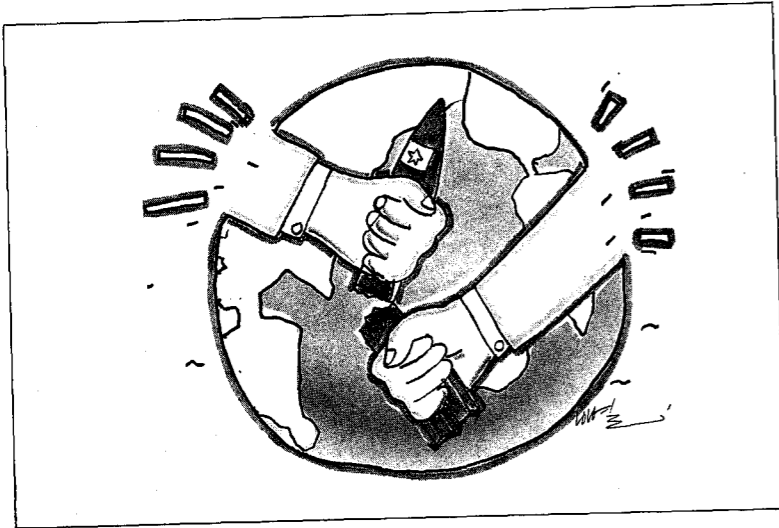
산업화가 추진되어 지금과 같은 재부(財富)의 편중 현상이 급격히 조성되어 갔다.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지향하는 문민 정권이 당면한 경제적 과제는 재부의 편중 현상을 시급히 시정하여 국민 전체, 나아가서 민족 전체의 재와 부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일일 것이다.

'8·15 공간'에서 민족 분단의 위험이 높아지자 식민지 시기 민족 해방 운동 전선에서 통일 전선 운동을 폈던 좌우익 세력은 의세의 작용을 배제하고,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해 좌우 합작 운동·남북 협상 운동 등을 폈다. 이후 계속된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 아래서 이 운동들은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불은시되어 왔다. 문민 정권은 '8·15 공간'에서 통일 민족 국가 노선에 섰던 민족 해방 운동 세력의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을 계승하여 주체적이고 평화적이며, 호혜적인 방법에 의해 민족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신한국 건설'을 표방하는 문민 정권은 '8·15 공간'에서 통일 민족 국가 수립 노선에 섰던 진정한 의미의 민족 세력의 처지로 돌아가서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 문제의 주체적·평화적·호혜적 해결을 과제로 삼을 때, 비로소 그 정권의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정상 회담이 남긴 뜻

김찬규



김찬규

서울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나와, 네덜란드 헤이그 사회과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음. 경희대 법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 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에 <국제 기구론>의 다수가 있다.

1993년 7월 10일에서 11일에 걸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한국 방문은 '공식 방문(official visit)'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이었지만, 그것이 지니는 의의와 성과는 실로 큰 것이었다.

먼저, 그 의의를 보면 이번 방한이 클린턴에게는 그의 대통령 취임 후 실질적으로 첫번째의 외국 방문이었다는 점이다. 그가 서울에 오기 전 일본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G7 정상 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지 일본측과 회담을 갖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클린턴은 대통령이 된 후 첫 나들이를 서울에 한 셈이 된다.

다음, 한·미 정상이 모두 임기초에 상봉해서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말에 외국 나들이를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차기를 위한 선거에 낙선하고, 마지막

임기를 채우고 있는 대통령을 '절름발이 오리(lame duck)'에 비유하거나 절름발이 오리가 정상 외교를 한답시고 서두르는 것은 그 몰골이 사납기 이를 데 없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국가의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실질적 합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과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절름발이 오리의 외국 나들이에는 일신의 호강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한다는 빈축이 따를 뿐이다. 그런데 이번 클린턴 방한에서의 양국 정상은 모두 임기 초기에 그들의 회담 결과는 고스란히 재임 기간 중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두 정상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선 대통령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선 대통령끼리 만나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사심 없는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도 이번 정상 회담의 큰 의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민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이이기에 국민과 국가를 대표할 수 있으며, 그 뒤에 국민의 지지가 있기에 외국과의 교섭에서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권력의 기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통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제 관계에서는 몇몇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수평선적이지 아닌 수직선적으로 전락시키게 되며, 정통성의 결여는 정치 협상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서게 한다. 과거 우리가 특히 대미 관계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섰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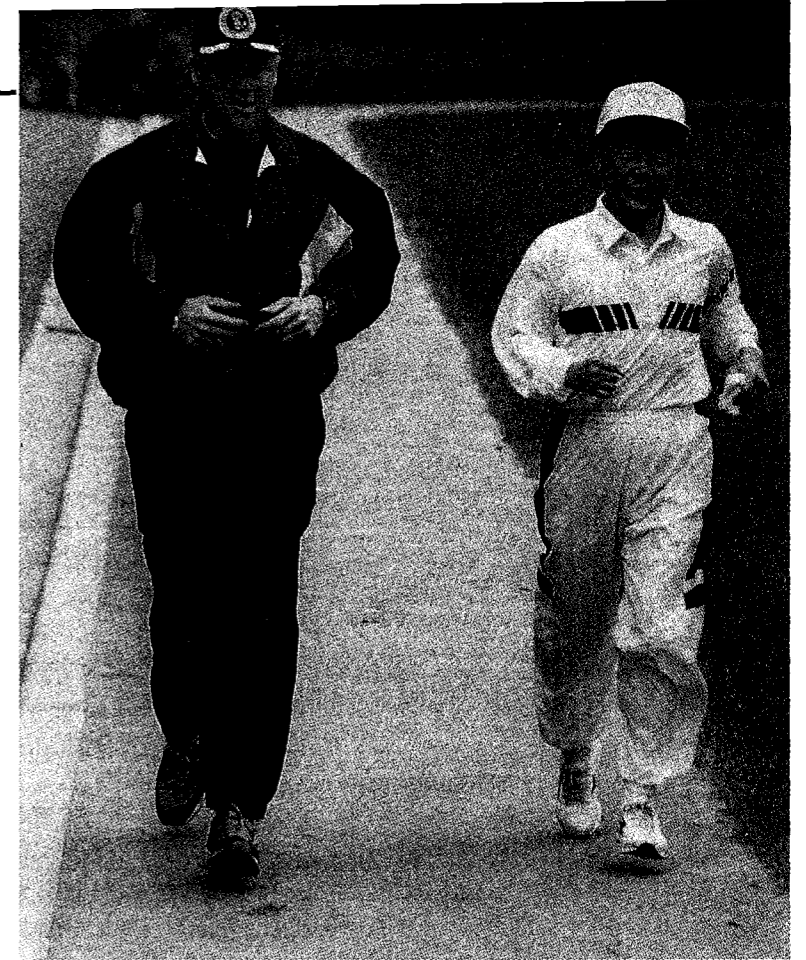
이번 정상 회담은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데 또 하나의 의의가 발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 회담이 가져 온 성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이 이번 정상 회담의 최대 수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국회 연설에서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천명해 한미 안보 협약에 관한 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래스 애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를 포함해 전쟁이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일어날 경우 한국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클린턴은 이번 방한시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시찰했음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소묘를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비무장 지대 방문에 이어, 이날(11일) 오후 2시 45분쯤 76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도착, 다리를 10여 리쯤 걸어가 안내 사병으로부터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 군사 분계선이 다리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이날 한국군과 미군 장병 9명이 경계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다리 위에 머무르는 동안 100m 전방의 북한군 초소에선 북한군 2명이 망원경을 통해 그의 동향을 살폈다. 클린턴 대통령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방문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해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의 마지막이 될 것(the end of their country)"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중앙일보 7월 12일 3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판문점 자유의 집 북방 약 200m에 있으며, 1976년 8월 18일 인민군에 의한 8·18 도끼



새시대를 향한 두 정상의 조경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함께 조경하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만행 사건(일명 미루나무 절단 사건)의 현장이기도 해 이번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이곳을 시찰한 데는 한미간 군사 동맹 체제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클린턴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방문에 대해서는 북측에 대한 사전 통고가 없었다고 한다. UN군 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으로 신문은 전하고 있다.

이 다리는 공동 경비 구역(joint security area) 내에 있으며, 공동 경비 구역은 비무장 지대 내에 있기에 여기에 경비병 이외의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관광 또는 견학을 위해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통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피차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은 일종의 견

학이라고 볼 수 있어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다(조선일보 7월 13일 4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사 분계선이란 팻말 바로 앞까지 다가간 클린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정상 회담의 셋째 성과는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24시간 상시 전화 연락 체제를 갖추기로 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클린턴이 '김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시면 잠을 자다가도 받겠으며, 필요하면 서로 긴밀히 연락토록 하자.'고 응답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녕 한미 간에 신뢰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 쾌거라고 해서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본다.*

환경 오염과 삶의 위기

이홍근



환경오염



이홍근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와 동대학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있음. 저서에 <한강 하류부의 수질 변동에 대한 추계학적 특성>의 다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 토양 및 대기이다. 일반적으로 물, 대기, 토양에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즉 오염 물질이 포함된 상태를 환경 오염이라 부르고 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은 우리 주위에 산재하여 있다. 자연 상태로 있는 산과 들에서도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만, 다량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이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 지역,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경 지역 등은 사람의 삶을 위하여 소비와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소비와 생산 활동이 활발할수록 오염 물질의 배출은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환경 오염은 인구의 증가와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 및 생산품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특수한 유해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오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어 때로는 환경 오염이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환경 오염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수질, 대기, 토양에 대한 우리나라의 오염 상태를 살펴본다.

수질은 우리 나라 전체 용수 공급량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대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이 환경보전법상의 수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 중소 하천도 지역적으로 분산된 소규모 공장의 무절제한 폐수 배출과 토지 이용의 남용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과 같은 상수 시설이 미비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급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도 상당한 오염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는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와 공단 지역의 대기 오염은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농촌의 경우도 인근 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 물질이 확산 유입되어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공장과 가정의 난방용 연료와 자동차 배기 가스는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사장과 곳곳에 산재한 쓰레기 야적장에서 대기로 분산되는 오염 물질은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양 오염은 광산 지역과 공단 주변의 농경지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아직

까지 일반 평야 지역은 전반적으로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지만 다량으로 살포되는 비료와 농약은 토양을 산성화하여 지력을 약화시키고, 독성과 내성이 강한 유해 성분을 가진 물질로 오염시키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농약과 폐하수 및 쓰레기에 포함된 유독성 중금속 성분으로 오염된 토양은 농축산물의 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나누어 사람의 건강에 대한 피해, 생태계의 피해, 생활 환경에 대한 피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인체 내로 유입된 오염 물질은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강에 장애를 준다. 병원성 세균과 유독성 물질에 의한 수질 오염과 공기 오염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어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시하는 환경 오염으로 생각한다.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에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 먹이 사슬의 순환 과정이 차단되어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이 같은 생태계의 파괴는 직접·간접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를 위협한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냄새의 유발, 경관의 훼손 등은 여러 가지로 생활 환경의 가치를 떨어뜨려 쾌적한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사람이 자연 환경을 눈에 보일 정도로 훼손시킨 지는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은 생태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연과 다른 종류의 생물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다.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생물로서 사람 위주로 자연 환경을 지배하려는 속성과

의지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 생명체의 근원인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같은 자연 환경의 도외시는 제한된 자원의 남용과 함께 환경 오염을 가중시켜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는 조짐으로 나타나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의식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유엔 인간 환경 선언'과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 선언'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을 한 바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때로는 예기하지 못한 돌발적 오염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고, 국민의 피해 인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상하수 처리 시설, 고형 폐기물의 소각 시설, 위생적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 분뇨 처리 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의 확보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 오염을 적절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의 원인 규명, 오염 물질의 발생량 확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영향 평가 및 오염의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 오염의 경감 조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환경 오염을 유발시킨 장본인은 사람이고,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도 사람 자신이란 것을 깨닫고 있으며, 또한 오염의 원인자인 사람이 환경 정화를 위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 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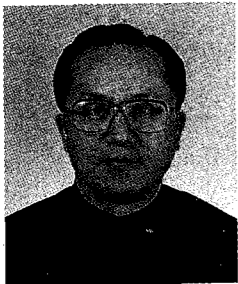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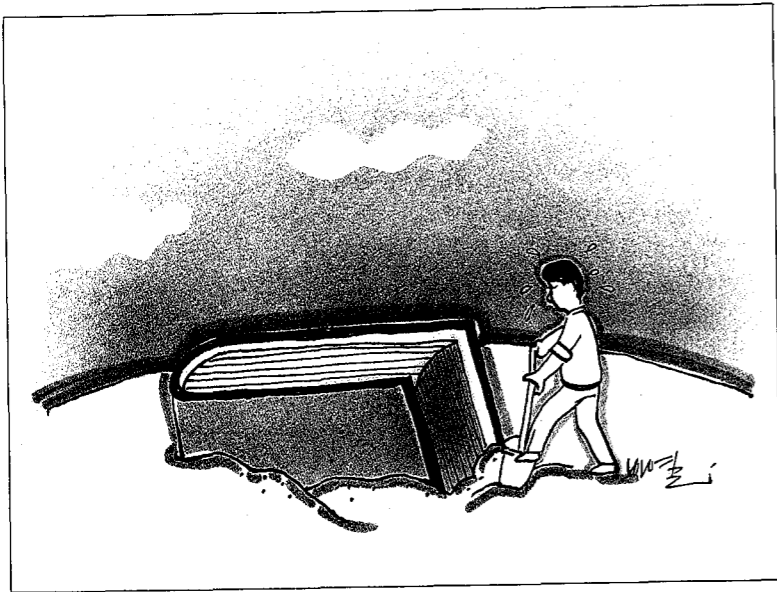
절한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 개선을 향한 국민과 정부의 철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 전환의 바탕은 환경의 조화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환경의 자정 능력, 또는 환경 용량을 가지고 있다. 환경 용량은 지역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한정된 용량이다. 우리는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시키는 조치로서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국민과 정부가 협심하여야 한다.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 가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자와 환경 오염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오염자와 피해자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지역 주민이 환경 관리 사업에 절대 필요한 하수 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환경 개선 기초 시설을 혐오 시설로 여겨, 자기 지역 내 유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사회 생활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오염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오염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따라서, 원만하게 환경 오염의 문제를 조화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피해를 가능한한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의 최소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습관화되어야 한다. 자원과 소비 제품 절약의 절약, 토지 이용의 극대화 억제, 폐기물의 재사용 등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좋은 예이다.*

땀흘려 일하게 하는 교육

임영철



임영철

경희대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한양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현재 사회교육협회 부회장, 서울대, 건국대, 명지대 등 강사. 제1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저서 <역사로 본 한국 민족 정신 교육>의 다수

우리 가나안농군학교를 수료한 대부분의 성인들이 수료한 후에 그들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성과가 있다고 하여 많은 직장인들과 농민, 군인들과 학생, 그 외에도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 와서 단기간의 교육을 받기 원하고 있다. 심지어 근래에는 태국과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농군 학교를 그 나라에 세우기도 하고, 또는 세워 달라고 요청해 오기도 한다.

그들이 농군학교를 수입해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나라를 빨리 근대화·산업화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텐데, 그러자면 거기에 필요한 의식의 변화와 그 실천, 즉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되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은

교육, 특히 성인 교육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를 한국으로 정하였고, 고맙게도 우리 학교가 한국에서 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교육월보'에서 이 글을 나에게 쓰도록 부탁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학교의 근로 교육에 대하여 쓰고자 한다.

우리 학교를 설립한 일가 김용기 선생은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군에 입대하려고 했던 뜻을 바꾸어 귀국한 후 농민이 될 것을 결심하고 1931년 이상촌을 건설하였다. 그가 군인이 될 것을 포기하고 농민이 되어 초지일관 그의 평생을 통하여 추진해 왔던 사업은 황무지 개간이었다.

그는 198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었다.

물론, 이 황무지 개척 사업은 삽과 괭이를 사용했던 시절에는 대단히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황무지를 개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사업을 평생 사업으로 택한 것은 이 민족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땀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을 경시해 왔던 당시의 지배 계층인 양반들

의 잘못된 의식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초국을 건져 내려면 이 의식의 전환을 꼭 실현해야 했었다. 즉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는 어려운 농민의 길, 개척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대표적인 세도 정치의 안동 김씨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고, 희생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손에 땀이 박히도록 열심히 일해 왔던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랐다. 그는 양반이 땀흘려 일하는 모습을 민중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 그것도 별로 쓸모 없는 황무지를 개척하여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는 창조적 기쁨을 구가하고 싶었다.

그의 이 사업은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기상으로 자연에도 전하는 사업이었다. 그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한민족의 정신과 기상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옛날부터 한국인은 부지런하였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다 용감하였고, 잘 참아냈다. 서로간에 협동 정신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강하였으며, 성실하고 착한 민족이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일가 김용기 선생의 이러한 정신적 바탕 위에 세워졌다. 그의 정신과 생활이 곧 우리 학교의 교육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념 중에 첫번째가 '근로(봉사, 희생)'이다. 비록 성경 속에 있는 말이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구호를 교육 중에 자주 외친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해설도 함께 붙여 준다. 또 "음식 한 끼에 4시간씩 일하고 먹자."는 구호도 있다. '60년대 만든 구호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는 호소로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근로 교육은 이상에서 설명한 다섯 번에 걸친 황무지 개척 '60년 역사를 설명하고 견학하며, 그 의식각 교재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열심히 일하게 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 머리와 가슴에 심어진 근로 교육이라야 열심과 함께 지속성이 있다. '보여 주는 교육'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다. 다만, '보여 주는 교사', '맑은 율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요건이다. 언행이 일치하고 있다는 교사에 대한 신뢰 없이 인간화 교육, 근로 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농장 실습을 통하여 체험해 보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인들에게 일해야 한다는 의식을 내면화시킬 수는 없다. 내면화 내지 극정 경험(peack experience)에 이르려면 믿고 존경하는 교사(지도자)의 모범이 필요하다. 일가 선생은 그것을 '보여 주는 교육'이라고 명명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열심히' 일하게 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 머리와 가슴에 심어진 근로 교육이라야 열심과 함께 지속성이 있다. 가정 교육이나 종교 교육, 그리고 도덕 교육의 경우, 더욱이 그것이 성인 교육일 때 '보여 주는 교육'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사(직원까지)는 일을 많이 한다. 전심 전력을 다하여 일하는 모습을 교육생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일하는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가능한 한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한다. 때로는 그 보여 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은 교육하기로 결심한 교사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언행이 일치하고 있다는 교사에 대한 신뢰 없이 인간화 교육, 근로 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노동'을 강조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노동은 노는 것보다 즐겁지 않다. 그래서 근로 교육은 필요성에 따라 인내력을 키우고, 사명 의식까지 갖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사랑을 비교적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이론으로써가 아니라 경험과 사례를 들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것 외에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예컨대,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경영상의 배려나, 또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주인이 되어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아 실현에 대한 강한 성취 의욕은 자기 긍정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자성 예언(自成豫言)은 자기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하는 교육으로서 유효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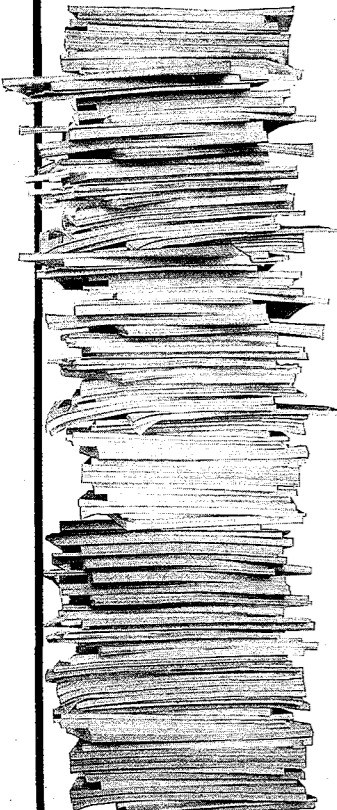
덕담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일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일하게 하는 좋은 교육이다. 그러나 사회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벌써 국민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근로 교육과 사회 평화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분위기에서 신명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다. 다만, '보여 주는 교사', '맑은 율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이다.*

제1회 교육 정기 간행물 콘테스트 시행 계획

'93년은 책의 해 '책을 펴자 미래를 펴자'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주는 것이 책을 사랑하는 가장 값진 교육입니다.

'교육월보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간행하는 우수 정기 간행물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교육 홍보의 활성화와 교육 출판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1회 교육 정기 간행물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1. 목적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간행하는 우수 정기 간행물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교육 홍보의 활성화와 교육 출판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참가 자격

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및 각급 교육 기관(단, 대학 제외)에서 3년 이상 간행한 실적이 있어야 함.

나. 표지를 제외한 총면수가 50면 이상인 책이어야 함.

3. 출품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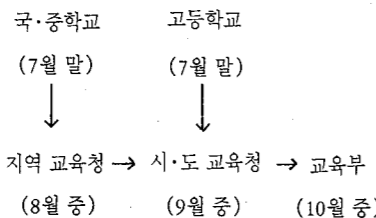
가. 교육청 간행물 부문: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청 직속 기관에서 간행되는 정기 간행물

나. 학교 간행물 부문: 국·중·고등학교에서 간행되는 교지·문예지 등 정기 간행물

4. 참가 신청

다음 응모 절차에 의거 시·도 교육청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문별 우수작을 선정, 시·도 교육청별로 참가 신청

가. 응모 절차



* 국립 국·중·고등학교도 해당 교육청을 통해 참가 신청

나. 심사 절차 및 출품 편수

구분	심사 담당	시기	선정 편수
1차 심사	지역 교육청 (국·중학교)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8월	각 부문별 5편 선정
2차 심사	시·도교육청	9월	#
최종 심사	교육부	10월	시상 등급별 대상작 선정

5. 제출 서류

가. 참가 신청서: 출품작별 1부(소정양식)

나. 출품작 설명서: 200자 원고지 5매 내의 출품작 설명서 1부(소정 양식)

다. 출품작(간행물): 최근호 1부

6. 접수처: 서울 중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장학편수실 교육월보편집실
전화: 736-3977 모사전송: 738-2343

7. 접수 마감: '93. 9. 25(토) 단, 우편 접수일 경우 9. 25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심사 기준

항목	배점
○ 책자 내용	50점
○ 편집 체제, 사진, 그림(삽화)	20점
○ 표지	10점
○ 인쇄, 제본	20점

* 심사 유의 사항
○ 책자의 내용 및 제작 과정이 교육적일 것.
- 창의적·교육적인 방법으로 책자 제작비를 절약한 경우 가점
- 외부 전문가에 의뢰, 제작된 것은 심사 과정에서 감점 조치

9. 입상자 발표 및 시상: 추후 시·도 교육청별로 통지

10. 시상 내역

구분	시상 내역	비고
대상	출품작 전체에서 1점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각 부문별 1점	상패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각 부문별 5점	상패 및 상금 30만원
참가상	약간	상패

※ 시상 간행물은 '교육부 선정 우수 정기 간행물('93시상등급)' 문안을 책의 표지, 목차 등에 2년간 게재할 수 있다.

○ 주최: 교육부 ○ 후원: 대한교과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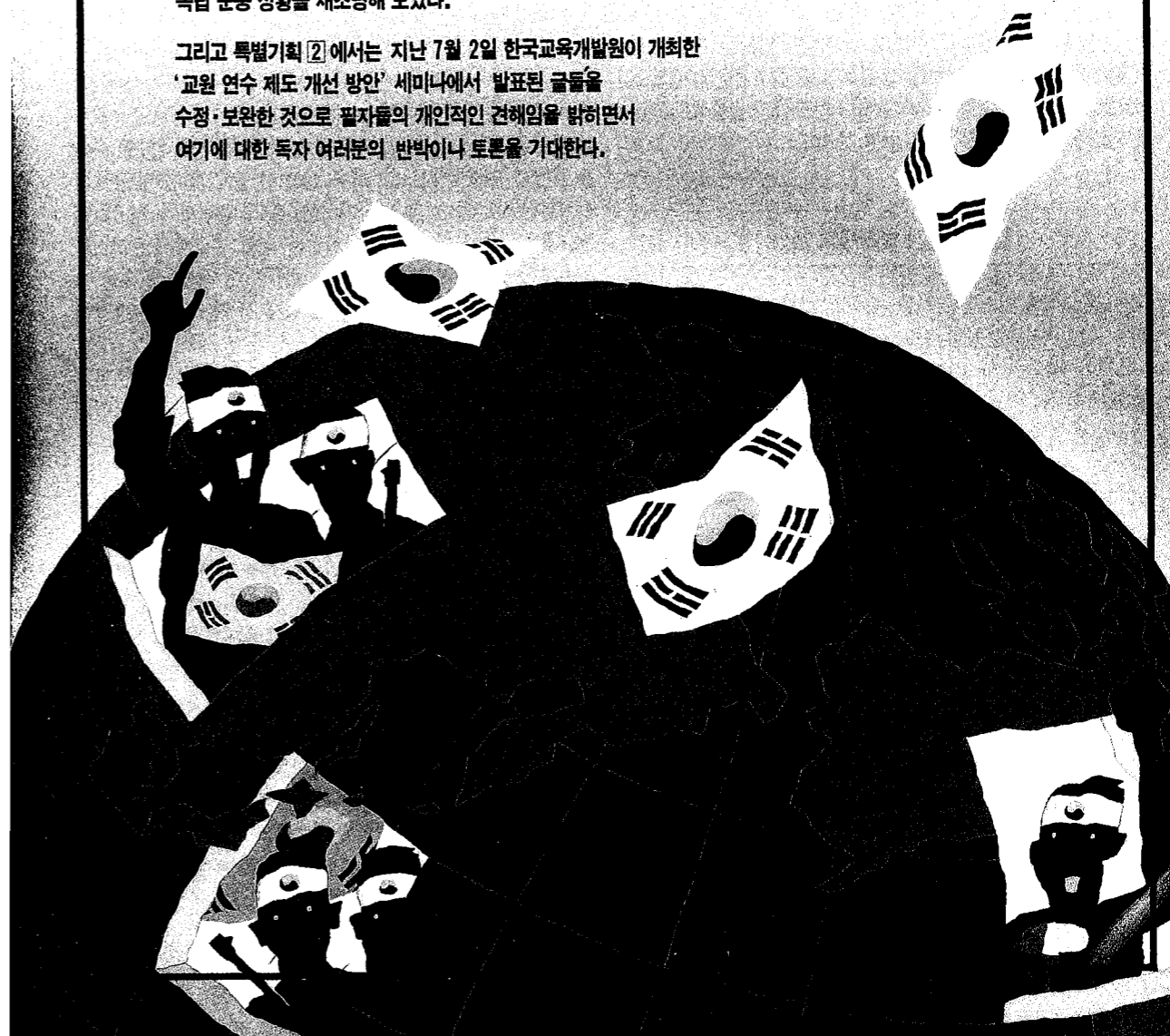
특별기획

1 독립 운동사 교육의 재인식 2 교원 연수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문민 시대에 맞이하는 광복절, 우리는 어느 해와는 다른 감회에 잠긴다.

이번 특별기획 1에서는 독립 운동사 교육의 재인식을 위해 국내를 비롯 만주·연해주·중국·미주·일본 등지에서 독립 운동 상황을 재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특별기획 2에서는 지난 7월 2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교원 연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들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반박이나 토론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문민 공화 정부

— 문민 공화 시대의 정통사적 맥락 —

이현희

임시정부의 10여 개 부문에 걸친 광복 정책이 단편적이거나 일과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하나의 민족사적 흐름 위에 정부적 기능과 그 행사를 줄기차게 해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와 정부적 직능의 단서가 이미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선포 당시부터 규모 있고 질서 정연하게 제도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 법통성으로 연결, 흡수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임정 수립과 군주제의 청산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5) 27년사는 곧 군주제의 청산이며, 문민 공화 정부의 새로운 창조인 것이다.

그것이 74년 전인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 국제 도시 내 프랑스 조계에서 29명의 의정원 의원(의장 이동녕)이 수립 선포한 삼권 분립의 민주 공화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이는 2천만의 3·1혁명이 뒤흔친 최대의 민족사적 성과로서 이 같은 혁명의 자유·정의·진리의 함성은 곧이어 마지막 황제 순종을 재옹립하려는 전통 계승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 중에서 가장 신망·덕망·능력 있는 민간인을 추대하는 일치된 의견으로 좁혀졌다. 그러므로 3·1혁명은 복벽적 민족 운동의 성격이 아닌 민주 공화 체제 갈구적 기구를 실현시켜야 되는 분위기로 그 의미가 가득차 있었다. 해외에서 가장 활동이 편리한 상해에 임정이 수립되기 전후에 국내외 각지에서 이미 6,7개의 민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거나 막 될 찰나에 있었던 것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민간인에 의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당시 세계 혁명 전후의 전형적인 통례였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3·1혁명이 일어난 지 1개월 이내에 각 지역의 혁명 지사들은 일제 경찰력이 미치지 않아 활동하기에 편하고 교통이 원활하며, 1910년 전후 일찍부터 망명객이 비교적 많아 집결된 국제 도시 상해로 앞을 다투어 모이기 시작

하여 프랑스 조계 내에 대동 합류하였다.

원래 상해에는 1910년 이후 민족 지사 중 신규식, 조성환, 한홍교, 한진교, 여운형, 조동호, 민충식 등이 결의를 다진 채 보따리를 싸들고 서서히 모여들었다. 신규식은 중국인 대계도, 진과부, 서천복 등 손문 측근 인사와 접촉하다가 신해 혁명 때 동지와 같이 참여하여 지면을 넓혔다. 그 자신도 동제사와 신아동제사 등을 조직, 양국의 유지를 가입시켜 한·중 유대를 가졌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1918년 말경 50여 명 규모의 신한청년당이 각 계층을 망라하여 조직, 출범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조국을 강점당한 지 10년 만에 분명히 광복할 수 있는 호기가 왔다고 흥분을 억누르면서 정세를 관망하던 중이었다.

이 때 국내에서의 3·1혁명의 함성은 곧 이런 성숙된 분위기를 하나의 ‘큰 사업’을 위한 구심점으로 만들 시대적 사명에 심사 숙고만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다.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일대, 동삼성, 일본, 미주, 하와이, 구라과, 몽고, 러시아 등지에까지 일찍부터 망명해서 광복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민족 지사의 집결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다. 여운형, 서병호 등 신한청년당의 핵심 멤버가 지사를 상해 일대로 ‘모셔옴’과 그들 지사의 큰 사업을 달성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지역모색’이 일치되어 상해에는 1천여 명의 유지가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때 모인 분은 이동녕, 이회영, 신석우, 이시영, 신규식, 조완구, 김철, 조성환, 김동삼, 이유필, 김구, 손정도, 현순 등과 조소앙, 신익희, 남형우, 윤현진, 한기악, 이광수, 백남철 등 4,50대 노장과 2,30대 청년들이었다. 민족계의 기성진영과 신진 세대의 합작 제휴 속에서 신한청년당 등 조직이 기반이 되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처음 프랑스 조계 내에 첫 의정원 청사를 얻게 된 것은 손문의 심복이었던 상해 유지 두월생이 적극적으로 조계 당국과 교섭해서 성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영국 조계 내에 둘 청사 대역 교섭이 결렬된 직후의 일이었다.

임정 27년사의 분류와 성격

중국 상해에 처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할 때 이동녕은 임시 의정원을 통해 이미 이시영, 조소앙, 남형우 등이 제정한 10개조의 기본적인 임시 헌장을 1919년 4월 11일의 정원 의원들이 심의·선포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의 삼권 분립 형태의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는 각종 선언문, 강령, 정강, 서고문 등을 발표하여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물론 삼권 분립 형태의 정부였으나 사법 업무는 남의 나라에서 임시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처음에는 제도상으로만 설치하였다. 따라서, 입법부인 의정원과 행정부인 국무원의 양원제가 27년사의 골격을 유지해 온 것이다. 사법 업무는 임정의 경무국에서 의법 조처하는 편법을 운영해 왔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뒤늦게나마 국내외에서 여러 개의 임정이 형성된 것을 알게 된 상해 임정 요인들은 “한 나라에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단결을 의심받게 되는 중대 오류를 스스로 범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수십 차례의 왕래 교섭, 타협, 토의 끝에 상해의 임시정부를 구심점으로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대한민국인 의회 정부와 국내에 세워진 한성 임시정부를 과감히 대동 합류하여 수립된 지 6개월 만인 그해 9월 초 제1차 개헌(58조) 형식을 취해 대통령 중심 지도 체제로 단일 통합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하나의 정부로 정통화 과정이 이룩된 셈이었다.

따라서, 그해 9월 15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정일로 내외에 그 의미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국내외 각지에 분산하여 운영되어 오던 임시정부는 명칭도 상해 임정에 맞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최종적인 대외 공식 명칭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정의 공식 명칭은 상해에서 중경까지 27년간의 역사를 지닌 정식 정통 민간 단일 정부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성이 뒷받침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고유 명사화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사는 그 활동과 변천, 업적, 성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봄이 오랫동안 임정을 연구해 온 사학도로서 얻은 결론이다.

첫째는 국제 도시에 몸담기 시작한 상해 시대(1919.4~1932.5)로 14년간의 정통화 과정과 광복 투쟁의 실천기였다.

둘째는 상해를 떠나 유랑하던 이동 시대(1932.5~1940.9) 8년간의 고난과 격동, 전쟁과 항쟁 기아의 소용돌이 속을 극복하면서 광복 투쟁을 지속한 시기였다.

셋째는 우리의 독립을 세계적으로 보장받고 직할 무장 군대

를 보유했던 중경 시대(1940.9~1945.10)로 5년간의 마지막 항일 투쟁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세계 전쟁 등을 극복하며, 광복을 끝내 우리 손으로 쟁취하였던 시기였다.

여기서 첫째와 셋째의 임정 시대 19년간은 상해와 중경이라는 단일 도시에서만 여러 모로 진폭 있는 광복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두번째의 이동 시대 8년간은 10여 개 처를 전전공공하면서 전혀 사정이 긴박, 곤핍했다. 1932년 4월 29일 홍구 공원(노신 공원)에서의 천장절을 기해 투철한 침략자 흉한 살상 의거가 성공한 뒤 부득이 그 곳을 빠져 나와 유랑, 이동 중의 연속적인 파나는 투쟁을 전개해야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 실패 이후 비밀 누설의 허탈감을 때우기 위해 임정의 핵심 멤버 이동녕, 김구 등 5명만의 단독 계획이 4.29의거를 성공시켰다. 따라서, 임정 청사와 황포 공원 등에서 면밀히 폭탄을 제조, 연습함으로써 성공하여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다. 일본 내의 신문이 그 당시 호외로만 6일 동안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연속 게재, 발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그의 심각성이 단순하게 상해 사변에 관련된 군장성 등이 살상당함에 침착성을 상실했던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위 천황의 생명을 위협했던 엄청난 사실과 함께 전중국 대륙을 일거에 침략하기 위한 그 전 초전으로 상해 사변을 일으켜 부분적 점령을 시도하고자 했다가 이런 청천벽력인 날벼락을 맞아 중국 대륙 침략의 본격적인 개시가 5년이나 늦게(1937) 실현된 점에서도 그간의 충격을 엿볼 수 있겠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 임정과 이동녕, 김구 등 40여 명의 요인은 가까운 가흥, 항주, 소주, 무석, 진강, 남경 등지로 엄항섭, 민필호, 박찬익의 안내로 각기 흩어져 일단 신변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 뒤 항주에서 진강, 장사, 광주, 유주, 오주, 계림, 기강 등지로 정처없이 권토중래를 위해 이동했다가 중경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20여 년간 임정 연구에 골몰한 나머지 그 주요 역사 무대인 상해에만 네 번 학술 답사를 완료했다. 상해 시대 14년간 그 청사의 이동만도 7차례 달했으며, 임정 지원 단체도



이현희

고려대 및 동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한국의 역사>, <광복 전후사의 재인식 I·II> 등 다수가 있다.

50여 곳이나 되었는데 다 같이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찾아 확인해 보았다. 또 임정 요인 이동녕, 김구, 이동휘 등 40여 명의 가택도 살살이 뒤져 확인해 보았다.

특히, 항주 시대(1932.5.16~1935.11.24) 3년 6개월간의 청사는 그 곳에서만도 두 번이나 이동했었는데 이번에 (1990.4) 찾아가 확인하였다. 그 첫째는 호변촌 23호 청사 (1919.5.16~1934.11.27), 두번째는 판교로 오복리 2의 2호 (1934.11.28~1935.11.24)의 16평 내의 남짓한 빈궁한 청사였다. 한국독립당 본부(사금방 34·40호)도 발견하였다.

광복 정책의 이론과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요인들이 염출한 군자금으로 운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오늘날 남아 있는 상해, 중경 등지 임정의 빈루 협암한 청사를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플 정도인 것이다. 빈민굴이나 다름없는 험루한 곳에서 각종 광복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도 했고, 정책을 입안, 집행하였는가 하면, 그곳에서 기거하기도 하였다. 임정 청사는 거류 민단의 사무실이나 외곽 지원 단체의 임시 집무소·연락소로도 활용되었으니 그 오색 빈궁함을 어디에다 비견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명해 온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속히 우리 손으로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아야 하겠다는 굳은 애국 신념하에서 광복 정책을 펴 나갔다. 근간에 한국에서 상해 임정 청사를 찾아 본 남미 대학생들이 이 곳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임정 요인을 다시 평가하고, 몇 불의 미화를 청사 정리 보전에 쓰라고 두고 갔다는 것이다.

첫째, 내정과 교통 정책의 실시였다. 내무부는 연통계를, 교통부는 교통국을 국내외에 설치하여 비밀 세포 조직을 통해 내외를 통해 통할 통치해 온 것이다. 전자나 후자가 다 비슷한 비밀 조직체였으나 전자는 주로 정보 군자금 인맥의 활용 파악 제도였고, 후자는 통신 교류 업무로서 기밀 문서의 교환·분석·연락, 정보의 수집·검토·수발 등을 담당하였다. 그 조직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지까지 확대 설치하여 1922년 말까지 4년여 동안 활발히 행정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의 실천이 곧 임시정부가 상해한 구석에만 편재되어 뒷짐만 지고 있지 아니하고, 활발히 정치 행사를 전개해 왔다는 증거가 된다. 이로 인해 3·1혁명 이후의 민족 진로가 분명해졌고, 용기와 의욕, 희망을 불러일으킨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광복 정책의 이론과 실제였다.

둘째, 외교와 군사 방면의 정책 실시였다. 1910년대 일제의

강점 속에서 수십 만 명의 한국인이 체포, 구금, 투옥되어 살상당하게 된 것은 전혀 외교적인 유대 관계의 중·황적 결여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 외교 정책을 통한 국교의 정상화를 실현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우선 중국의 손문 호법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프랑스 망명 정부와 폴란드가 승인해 주었다. 미국이나 영국, 소련, 독일 등 강대국이 끝내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승인이나 협원은 국제 승인 못지않게 이어지고 있었다.

임정은 파리 평화 회의에 김규식 외무총장을 강화 대사로 파견하여 독립 문제를 상정 토의코자 기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태평양 회의(1921~22)에 이승만 등 5명의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하여 독립 문제를 거론코자 했으나, 이 역시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미국에 거는 한국민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산되자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극동 노력자 회의(인민 회의)에 이동휘, 김규식 등 50여 명의 우리 대표가 반동적으로 참석하여 발언까지도 했었다. 물론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43년과 1945년에 개최되었던 카이로·포츠담 등의 두 국제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문서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은 우리 임정의 외교적 승리였다.

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무장 독립 전쟁론을 펴서 군사를 양성해 왔다. 신흥 무관 학교의 무관 양성의 전통을 이은 동 설립 운영자 이동녕·이시영 등이 상해에 육군 무관 학교를 세워 80여 명의 무관을 길러 동삼성 등지에 실전 배치하였다. 특히, 군무부의 지부를 길림, 하얼빈, 하바로프스크 등에 두어 동남성 일대의 항일 투쟁을 조정해 왔던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뒷날 이것이 뒷받침되어 중일 전쟁 이래 창립 운동을 펴 광복군(1940~45)을 성립시켰다.

셋째, 교육과 문화의 정책을 펴 나갔다. 교육면에서는 대학까지 면비 교육(의무 교육)을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그것을 펴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임정의 직할 교육 기관으로 인성학교를 설치, 이유필·김두봉 등이 인재를 육성해 냈다. 그의 3·1중학교, 해동학원 입달학원 등이 우리 민족 지사에 의해서 설립·운영되었다. 문화면에서는 임정의 기관지로 <독립신문>이 안창호, 이광수, 조동호, 차이석, 주요한, 이영열 등에 의하여 1919년 8월부터 1926년까지 간행·배포되었다. 사료편찬소 등이 설치되어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서적 80여 권을 간행해 냈다. 월간·주간지도 활발히 간행, 배포되었다.

넷째, 재정과 사법 업무도 함께 펴 나갔다. 임정의 예·결산은 인구세에 의존했으나 여의치 못해 독립 공채와 미주로부터의 군자금에 도움을 받았다. 사법 정책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

으나 보통·고등 법원과 중앙심판처를 설치, 운영하는 제도권에 머물러 있었다.

법통성의 현주소 - 문민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가치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 - 법통성을 뒷받침할 만큼 국내외의 광복 정책을 구심점으로 해서 처리해 나갔다는 실증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법통성의 맥락은 무엇인가.

첫째, 의회 민주 정치의 기원을 이룩하였다는 헌정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가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1919년 4월 13일 오전에 내외에 수립되었음을 선포한 것도 이미 2일 전에 제정 공포한 임시 헌장 10개 조에 근거였다.

그 제1조에서 표현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이라는 내용은 그로부터 71년이 지난 지금의 9차 대한민국 개헌 헌법 제1조의 그 명문과 그대로 맥락지어 재현, 보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민주 의회 정치의 기원은 8·15 이후 1948년 정식 정부가 수립, 선포된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19년 4월부터 실시된 임시 헌정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 의회 정치는 45년의 역사가 아닌, 긴 연륜이 '고회'에 이르고 있는 71년의 유구성에서 찾아 보아도 된다.

그 이후 임시정부는 1919년 9월에 통합 단일 민주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제1차 개헌을 합법 절차에 따라 단행하였다. 그것이 대통령 중심 지도 체제였다.

이후 제2차의 개헌으로 국무령 중심 지도제(1925~27)를 채택하다가 제3차 개헌에 따라 국무 위원 지도 중심제(1927~40)를 채택, 실시하였다. 이동 시대를 지나 중경에 정착한 이후 조소앙의 삼군주의 사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 의식을 강조한 민주사회주의의 건국 강령을 공식 채택하면서 제4차 개헌을 통해 주석 지도 체제(1940~44)로 변경하였다. 주석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 제공하였다.

이 당시 이당 치국(以堂治國)의 정당을 통한 국가 운영이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 채택됨을 보아 온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그 체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였다. 임시정부의 여당격인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통합되어 야당적인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을 견제, 제휴하면서 좌우 합작적 항일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려 하였다. 따라서, 상호 양보 노력에 따라 좌우 합작적인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의 이사장인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순수 민족 진영에서 받아들여는 제5차 개헌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주석·부주석 지도 체제(1944~45)가 형성되어 장개석 정부로부터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미 성장 발전하고 있던 광복군의 숫

자도 모두 3개 지대에 1천 명을 넘고 있을 정도로 크게 번성해졌다.

둘째, 임시정부는 내정, 교통, 외교, 군사, 교육, 문화, 재정, 사법 등 10여 개 부문에 걸친 광복 정책이 한날 단편적이거나 일과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하나의 민족사적 흐름 위에 정부적 기능과 행사 속에서 유기차게 이어졌다고 본다. 오늘날의 국가와 정부적 직능의 단서가 이미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선포될 당시부터 규모 있고 질서 정연하게 제도적으로 출몰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 법통성으로 연결, 흡수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다.

셋째, 오늘날 우리 나라 국군의 뿌리가 바로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성립, 전례식을 마친 200명 규모의 한국 광복군에서 찾아야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우리 국군 창설 당시 일본 육사나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장교가 버티고 서 있어서 군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세대는 현역에서 지나갔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군의 뿌리 의식 - 원류 의식은 곧 한국광복군에서 찾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겠다. 그 광복군이 8·15 당시 국내에 직접 정진, 수복했어야 남북 분단 문제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그 아쉬움은 간장을 녹일 지경인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이 수립될 당시를 전후로 하여 지도적 위치에 부각된 인물들이 임시정부의 요인이거나 임정을 거쳐간 인맥들이다. 다소 지탄을 받는 인물의 등장이 없지 않았으나 임정으로부터의 인물의 흐름은 일관성이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임정 시대 헌정사나 그 외적인 국정의 연결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각 방면에 걸쳐 흐르고 있음을 볼 때 8·15 이후 1988년 제9차 개헌 속에서 처음으로 임정의 법통성의 현주소가 그 헌법 전문(앞글)에 명시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조선 전사>나 일부 빛나간 소위 엘리트라는 소장 학자들의 근대 <민중사>류에서는 임정을 비하, 평가 절하 내지는 비방·훼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27년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통속 관념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으로 반민족적 작태를 연출하려는 치기어린 소영웅주의적 사고 방식 때문이라고 그간의 실례를 들어 정론에 입각해서 평가하고 싶다.

오늘날의 문민 공화 정부는 민주당의 장면 정부 이래 군사 정부 30여 년의 비의회적인 정부 형태를 청산, 극복한 공화 정부의 복원인 것이다. 우리의 문민 정부는 그래서 과거의 군사 통치 시대의 각종 비리 모순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 - 민주 문화 재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크나 큰 통일 민족사적 과제가 즐기찬 개혁의 실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에서의 독립 운동

김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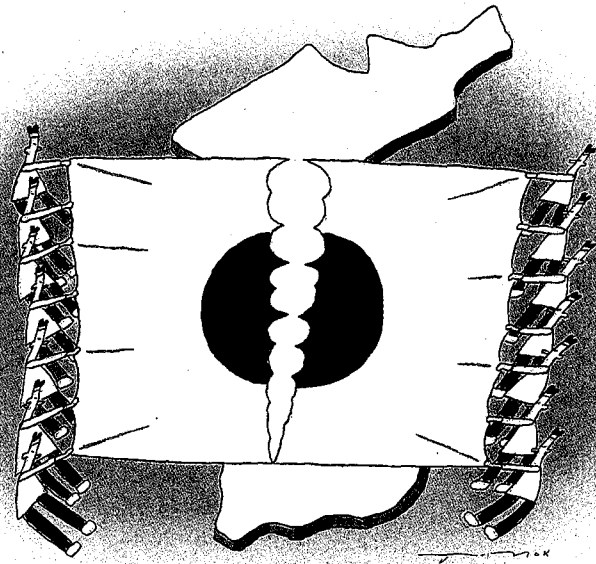


그림: 오진욱

항일 독립 운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일제 타도를 통한 민족의 독립이었지 반봉건 투쟁이나 민주 공화제 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의 틀에 맞추어 독립 운동사를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편견은 항일 독립 운동 자체의 실상을 왜곡 혹은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순수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계해야 한다.

독립 운동사를 보는 눈

항일 독립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빼앗긴 주권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제와의 치열한 투쟁을 가리킨다. 따라서, 항일 독립 운동은 어느 특정한 계급의 해방만을 목적으로 한 운동도 아니며, 오직 일제의 타도를 통해 민

족 전체를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독립을 하자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일 독립 운동사는 민족 전체를 포괄하고, 광범한 민족의 독립을 위한 지향을 결집한 항쟁의 역사이며, 이는 우리 나라 근·현대사의 흐름에서 볼 때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항일 독립 운동에서의 제1차적 목적과 지향은 어디까지나 일제의 타도를 통한 민족의 독립이었지, 민주 공화제 국가를 건설한다든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데 목적을 둔 운동도 아니며, 더욱이 반봉건 투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독립 운동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노선을 달리하면서 대립, 갈등, 협동 전선을 펴 나간 것도 목표 차원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항일 독립 운동사를 일정한 이데올로기의 틀에 맞추어 인식하려는 경향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격변과 더불어 일부에서

유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편견은 항일 독립 운동 자체의 실상을 왜곡 혹은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순수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계하여야 한다.

한편, 항일 독립 운동의 흐름은 1910년의 경술 조치를 계기로 민족적 저항이 전개되었지만, 특히 3·1 독립 운동을 분수령으로 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빼앗긴 주권과 독립의 쟁취라는 일정한 목표 아래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전개된 항일 투쟁의 총합이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의열 투쟁, 무장 투쟁을 필두로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등 사회주의 운동과 연계된 운동, 민족 의식의 고취에 일익을 담당한 문화 운동 등도 다양하게 전개된 항일 독립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필자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항일 독립 운동 가운데 국내의 독립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권 상실 이후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국을 그들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꾀하는 이른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식민지 통치 기관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의 무단 통치는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적 지배를 그 특징으로 한 지배 양식으로 처음부터 한국인의 저항이 예상되어 있었다.

이 무렵 경술 국치에 즈음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피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 같은 재야의 선비가 있었는가 하면 한말 애국 계몽 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국학 진흥과 교육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일제의 폭력 통치가 극렬해지면서 많은 독립 운동의 지사들이 새로운 독립 운동의 근거지를 찾아 국외로 망명하는 속에서도 국내의 독립 운동가들은 해외 망명 인사들과 연결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먼저 국내에서의 비밀 결사를 통한 독립 운동은 애국 계몽 운동의 흐름을 이은 지식인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1907년 안창호가 독립협회의 전통을 이은 신민회를 조직한 이래 1910년 국권이 상실된 이후에도 국민 계몽을 통한 애국심의 고취와 국외 독립 운동 기지를 설치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신민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친 일제 당국은 1911년 테라우치 총독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애국 계몽 운동의 지도자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신민회는 크게 타격을 입어 해체되었으나 그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어 도시와 농촌의 교육 기관을 통해 퍼져 나갔으며, 이를 거점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7년 장

일환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국민회'도 애국 계몽 운동의 전통을 이은 비밀 결사적 애국 독립 운동 단체였다.

한편, 한말 의병 운동의 전통을 이은 비밀 결사도 조직되어 일제 관공서의 습격, 친일 부호에 대한 응징을 통해 민족적 항쟁 의식을 키워 나갔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1912년 임병찬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의군부' 1915년 서상일 등이 조직한 '조선국권회복단', 1913년 채기중 등이 처음 조직하였고, 뒤에 박상진 등이 이를 강화시킨 '대한광복회' 등이 유명하다. 이 가운데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인 박상진은 경북 칠곡의 친일 악덕 부호인 장승원을 총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권 상실 후 일제에 의하여 실시된 무단 통치 기간에는 한국인의 결사, 정치적 집회가 금지되고, 한글 신문의 발행은 물론 정치적 발언의 길이 완전히 봉쇄되고 억압되었기 때문에 독립 운동은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조건 아래서도 한국인의 일제에 대한 항거와 저항의식은 성장해 나갔다.

1910년대의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조건은 식민지 예측 경제의 틀 속에 매몰되어 간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기초 작업으로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의 개편이라는 이름 아래 토지 조사 사업 및 임야 조사 사업이 단행되어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혁의 와중에 빠져든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토지 조사 사업 때문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3만 3천 937건에 달하는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일제 당국자에 항거하는 쟁의를 일으켰었다.

한편, 식민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은 노동자 계층을 낳게 하였으며, 그 숫자는 아직 근대 산업 사회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들의 경제 투쟁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곧 1912년에는 6건의 노동 쟁의에 참가 인원은 1천 500여 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18년에는 쟁의 건수 50건에 참가 인원 6천105명, 1919년에는 쟁의 건수 84건에 참가 인원 9천11명에 이르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농민·노동자들의 쟁의는 단순



김창수

동국대 문리대와 동 대학원을 나와 동아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음. 동국대 사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동 대학 사대 학장으로 있음. 저서에 <한국 근대의 민족 의식 연구>, <항일 의열 투쟁사>, <역사와 인간상>의 수십 편의 논문이 있음.

한 경제 투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무단 통치에 의한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온 항일 민족 의식은 드디어 1919년의 3·1 독립 운동을 계기로 폭발하게 되었다. 3·1 독립 운동은 거족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봉기한 민족 독립 운동사에서 최대의 항일 독립 운동이었다. 그것은 지주, 자본가, 종교인, 지식인, 농민, 노동자, 학생 등 계급과 직업을 초월하여 전 민족이 참가한 거족적인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 그리고 처음 서울에서 시작한 만세 시위 운동은 지방의 중소 도시로, 다시 농촌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거족적인 항일 독립 운동은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독립 운동은 민족 운동사에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 준 운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3·1 독립 운동을 전기로 하여 이후의 독립 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화하였고, 사회 운동과도 연계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3·1 독립 운동 이후

3·1 독립 운동을 분수령으로 항일 독립 운동은 전환의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국내의 독립 운동은 3·1 독립 운동의 민족적 저항에 부딪친 일제가 식민지 통치책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전환하면서부터 새로운 발전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3·1 운동 이후 독립 운동의 노선 내지 이니셔티브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 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견해는 옳지 못하다. 오히려 다양성을 띤 여러 형태의 독립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3·1 독립 운동을 겪으면서 국내의 항일 독립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저항이 전개되었다. 우선 새로 부임하는 조선총독 사이토오 마코도[齊藤實]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는 노지사 강우규에 의하여 서울 역전에서 그에 대한 폭탄 세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열사들의 일제 고관 및 관공서에 대한 투탄 의거는 연이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1919년 11월 중국 동북 지방의 길림에서 결성된 의열단의 활동은 목숨을 건 격렬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의열 투쟁을 폭탄 테러 사건이라고 항일 독립 운동사에서 낮게 평가하는 논자도 있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오히려 이러한 의열 투쟁이 성과도 컸고, 그 반향은 다른 운동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의열단의 활동 중 중요한 것만 열거하면, 1920년 9월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의거를 비롯하여, 그해 12월 최수봉의

밀양 경찰서 투탄 의거, 1921년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투탄 의거, 1922년 3월 김익상·오성륜·이종암 등의 타나카[田中義一] 대장 저격 의거, 1923년 1월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및 삼판통(후암동)·효제동 의거, 1924년 1월 김지섭의 동경 니주우바시[二重橋] 투탄 의거, 1926년 12월 라석주의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 투탄 의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거는 일제 당국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국내외에 떨치게 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큰 반향을 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1 독립 운동 이후의 민족 운동의 흐름에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은 아니지만, 그 기반의 조성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은 구한말의 애국 계몽 운동의 흐름을 이은 것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과 물산 장려 운동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전자의 경우는 3·1 독립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학생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민족 교육의 옹호와 그 내부 개선을 위해 1920년 6월 조선교육협회가 창립되고, 이를 모체로 하여 자주적인 민립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1922년 11월 이상재를 대표로 하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설립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일제 치하의 민족 교육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식민지 체제하의 일본 자본에 대항하여 민족 자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3년 조직된 물산장려회를 중심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물산장려 운동은 서울·평양 등의 도시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각지로 번져 갔고, 청년회·부인회·소년단 등의 호응을 얻어 전국적인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적 단결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항일 독립 운동으로서는 한계를 지닌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이 무렵의 문화 정치라는 식민지 체제 아래서의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는 체제에 타협적인 민족 개량주의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라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3·1 독립 운동 이후 민족 독립 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대중 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운동과도 제휴하면서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에 이르렀다. 1924년의 조선노동총동맹, 1925년 천도교계의 조선농민사 등이 대중적 기반 아래 창립되어 단순한 계몽 단체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항일 민족 운동 단체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조직과 함께 커다란 조직력을 가진 대중 단체로 1924년 창립된 조선청년총동맹이 있었다.

이 단체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청년 단체였으나 당면의 지향은 역시 민족의 독립이라는 일정한 목표를 지니고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여성 단체로는 1919년 4월 대한독립애국부인회가 비밀리에 결성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제휴하여 이를 지원하는 운동을 펴 나갔다. 이 단체는 얼마 안 있어서 대한애국부인회로 개칭되었으며, 이 밖에도 여성 해방과 민족 독립을 결부시켜 사회 문제로 제기한 여성 단체로 1925년 5월 창립된 조선여성동우회 등의 활동도 괄목할 만하였다.

한편, 농민들의 소작 쟁의와 노동자들의 노동 쟁의도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활발한 운동을 펴 나갔다. 특히, 소작 쟁의는 동척 농장이나 불이 농장 같은 일본인 지주의 농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노동 쟁의는 1929년의 원산 제네스트, 1930년의 경성 제네스트 등이 유명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농민·노동자의 권익 옹호의 차원을 넘어 일제 타도라는 일정한 목표를 향한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물론 이 시기의 항일 독립 운동은 그 노선으로 보아 민족주의, 아니키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전개된 것이며, 민족주의 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니셔티브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신간회 활동과 광주 학생 운동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일 독립 운동은 새로운 특색을 지닌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무정부주의 운동이 일어나 국내에도 파급되었는데, 1923년 박열의 일항 암살 계획은 그 구체적 표현이었다. 한편, 동경과 상해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 사상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1925년 조선공산당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는 일제에 의해 치안유지법이 실시됨에 따라 네 차례에 걸친 공산 당원 검거가 연이어 일어나 공산당은 큰 타격을 받고, 또한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하여 일국 일당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 공산당의 활동은 지하로 들어갔으나 노동 쟁의, 소작 쟁의를 통해서나마 조직적인 항일 운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한편, 국내에 있어서의 항일 독립 운동 전선의 통일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는 조직을 결성하지는 것은 역량의 결집을 위해서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공통된 요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1927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협동 전선을 펴서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조직으로서 신간회를 결성하였다.

신간회는 1929년의 광주 학생 운동, 같은 해 1월부터 비롯된 원산 노동자 제네스트에 대한 지원, 8월의 함경남도 갑산의 화전민 방축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항의를 통해 일제의 탄

압을 무릅쓰고 이에 개입,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신간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결성된 근우회도 신간회와 같은 성격의 여성 단체로 종래의 여성 단체를 망라하면서 여성 해방과 민족 독립을 슬로건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일제하의 유일한 합법 단체로 출발한 신간회는 1931년 코민테른 노선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신간회 해소론이 제기됨으로써 해산되고 말았다.

3·1 독립 운동 이후에 전개된 국내의 독립 운동은 민족주의자가 주도한 운동과 함께 사회주의자와의 결합을 통해서도 전개되었다. 1926년 6월의 6·10만세 운동은 제2의 3·1 독립 운동을 목표로 처음 조선공산당이 지도하여 일으키려고 한 대중 운동이었으나, 제2차 공산당 검거에 의하여 실패하고, 서울의 중앙고보 등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항일 독립 운동이었다. 1926년 4월 26일 조선왕조 최후의 왕인 순종이 세상을 떠났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회주의자들의 장례일인 6월 10일에 일대 시위 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일제 관헌에 의하여 공산당 간부 및 천도교계의 인사들이 모두 검거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어 장례 당일, 30만의 군중이 장례를 지켜보는 가운데 독립 만세를 부르고, 격문을 뿌리면서 기두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으로 학생 200여 명이 검거되고, 11명의 학생이 기소되었다. 6·10만세 운동은 3·1 독립 운동을 경험한 일제 관헌의 철저한 탄압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지는 못했으나 3·1 독립 운동 이후의 가장 주목되는 독립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0월 30일 기차 통학을 하던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에게 한 모욕적인 언동에서 발단되었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일본 경찰은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에 지워서 관련된 학생들을 검거하였다. 이에 광주의 학생들은 총궐기하여 민족 차별의 철폐, 약소 민족의 해방, 계국주의의 타도를 부르짖는 전국적인 학생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신간회가 이를 뒤에서 지원하였다.

이 운동은 1930년 3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참가 학교수 194개교, 참가 학생수 5만 4천 명에 달하는 일대 항일 시위 운동이었다. 따라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 독립 운동 이후의 최대의 민족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후의 국내의 민족 운동은 농민 운동, 노동 운동, 문화 투쟁을 비롯하여 비밀 결사를 통한 투쟁이 1945년 8월 15일의 민족 해방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갔다.

끝으로, 국내에서의 항일 독립 운동은 어디까지나 일제의 타도를 통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는 점을 첨언해 둔다. *

중국 동북 지역의 항일 민족 독립 운동

박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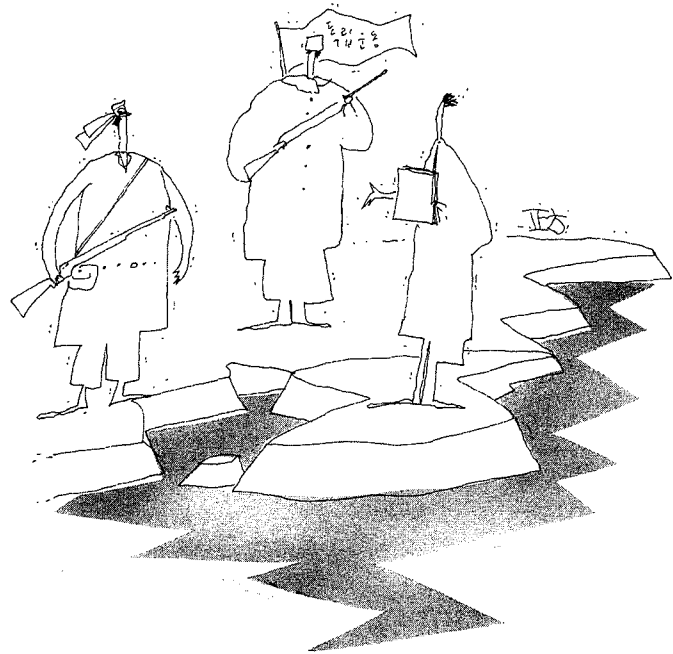


그림: 최정호

만주 지방의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한 연구의 과제로는, 운동의 토대가 되는 재만 한인 사회에 대한 연구와 중국 동북 정권의 재만 조선인 정책 및 러시아 지역의 대한인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20년대 이후 민족 진영의 운동을 고찰할 때는 당시 새롭게 대두된 공산주의 이념과 그 단체들에 주목하면서 서술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 진영 운동의 변화와 성격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점되자 국내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 운동가들은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지속적인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국 동북 지역(만주), 중국 본토·러시아령·미주 등 해외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해외 망명 독립 운동가들이 추구하던 민족 독립 운동의 방향은 개인별, 단체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독립 운동 단체들 사이에는 수없이 분열·통합되는 과정이 되풀이되기도 하였다. 그 중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 동북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특히 무장 투쟁 방략과 교육 산업 우선주의를 지지 실현코자 하던 지사들이 많이 망명했던 곳이며, 실제 많은 독립 전쟁이 이 지역의 독립 운동 단체들에 의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독립 운동의 전체적인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독립 운동을 독립 운동 기지의 건설과 독립 전쟁의 전개, 독립 운동 단체의 정비와 삼부(三府)의 형성, 민족유일당 운동과 1930년대의 무장 투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중국 동북 지역 독립 운동의 특징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국내, 중국 본토, 러시아, 미주 등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독립 운동 기지의 건설과 독립 전쟁의 전개

1910년을 전후하여 재만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독립 운동가들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 전쟁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독립 전쟁론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 침략 전쟁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강점한 데 이어 중국·러시아·미국 등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수립된 대일 항쟁 방략론이다. 즉, 일제는 필연적으로 중일 전쟁과 러일 전쟁, 그리고 미일 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인은 대일 독립 전쟁을 감행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은 무장 세력의 양성과 군비를 갖추면서 독립 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첫단계 사업은 민족 정신이 투철한 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해외에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안은 신민회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으나, 이들은 1910년을 전후하여 중국 동북 지역에 한민족을 집단적으로 망명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이 중국 동북 지역을 망명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 둘째, 1860년대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당시 재만 한인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 셋째, 일본의 압력이 국내보다 덜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점되자 신민회의 계획에 따라 서간도 지역에는 경학사(耕學士), 부민단(扶民團),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등이 조직 운영되었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명동촌(明東村)이 독립 운동 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독립 운동 기지의 건설은 이 지역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 독립 운동의 확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3·1운동 이후의 본격적인 대규모 독립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독립 운동 단체들이 무장 세력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을 무렵, 국내에서는 3·1운동이 거족적으로 일어났다. 3·1운동을 통해 한민족은 평화적인 시위로 조국의 광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민족은 곧 이것이 제국주의의 기본 속성을 간파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투쟁 방략이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무장 투쟁론이 적극 대두되었으며, 모든 재만 동포들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각 독립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70여 개의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었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한반도에 침투, 일본군 국경 수비대를 교란시키는 무장 활

동을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무장 투쟁으로는 삼둔자 전투,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등을 들 수 있다.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제는 군대를 대거 중국 동북 지역에 출동시켜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병력과 무장에서 열세였던 재만 독립군의 주력 부대는 소·만 국경 지대인 밀산으로 이동한 뒤였다. 이에 본격한 일본군은 화룡현과 연길현 등 재만 한인들이 살고 있는 부락들을 습격, 방화하고, 죄 없는 양민들을 다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구 살상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만행은 북간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간도 지역에서도 자행되었다.

밀산 지역으로 이동한 재만 독립군은 일단 진영을 재편성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다. 이 군단의 병력은 약 3천 5백명 정도였는데 총재는 서일이 담당하였다. 밀산에서 겨울을 보낸 대한독립군단은 1921년 3월에 다시 이동을 시작하여, 노령 연해주와 흑룡주 일대에서 활동 중이던 문창범 등의 도움을 받아 소·만 국경 하천인 우수리강을 넘어 이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1912년 4월 중순 대한독립단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대한독립단은 당시 흑룡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공산 세력으로부터 항일 공동 전선을 형성하지는 제의를 받아 독립군들이 이만을 떠나게 됨으로써 해체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김좌진 등 북로군정서 계열은 이만에서 밀산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최진동, 이청전, 안무 등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서로군정서 계열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자유시로 불리던 알렉세브스크(Alekseevsk)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한국 독립군은 여기서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한국인 부대와 간도 지역에서 이동한 독립군이 고려혁명의회와 대한의용군으로 갈라져서 벌인 군권 쟁탈전의 소산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만 독립군의 주력 부대가 속해 있던 대한의용군은 러시아 적군 제 29연대에 의해 무장 해체를 당하였다. 이에 독립군은 하는 수 없이 1922년 말경부터 다시 간도 지역으로 복귀하여 독립 운동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효과적인 대일 항쟁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박영석

고려대 사학과와 동 대학원 사학과를 나와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건국대 교수, 한국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연구소 상임위원임.

저서로 《만보산 사건 연구》, 《한민족 독립운동사 연구》, 《재만 한인 독립 운동사 연구》의 수십 종의 저서·저술이 있음.

독립 운동 단체의 정비와 삼부(三府)의 형성

1920년 말을 전후하여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요 독립군 부대들이 소련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간도 지역에는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잔류하여 비록 위축된 상황에서도 항일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표적인 단체로는 대한독립단, 광복단, 광복군총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을 효과적인 대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922년 대한통의부를 조직하였다.

한편, 북간도 지역의 독립 운동 단체들은 서간도에서와는 달리 조직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20년 일본군의 '간도 출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독립 운동 단체들은 일본군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간도 일대에서 자체 재정비와 복원에 주력하였다.

1922년 8월 말 서간도에서 통의부가 결성되었으나, 곧 통의부와 의군부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통의부의 군사 조직인 의용군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제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23년 8월, 의용군은 통의부와 의관계를 청산하고,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가 되었다. 참의부의 활동은 군사 활동으로 대표된다. 참의부는 의용군 제1부, 제2부, 제3부 중대를 주축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집안, 장백, 안도, 무송, 통화현 등 압록강 연안 지역의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침투 작전에 주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전으로는 1924년 5월 국경을 순시하던 사이토[齋藤實] 조선총독에게 충격을 가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통의부의 의용군이 참의부를 조직하자 통의부를 비롯하여 길림주민회, 광정단 등이 중심이 되어 1924년 11월 25일 정의부를 조직하였다. 주요 간부로는 이탁, 오동진, 김동삼, 이상룡, 현정경, 김이대 등을 들 수 있다. 남만주의 참의부가 군사적인 성격이 뚜렷한 단체임에 비해, 정의부는 민간 업무에 치중하여 자치 정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정의부는 입법 기관에 해당하는 의회와 행정 기관인 위원회, 그리고 사법 기관인 사판소를 중앙, 지방, 구에 각각 설치하여 3권을 분립시켰다.

한편, 1925년 3월 10일에는 북만 지역의 영안현 영안성 내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의 중심 인물은 김혁, 김좌진 등이었다. 이 단체는 대중교적 민족주의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이를 추종하던 대중교적 민족주의자들은 단군을 정점으로 하는 단군 신앙을 강조하고 있었으므로 민족보다는 계급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에 동조할 수 없었다. 또한 1921년 6월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 때문에 공산주의자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으며, 게다가 그들은 양반 가문의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중교적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저지하고 대중교적 민족주의 이념을 계몽하고자 하였으며, 공화제의 실시를 표방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위원 제도와 당 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족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 동북 지역에는 수 많은 독립 운동 단체들이 난립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 운동 단체들은 사태의 변화에 따라 통합, 분열되기도 하였는데, 결국 1925년에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삼부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민족유일당 운동과 1930년대의 무장 투쟁

그런데 1925년 6월,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통치에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요령성에서의 독립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자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중국 동북 군벌 사이에 소위 삼사협약(三矢協約)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독립 운동의 조건이 악화되자 민족 진영과 공산 진영에서는 중국국민당과 소련공산당, 아일랜드의 시실리당의 영향을 받아 이당치국(以黨治國)만이 분산된 독립 운동 세력을 통합하고 민족의 역량을 이념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독립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하여,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본토에서 전개된 이 운동은 국내에서는 신간회 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동북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7년 4월 15일 길림성 신안둔에서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의부, 한족노동당 등 독립 운동 단체의 대표 52인이 모인 가운데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민족유일당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3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개인 본위 조직론, 단체 본위 조직론, 단체 중심 조직론 등이 그것이다.

개인 본위 조직론자들은 기존의 세력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지방 중심 혹은 파벌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들을 본위로 하여 유일당을 조직하게 되면 반드시 당파에 의한 다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유일당은 기존의 모든 단체를 해체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단체 본위 조직론자들은 현재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매우 많으나 이들은 소규모 단체들이어서 단결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들을 연합하여 유일당을 조직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단체 중심 조직론자들은 단체 본위 조직론에 따르면 유일당이 되지 못하고, 각 단체의 연합회 같은 성격을 띄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기존 단체 가운데 가장 권위있고, 전적 또한 가장 많은 유력한 단체를 중심으로 유일당을 조직하고, 다른 소규모 단체들을 여기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으로, 1928년 5월 기존 단체를 부정하는 개인 본위 조직론자들은 전민족유일당총성회를, 기존 단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단체 본위 조직론자와 단체 중심 조직론자들은 전민족유일당협의회를 각각 조직함으로써, 민족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1928년 4월 전민족유일당총성회측이었던 김동삼 등이 신민부의 김좌진을 방문하여 삼부 통합에 대한 의도를 타진해 봄으로써 독립 운동 세력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여기에 가담하고자 했던 세력으로는, 소위 정의부 탈퇴파인 김동삼을 중심으로 한 세력,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 군정파, 그리고 참의부의 주류인 김승학 계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부 통합 운동 역시 일제의 줄기찬 방해 공작과 신민부와 참의부 자체 내의 내분 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민족유일당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독립 운동가들은 계속하여 독립 운동 진영의 통합만이 일제를 한국으로부터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전민족유일당총성회파들은 1928년 12월, 정의부측의 김동삼, 참의부의 김승학, 신민부의 김좌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잠정적인 조직으로 혁신 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혁신 의회는 발전적인 해체를 거듭하여 1929년에는 한족총연합회로, 1930년에는 한국독립당, 한족자치연합회, 한국독립군 등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한편, 전민족유일당협의회파였던 신민부의 민정파와 참의부의 심용준파, 그리고 정의부의 현익철 등은 1929년 4월 길림에 모여 국민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0일에 개최된 제 1회 중앙 의회에서, 국민부는 동포 사회의 자치 행정만 담당하고, 혁명 사업은 전민족유일당 조직동맹이 수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2월에 조선혁명당을 창당하였고, 아울러 당군으로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였다.

1931년 일제에 의하여 만주 사변이 발생하자 한국독립군은 북만에서, 조선혁명군은 남만에서 일제에 대항하여 한중 연합 전선을 결성,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이 행한 대표적인 전투로는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경우는 영통가 전투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하던 가운데 독립군 중 한국독립군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1933년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잔여 부대는 최약, 안태진 등의 지휘하에 목릉, 밀산 등 산림 지대로 옮기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군은 이미 1932년부터 간부진이 남경 방면을 왕래하면서 중국 정부에 지원 교섭을 벌였으며, 주로 남경, 광주 방면에 체류하면서 임시 정부와 연락하며 새로운 항일전을 준비하였다. 일면 최근의 연변 지역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중국 동북 지역에 남아 있던 조선혁명군은 1937년까지 계속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한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인들과 연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을 조직,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의 성과 및 그 성격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많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시급한 형편이다.

중국 동북 지역 항일 민족 독립 운동의 성격과 그 과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 운동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 운동은 재만 동포들의 지지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중국 본토, 미주 등지와는 달리 다수의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바로 군자금의 제공원이며, 독립군 병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독립 운동 단체들은 동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그들은 동포들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단체에서 시행한 정책, 제도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주 지역의 독립군이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재만 동포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3·1운동 직후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동포들의 지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70여 개의 독립 운동 단체들이 조직되는가 하면, 봉오동·청산리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승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포들의 지지도 운동의 장기화와 가시적인 성과의 부족, 지도자들의 동포들에 대한 정책 부재, 지도자로서의 수양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약화되어 갔다. 그러한 가운데 공산주의 이념이 등장함으로써 동포들은 민족 진영 지지파와 공산주의 지지파 등으로 나뉘어져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민부의 김좌진 등 민족 진영의 일부는 무정부주의 이념을 수용, 동포들의 지지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강령은 사회주

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둘째, 1910, 2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 운동자 중심의 조직이 허다했다. 그러므로 일제에 의한 독립 운동 간부의 체포, 사망에서 독립 운동 단체의 성쇠가 많이 좌우되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립 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효과적인 대일 투쟁의 전개가 가능하였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서일, 오동진, 전덕원, 이법석, 김규식, 오광선, 이청천, 안무, 김동삼, 이상룡, 양세봉 등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와 허형식 등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지도자들을 들 수 있다.

셋째, 1910년대에는 공화주의 이념과 복벽주의 이념의 단체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독립 운동 단체들이 공화주의 정치 이념을 채택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북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단체들이 서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단체들보다 빨리 공화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서간도 지역의 경우에는 1920년대 전반기 대한통의부가 공화주의 계열과 복벽주의 계열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운동의 약화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심지어는 동족끼리 서로 살상하는 비극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진통을 겪은 후 서간도 지역에도 공화주의 이념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정의부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넷째, 투쟁 노선에 있어서 무장 투쟁 노선과 교육·산업 우선주의를 지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재만 독립 운동 단체들은 무력을 통하여 조국의 해방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민족 정신의 고양과 산업의 발전을 통한 군사력의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양자의 대립으로 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신민부가 민정파와 군정파로 나뉘어 분열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 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독립 운동가들은 다양한 조직을 구상하였다. 대한국민동의회,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 군정서, 대한독립단 등의 단, 대한통군부, 대한통의부, 의군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등의 부, 고려혁명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당, 한족총연합회, 한족자치연합회 등의 연합회, 군정부 등 정부 형태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만주 사변 이후 1933년에 이르기까지 한국독립군은 중국군과 연합해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반만 항일전을 계속하였으나 일제의 막강한 군사력과 중국군의 배신 행위로 인하여 후일의 운동을 기약하고 임시정부와의 연락하에 중국 관내로

이동, 중국 본토에서 광복군을 설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중국 동북 지방에 잔존한 독립군은 지도자를 잃은 채 항일전을 계속하였지만, 결국은 좌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력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 결국 만주는 이로써 더 이상 민족 진영 운동의 근거지가 될 수 없었다. 한편,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을 조직하여 1930년대 후반까지 반만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곱째, 독립 운동 단체들은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10년대, 20년대에 민족 진영의 단체에서 다수 보이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독립 운동 단체들은 분열되고 약화되는 면모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일면으로 그러한 경향은 운동 단체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종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북로군정서는 대종교, 대한국민회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는 방법 역시 일본 첩자의 감시하에서 운동 단체를 조직하는 한 유효한 방법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방법은 이념을 중심으로 한 조직 방법으로 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할 경우 운동 단체는 보다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주 지역 운동 세력의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고려혁명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 당의 조직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덟째, 민족 진영의 독립 운동자들은 이념적인 측면이 약하였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친일파로 전향한 자가 비교적 많았다. 특히, 1932년 일제가 만주를 지배하게 되자 이러한 현상이 다수 나타났다.

아홉째, 한국 독립 운동자들은 독립 전쟁론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 정책이 장차 중일 전쟁, 미일 전쟁까지 몰고 올 것이라고 하는 높은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대일 저항력의 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나타내었다.

이 밖에도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 운동의 특성으로는 독립 운동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 막강한 일본군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규모의 전투보다는 전술상 게릴라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민족 진영의 독립 운동 근거지 가운데 일부는 깊은 산 속에 위치하지 않고, 도시와 만철연선(滿鐵沿線)의 부속지, 그리고 재만 한인 촌락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관련 또는 밀정에게 발각되어 체포 구금되는 예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다음에는 중국 동북 지역의 독립 운동과 중국 본토, 러시아,

미주, 국내 운동과의 상관 관계를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독립 운동과 중국 본토와의 관계는 대체로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 임시정부에서 만주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 지역 독립군 단체에 대한 통치권 행사는 상해 임정의 지리적 한계성과 군사 활동의 제약을 극복,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정은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의 제정을 통해 이 지역 한인 사회를 군사 활동의 인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병행하여 임시정부에서는 특파원의 파견을 통해, 재만 한인 사회 및 항일 독립군과의 연관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그 결과 3·1운동 직후에는 이 지역 거의 모든 단체들이 상해 임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서간도 지역의 대한청년단연합회, 북간도 지역의 대한국민회 등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는 서간도 지역의 광복군사령부, 광복군참리부, 참의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임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 주된 배경은 임시정부의 위상 퇴락으로 인하여 재만 독립군측에서 더 이상 임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독립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재만 독립군들은 임정으로부터 재정, 군사적인 측면 등 실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국제간의 외교적인 교섭 등을 통하여는 독립의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임정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러시아 지역 운동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중국 본토와 달리 러시아 지역은 국경을 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중국 동북 지역과는 하나의 운동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지역 간에는 운동자의 이동, 무기의 공급, 군사금의 제공, 운동 단체간의 교류, 군사 교관의 파견 등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3·1운동 직후에는 러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무기들이 만주 지역에 공급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무장 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1910년대에는 권업회, 대한국민의회와 북간도 지역의 간민회, 대한국민회 등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한편, 이 지역은 일제의 간도 출병 이후에는 만주 독립군의 피신처로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공산주의와 관련하여서는 만주 지역에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진조 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하였다. 하바로브스크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 일크츠크에서 조직된 일크츠크파공산당 한인지부 등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지역과 만주 지역 독립 운동과 민족 진영 운동과의 관계는 1923년 이후 러시아 지

역이 거의 공산화됨으로써 연결의 고리가 단절되게 되었다.

미주 지역과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측면과 운동 방향에서의 차이 등이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다만, 구한말과 1910년대 전반기까지 미주의 국민회, 대한국민회의 영향력이 러시아 지역에 강하게 미칠 때 이들 단체의 영향이 만주 지역, 특히 하얼빈, 목릉현 등지에 작용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1910년대 초반 대한국민회 만주 총회가 하얼빈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1910년대 이후에도 북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가 기독교 단체로서 미주 대한국민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특히, 정제면이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서로군정서에도 미국에서 활동하던 박용만이 주요 간부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는 중국 동북 지역의 운동과 미주 지역 운동과의 관계는 별로 살펴볼 수 없다.

국내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만주 지역에서 조직된 운동 단체들 가운데 많은 단체들이 무장 투쟁을 추구하였고, 그들의 당면 과제는 국내 진공에 있었다. 사실상 국내와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3·1운동 직후에는 수많은 독립 운동 단체들이 이를 시도하였다. 광복군사령부의 활동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진공 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국경 연안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독립 운동 단체들 가운데에는 국내에 지부를 조직하여 국내의 진공시 호응을 얻으려고 한 단체들도 있었다. 예컨대, 신민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대원들을 파견하여 국내를 정찰하기도 하였으며, 대한독립단에서는 한강 이북 지역에 국내 조직을 갖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주 독립 운동 단체들의 이러한 진공, 조직 활동도 1910년~20년대에 국한되었으며, 3·1운동 직후에 가장 활발하였다.

끝으로, 중국 동북 지역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한 연구의 과제를 간단히 언급하면, 우선 운동의 토대가 되는 재만 한인 사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재만 한인을 위요한 중국 동북 정권의 재만 조선인 정책 및 러시아 지역의 대한인 정책에 보다 깊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이후의 민족 진영의 운동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당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던 공산주의 이념, 단체들에 주목하면서 민족 진영의 운동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민족 진영 운동의 변화와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930년대 운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및 중국 동북 지역의 운동사 연구에 있어서도 국내외의 동시기의 운동과의 관련하 밀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해주에서의 독립 운동

권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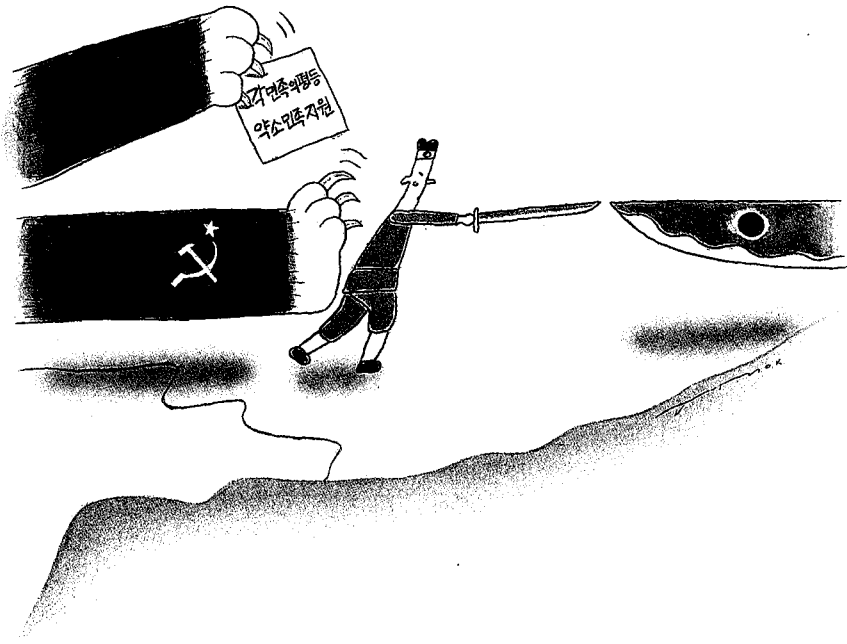


그림 오진목

연해주에서의 한인 독립 운동의 역사를 보면, 한국 독립 운동과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회주의는 각 민족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어느 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은 약소 민족을 지원하기는커녕 탄압해 왔다. 당시 소련이 약소 민족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이 지배하고 있는 약소 민족을, 적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시적으로 이용할 경우뿐이었다.

연 해주는 러시아어로는 프리모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바다에 접해 있는 지방이라고 해서 연해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연해주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으나 발해가 거란에 망한 후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로부

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 지방이 다시 우리의 역사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러시아가 극동 방면으로 진출하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아울러 북한 지방에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두만강을 넘어 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는 이른바 서세 동점의 시기로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의 열강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등 미처 근대화하지 못한 지역들을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이는 시기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서세 동점의 시기에 쇠국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연해주는 1860년에 와서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만강 대안의 한인들이 연해주의 비

옥한 땅을 경작하려는 동기로 강을 넘어 이주하였으며, 조선 정부로부터의 엄한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한인들은 월경 이주를 계속하였다.

1884년에 들어와서 조선과 러시아는 국교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노령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법적 지위 확보는 그 이후에야 가능해진다. 한국으로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노령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려는 한인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0세기 초에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독립 운동을 하려는 많은 애국 지사들이 또한 이 지방에 이주하여 이 지역을 항일 운동의 거점으로 삼아 독립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7년 무렵에는 약 20만 명 가까운 한인들이 연해주를 비롯한 노령의 각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노령에서의 독립 운동은 결국 이러한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 운동이며, 특히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은 한민족 독립 운동의 거점으로 우리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의 독립 운동의 역사를 간결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900-1910년대의 독립 운동

1860년대부터 특히 1869년의 기사 흉년 이래 많은 한인 농민들이 연해주로 이주해 갔지만, 이 이주에는 정치적인 동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1905년부터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망명 인사들이 연해주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때는 을사 보호 조약이 체결된 해로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연해주 지역을 독립 운동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에서의 독립 운동은 곧 연해주에서 반항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의병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 1907년 연해주 남부의 한인 촌락에서는 의병 부대가 훈련을 받은 일도 있었고, 이 때문에 러시아 총독에 의해 수십 명의 한인들이 체포되어 일경에게 넘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해주에는 홍범도, 유인석 같은 전설적인 의병장들이 들어와 활동을 하였다. 1910년에는 암밤비에서 연해주 전 의병이 결집하여 창의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애국 계몽 운동계의 단체로 미주 국민 회의 지부가 시베리아의 각처에 조직되었으며, 1911년에는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총회가 조직되기도 하였고, 기관지로 〈대한인정교보〉도 발간하였다.

국내에서의 독립 운동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연해주는 독립 운동의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해 내었다. 1910년 8

월에는 '성명회(聲明會)'가 결성되었는데, 이회는 한일 합병에 대해 유인석, 이범윤, 홍범도, 이상설, 김학만 등 8천 264인의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회는 일제의 압력에 의한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1달 만에 해산되었는데, 그 후신으로 권업회가 1911년 5월 19일 발기되었다. 권업회는 연해주의 선주 이민이었던 최재형, 최봉준, 김학만 등의 연해주 유지와 이범윤, 유인석, 홍범도 등 국내외 만주에서 활동하던 의병 운동 세력, 그리고 이상설, 정재관, 이종호, 윤해 등 애국 계몽 운동 세력이 모두 결집한 일대 민족 운동 단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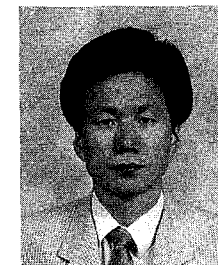
권업회는 〈권업신문〉을 발간하면서 연해주 주민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 애국심 고양에 기여하였는데, 1914년 독립 전쟁의 추진을 위해 대한 광복군 정부를 구상하기까지 하였으나 1914년 9월 일제의 요청에 의하여 러시아 정부는 권업회를 해체하였다.

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던 한인 사회는 1917년 2월 혁명과 더불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2월 혁명과 더불어 전제적인 짜르 정부는 붕괴되었으며, 임시 정부와 소비에트가 각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수 민족으로서의 한인들은 그 동안의 억압을 떨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인들은 1917년 5월 '전로한족회'를 결성하고, 토지 문제 등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10월 혁명과 더불어 러시아에는 소비에트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고, 한인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연해주 지방은 1922년 10월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수하기까지 적군과 백군이 번갈아 통치하는 내전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연해주에서의 독립 운동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올랐다. 당시 일본군과 러시아 적군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군에 대한 항전의 의미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러시아 적군에 가담하여 투쟁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19년의 3·1운동의 발발은 연해주의 한인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연해주의 한인들은 조국과의 연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



권희영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석사,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 연구실 교수로 있다. 저서로 〈국사관 논총 41〉의 다수가 있다.

기 때문에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즉각 공동 보조를 취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3월 15일부터 시위를 계획하였고, 블라디보스톡을 통치하고 있던 백군 정부에 대하여 양해를 요청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자 시위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한인 지도부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니콜스크-우수리스크로부터 시작하여 독립 운동의 불길을 점화하였다. 3월 17일 오전 문창범, 김철훈, 오창환 등은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4월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 연해주의 각 도시와 농촌은 독립 운동의 조류에 휩싸이게 되었다.

한인들은 단순히 시위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며, 시위 운동을 일으켜 독립 운동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고조시킨 후에는 구한국 시대에 해산된 군인들을 소집하고, 한인 헌병, 헌병 보조원, 한인 보병대 등을 선동하며 무기를 탈취해 해 의병들과 상호 연결하고, 또한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 군인들에 호소하여 쫓겨간 해 한국 내에 진입하고,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간섭하게 하여 파리 강화 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열강들이 한국 독립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인들의 계획은 국제 정세의 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시 사변

3·1운동을 통하여 고양된 한인들은 연해주를 비롯하여 만주 등 각지에서 활발한 독립 운동을 일으켰다. 각지에서 소규모 무장대가 조직되었고, 이들 부대들은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전면적인 독립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한인 무장대의 존재는 일본으로서도 좌시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은 한인 무장대를 일거에 제거하려는 목표하에 1920년 간도에 대규모의 병력을 출동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한인 무장대는 바로 이 시기에 청산리 대첩, 봉오동 대첩 등의 한인 독립 운동사에 길이 남을 전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한인 무장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본군과 전면 충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만주의 독립군들은 약소 민족을 보호한다는 기치를 내건 소련으로 일시 피신하여 힘을 기르고, 후에 독립 전쟁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는 소련의 시베리아 및 극동 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던 많은 한

인 무장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 소비에트 정부도 국제군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 및 노령의 한인 무장 부대들은 모두 노령 아무르주의 자유시(스보보드니이)에 집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러시아 정부는 한인들의 독립 운동을 진정으로 지원해 줄 의사가 없었다. 당시의 소비에트 정부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소비에트 정권의 안보를 확실히 하려고 바이칼호 동쪽에 ‘극동공화국’이라는 완충국을 세우고, 일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출병을 철저히 막아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철벽 유도를 위하여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가지려고 하였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극동공화국’ 내의 한인 독립군들의 활동 금지 조항이 당사자들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이 합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극동공화국’은 한인 무장대를 지원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한인 독립군들은 노령에 결집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한인 무장대를 지원하고 있는 한인 사회당이 분열하여 한인 무장대 사이의 대립을 조장하였다는 점이다. 박일리아를 지도자로 하는 니콜라예프스크에서 활약하였던 무장 부대와 오후목을 지도자로 하는 아무르주 출신의 한인들로 구성된 자유 대대 사이에는 심각한 충돌이 있게 되었는데, 러시아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오후목 등 이르쿠츠크파의 인사들이 선동하여 러시아 적군의 힘을 빌어 박일리아 부대에 대해 무장 해체를 감행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고, 1천 명 가까운 한인 독립군들이 포로가 되어 소련의 감방과 강제 노동장 등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다. 또한 일본군에 대항하여 한인들의 힘을 결집한 독립군을 조직한다는 꿈도 무산되었다. 이것이 우리 독립 운동의 역사상 자유시 사변으로 기록되고 있다.

소련 정부는 그들이 약소 민족을 돕는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실상은 자유시 사변을 통하여 드러났다. 한인들이 도움을 기대하였던 볼셰비키 정부조차도 자국의 안보 관계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한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1921년 6월에는 자유시 사변을 통하여 한인 독립군에게 일대 타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1920-30년대의 독립 운동

1922년 10월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철수하고, 연해주는 소비에트 정부에 편입되었다. 연해주가 볼셰비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한인들에 대한 정책도 변화를 가져 왔다. 내전시에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한인 무장 세력도 이제 백군이



블라디보스톡은 노령에서의 독립 운동 본거지였다. 사진은 1920년 독립 선언 기념대회를 열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교포들.

패배한 이후로는 그 소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련은 한인 무장대를 국경 밖으로 추방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연해주의 한인 독립 운동은 1923년부터는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소련 정부는 민족주의를 탄압하고, 오직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보급하는 차원에서만 한인들을 이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한인들의 독립 운동도 자연히 위축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3·1운동 관계 행사이다. 연해주에서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 첫 해인 1923년에는 한인들에 의한 3·1운동 기념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3월 1일에 신한촌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이 이루어졌고, 그 행사는 3일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25년에 이르러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는 소련당국에 의해 거부되어 진행될 수 없었다. 1925년에 성립한 러일 협약에 의해 소련은 일본의 입장을 살피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부터는 연해주는 한인 독립 운동의 근거지가 아니라 철저한 탄압을 당하는 지방이 되어 버렸다. 소련에서 공산 정권이 틀을 잡아감에 따라 민족주의적 운동은 철저한 탄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1920-30년대는 연해주에서는 오직 한인들의 공산주의 운동만 존재하였지, 민족주의적 독립 운동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한인의 존재는 1937년까지만 용인되었다. 한국과의 국경 지방에 한인들이 밀집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있던 소련 정부는 한인들이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인 지도자들은 거의 전부가 숙청당하였다. 따라서, 이후로 연해주는 한인 독립 운동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연해주에서 한인 독립 운동의 역사를 일별해 보면 한국 독립 운동과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올바른 독립 운동사 교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주의는 각 민족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어

느 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혁명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국제 사회에 높이 천명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약소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원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맺음말

그러나 실에 있어서 소련은 약소 민족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압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소련이 약소 민족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이 지배하고 있는 약소 민족을 적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시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뿐이었다. 연해주에서의 우리 한인 독립 운동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도 이 사실은 잘 드러난다. 신생 소비에트 정부가 내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인들을 그들 편에 가담시키려는 목표하에 한인에 대한 지원이 약속되었으며, 이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그때까지 적이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을 때 소비에트 정부는 그때까지 동지 관계였던 한인 무장대를 무장 해제하게 하고,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소련은 한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인의 존재 자체를 꺼려하여 그 동안 공산 정권에 협력하였던 인사들조차 1937년 전후에는 모두 숙청하고, 한인들을 그들의 연고지인 연해주로부터 화물 열차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추방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인들이 소련의 공산 정권하에서 얼마나 심각한 탄압을 받았는지를 명백히 보여 주는 사진들이며, 한·러 관계가 회복된 금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쉽게 넘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연해주의 독립 운동의 역사는 기타 다른 지역의 독립 운동사가 보여 주는 고통과 인내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인들이 가진 꿈과 한인들이 당한 배신의 역사까지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 운동

신재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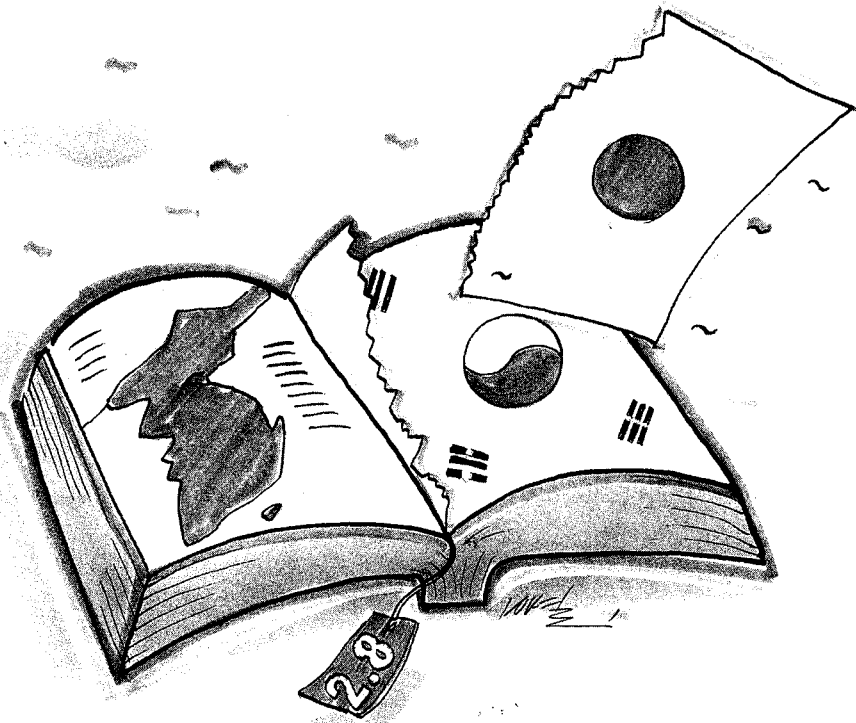


그림: 윤종필

일제에 강탈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애국 지사들이 국내 외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끈질기게 싸웠다. 특히,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타국에서의 활동은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광복까지 계속된 우리의 독립 운동은 높이 평가해야 하며, 조국 광복은 바로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해 쟁취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주권이 강탈당하자 국내에서 일제 침략에 대항하여 싸워 오던 민족 지도자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 본토에서도 국치(國恥) 이후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독립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이

들은 한·중 유대 강화가 무엇보다 선결 문제라 생각하여 손문(孫文), 송교인(宋教仁) 등 중국혁명당을 지지하며, 중국 혁명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자 중국 상해에 모인 지도자들은 신한청년당(新韓靑年堂)을 결성하여 국내·국외의 지도자들과 연락하며,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3·1운동이 발발하자 그 즉시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서울에서 발발한 3·1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으며, 그 불길은 다시 국외로 확산되어 한국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3·1독립 선언서에 표현된 자주 독립 정신에 따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던 지도자간의 연락 두절로 여러 곳에서 정부가 수립되는 기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국내에서 13인 대표들이 모여 한성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노령 연해주에서는 대한민국 민회 정부가,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민족 지도자들은 3곳에 수립된 정부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의한 결과 국내에서 각도 대표들에 의하여 수립된 한성 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기로 하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조하여 통합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령의 국민회정부는 해체하기로 하였다.

1919년 9월5일 이승만(李承晩)을 대통령으로 하는 통합 정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비록 국가가 아닌 중국 상해에서 탄생된 정부였으나 이는 일제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주권의 회복이며, 3·1운동에서 결집된 전체 국민의 합의와 국민적 열망 속에 세워진 정부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주 정체에서 3권 분립의 민주 공화정을 채택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 정부였다는 데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19년에 수립된 이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0년간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한국 독립 운동을 총괄하는 최고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맥락을 이어 갔다.

임시정부는 군사·외교·교육·재정·사법·통일의 여섯 가지 독립 운동 방략을 세워 놓고, 군사외교는 독립 운동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4가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나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이 실현성 없는 외교에만 치우쳤고, 무장 항쟁은 외면하였다 하여 정부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정부의 역할을 잘못 인식한 것이며, 또 당시 임시정부가 처한 대내외적 사정을 고려치 않은 데에서 나온 것이다.

임정이 중국이라는 타국에 위치한 까닭에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 당시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세계 정세 아래 고립무원의 입장에서 규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였다는 점, 또 인적 자원이나 물질 자원이 극도로 결핍한 상황에서 정부 활동이 계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임정의 역할을 과소 평가해야 하겠는가를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한번도 중단됨이 없이 끈질기게 독립 운동을 지도, 육성하였던 정부 활동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1. 군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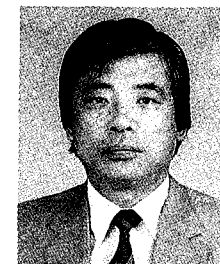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 군사 활동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군사 활동을 전개코자 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치 못한 한계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장 일본을 상대로 독립 전쟁을 전개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개될 독립 전쟁을 준비하는 데 군사 활동의 목표를 두었다.

당시 임정의 지도자들은 세계 제패의 야욕으로 가득찬 일본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전쟁 발발이 바로 우리의 독립 전쟁 개시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본격적인 독립 전쟁에 대비하여 1920년 1월 전국민이 독립군에 입대할 것을 선포한 국민 개병제(國民皆兵制)의 실시를 선언하는 한편,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지휘할 장교 양성을 시작하였다. 또한, 노령과 만주에서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 부대의 총합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5월 정부는 내무부 직할 교민 통치 기관으로 광복군참리부(光復軍參理部)를 만주 관전현 안자구(寬甸縣安子溝)에 설치하였다. 재만 독립군을 통합하여 단일 군단으로 편성된 광복군 사령부는 만주 6개 지방에 군영(軍營)을 설치하였는바, 6개 군영의 총병력이 3천 780여 명에 이르렀다. 이 부대는 군사의 모집, 군자금의 모금, 무기 구입에 노력하는 한편, 일본군과 국내외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 부대는 오래지 않아 일본군의 만주 출병으로 해체, 분산되었으나 1923년 새로운 군단으로 다시 재편되었다. 이 재편 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이다. 이 부대는 1928년 해체되기까지 만주와 국내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신재홍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 건국대 대학원, 경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 숙명여대·건국대·경희대·상명여대·성신여대 등의 강사를 거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으로서 있다. 저서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공훈사), (독립군 전투사) 외 다수가 있다.

정부의 본격적인 군사 활동은 당초 정부가 독립 전쟁 개시의 날로 잡았던 중일 전쟁 발발 이후였다. 1937년 중일 전쟁이 개전되자 정부는 모든 조직을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무장 항전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무엇보다 정부군의 창군을 목표로 세우고, 각지에서 병력을 초모하여 훈련을 시키는 한편, 임시정부 정규군의 창군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긴 끝에 1940년 정부군으로서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이 창군되었으며, 그 즉시 중일 전쟁에 참전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1941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정식으로 일본에 선전 포고를 단행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세계 대전에 참전할 뜻을 밝혔다.

이후 한국광복군은 중국 전선에서도 중국군과, 인도·버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5년에는 미국의 한반도 상륙 작전 계획에 동참하여 우리 한국광복군이 상륙 작전에 대비한 특수 유격 훈련을 미국군과 합작하여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실현되지 못하여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다.

중일 전쟁 이후 임정의 한국광복군이 연합군과 공동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임정과 계열을 달리하는 무장군이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다. 이 부대는 김원봉(金元鳳)이 주도하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로서 1938년 10월에 편성되어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는 분열되어 김원봉 계열은 1942년 5월 한국광복군 제1지로 편입하였고, 이때 통합을 반대한 김두봉(金斗奉)계열은 연안(延安)으로 이동하여 동년 7월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의용군은 주로 화북(華北), 만주(滿洲) 등지에서 중국공산당의 후원을 받아 항전을 계속하였다.

2. 외교 활동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국제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개최되고 있었으며, 또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당면 외교 활동의 목표를 강화 회의와 국제연맹에 두고, 파리에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고,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으로 하여금 국제 외교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김규식의 외교 활동은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강화 회의와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는 한국 대표의 참석이 거부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파리위원부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은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어 영국과 프랑스에 한국 독립 후원 단체인 한국친우회(韓國親友會)가 결성되었으며, 영일 동맹의 맹주인 영국의 국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여러 번 논의되고, 일제의 한국 침략의 불법성이 성토되기도 하였다.

그 후에는 정부의 대구미 외교(對歐美外交) 사무를 워싱턴에 설립된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가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이승만(李承晩)이 주도하여 나갔다.

192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태평양 회의가 역시 한국 독립 문제를 외면하게 되자 정부는 외교 활동 목표를 ‘열강의 한국 독립 보장’에서 ‘열강의 한국 독립 지지’로, ‘급진 외교’에서 ‘점진 외교’로 그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는 당시 일본의 국제적 지위와 일본의 군사력이 매우 높아 독립 운동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단기 외교에서 장기 외교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920년대 이후 정부의 외교 활동은 주로 대미 외교에 치중되었고,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활발한 민간 외교 활동의 결과로 한국친우회가 19개 지방에 결성되었고, 미국의 여론을 친한적 경향으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결과 미국 상·하원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여러 차례 상정되어 결렬한 논의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37년 중일 전쟁과의 1939년 구주 전쟁 개전은 임시정부 외교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는 세계 열강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응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예견되었고, 이것은 바로 한국 독립의 성취와 직결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임시정부는 1939년 외교 활동 목표를 ‘정부의 승인 획득’과 ‘한국 독립 운동의 선전’에다 두고, 대미 외교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워싱턴에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를 설치하여 이승만을 정부의 공식 대표로 임명하고, 대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서영해(徐嶺海)를 주파리 외교 특파원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외교 방향을 참전 외교(參戰外交)로 정하고, 중국 정부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승인과 한국광복군의 창설 승인을 적극적으로 교섭하게 되었다.

광복군의 창군 문제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1940년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서 편성, 완료되었고, 정부 승인 문제는 1941년 중국 참정회(參政會)의 통과를 보아 실현될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중국 정부가 미·영·소 등 열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연시킴으로써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개전되자 임시정부도 그 이튿날인 9일 일본에

대하여 정식으로 선전 포고를 단행함과 아울러 한국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케 한다는 뜻을 미·영·중·소 4개국 정부에 통고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중국 전선에서는 미·중 양군과, 인도·버마(미얀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한인 청년을 미국군에 입대하여 참전케 하였고, 또 미 육군전략회의 요청에 의하여 1백 명의 재미 한인 청년을 선발하여 유격 훈련을 받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미 한인 무장군의 편성을 계획하여 미 당국과 교섭, ‘캘리포니아 민병대’의 한국인부대인 국방경위대(일명 맹호군)을 창설하였다.

당시 임정의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대한 정책은 조금도 한국측에 유리하게 전환되지 못하였다. 열강들간의 상호 이해 관계와 한국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임시정부의 승인 요구가 묵살되어 버렸으며, 엄연히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웠던 한국광복군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을 못 받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난관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대미 외교에서 몇 가지 성과를 올린 것이 있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재미 한국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적국인 대우를 하며, 재산 동결, 행동 제한 등 많은 제약이 가해졌는데, 이에 대하여 임시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였다. 즉 한국인을 일본인과 분리하여 연합국 국민으로서 대우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매년 6월 14일 국기일에 미국 48개주 주청사 앞에 연합국 국기가 그 나라 국가가 연주되는 속에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곤 했는데, 임시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1942년부터는 태극기도 애국가가 연주되는 속에 연합국 국기와 같이 게양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미국 정부가 연합국 국기를 넣은 기념 우표를 발행했는데 당초 한국이 빠져 있던 것을 미국 정부에 교섭하여 태극기가 그려진 기념 우표도 발매하게 되었다.

의열 투쟁(義烈鬪爭)

3·1운동으로 우리의 독립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수많은 애국 의사, 열사들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몸을 조국 독립 제단에 바쳤다.

중국 본토에서는 주로 김원봉(金元鳳)이 조직한 의열단(義烈團)과 김구(金九)가 결성한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의하여 의열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두 단체도 집단적 행동보다 개인적인 항일 테러 활동을

통하여 일제를 응징하였다.

1920년대 의열단이 국내에 단원을 파견하여 전개된 투쟁은 곽재기(郭在驥)의 밀양경찰서 투탄 의거, 박재혁(朴在赫)의 부산경찰서 폭파 의거, 김익상(金益相)의 조선총독부 투탄 의거, 김지섭의 일본 황궁 투탄 의거,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투탄 의거 등이 대표적 거사이며, 중국에서 직접 행한 의거로는 김익상이 상해 황포탄 부두에서 하선하는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田中義一]를 저격한 사건이 있었다.

김구의 한인애국단에 의하여 전개된 거사로는 1932년 1월 이봉창(李奉昌)의 일본 천황 폭살 미수 사건, 4월 윤봉길(尹奉吉)의 상해 홍구공원 투탄 의거, 5월 최홍식(崔興植)의 일본 관동군사령관 폭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이런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의거를 거행한 사람은 중국 대만에서 일본 천황의 동생이며, 육군대장인 구니노미야[久爾宮 邦正王]을 저격 살해한 조명하(趙明河)가 있다.

또, 무정부주의 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 소속 백정기(白正基), 이강훈(李康勳) 등이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저격 미수 사건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26년 강창제, 나창헌 등이 병인의용대를 결성하여 두 차례 일본 상해총영사관을 습격 투탄한 의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의열 활동은 소수의 정예 요원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함으로써 국내외에 한국민의 의기를 드높였으며, 한국 독립 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준 해거였다.

맺음말

일제에게 강당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많은 애국 지사가 국내 국외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끈질기게 싸웠던 우리 독립 운동은 청사에 길이 빛날 위업이었다. 특히,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타국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머리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독립 운동에도 크나큰 한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광복까지 계속된 우리의 독립 운동은 높이 평가해야 하며, 1945년 조국 광복을 바로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하여 쟁취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버려진 휴지, 핏초를 치우는 데
연간 2천억원이 듭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광복 운동과 반응

— 특히 3·1 겨레 싸움을 중심으로 —

손보기

미국에 있어서의 항일 광복 운동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꾸준히 해 온 일이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일인들이 미국 내에서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되면서 한인들의 지위도 올라가고, 전승 기념 기금을 거두어서 바치고, 적십자 활동, 미 우정성에서 전후에 세워질 한국의 기념 우표를 내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미국에 있어서의 광복 운동은 이민 초기에는 거의 겨를이 없었고, 1905년의 외교권 박탈을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때로부터 비롯하였다. 그러나 그 때 한인들의 조직이나 힘은 매우 약한 편으로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 뒤 일본이 한국을 강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고, 일본 영사관의 간섭이 미치게 되자 한인들이 미국에서 교섭 단체를 만들고, 일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항의를 하고 한국인의 자치 단체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먼저 생활 안전을 위한 노력을 앞세워야 했으나 그 사이에도 학교, 교회, 친목 단체를 여러 곳에 세웠고, 항일 운동에 힘써 왔다. 3.1 겨레 싸움에 있어서 큰 힘을 나타냈고, 미국 의회에서까지 한국의 광복 운동에 대한 토의를 일게 하였다.

태평양 전쟁으로 일인들이 미국 내에서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되면서 한인들의 지위도 올라가고, 전승 기념 기금을 거두어서 바치고, 적십자 활동, 미 우정성에서 전후에 세워질 한국의 기념 우표를 내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미국에 있어서의 항일 광복 운동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꾸준히 해 온 일이었다. 다만, 국민회와 동지회의 갈림으로 그 결과가 일본의 패전 후 정부 수립 뒤까지 이어진 것과 반민 특위 등의 조치에서도 잘못이 저질러진 것이 아쉬운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었던 3.1 겨레 싸움 때의 광복 운동을 아래에 적어 본다.

1. 싸움의 전파

3.1 싸움의 배경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안겨

준 것은 미국의 참전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지어졌던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1905년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고, 더욱이 윌슨 미국 대통령의 전후 평화 14개 조항의 메아리는 한국민에게 크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1910년부터 일본의 무단 정치가 항일 무력 투쟁에 대한 잔인 무도한 탄압 수단으로 나타나고, 경제 수탈은 토지 약탈의 방법인 '토지 조사'로 나타나서 1918년 일단락지어지면서 한국인의 경제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었다. 고종이 일인의 음모에 의하여 독살되었다는 의혹이 짙게 나도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던 때이므로 일제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독립 국가의 회복이 눈앞에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고, 온 겨레의 모든 계층, 종교, 직업의 구별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1917년 10월 29일부터 31일 사이에 뉴욕에서 열렸던 약소국동맹회의에는 박용만이 참석하여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였다.¹⁾ 제1차 대전 직후 1918년 1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 회의를 열게 되었을 때 미국, 하와이, 멕시코 각지의 한인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광복 운동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 1918년 12월 1일에 소집된 대표 회의에서 파리 평화 회의에서 대표단을 보낼 것을 의결하고,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등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미국 정부에서 여권을 얻지 못하여 못 가게 되었다.²⁾ 그러나 일본에서는 12월 1일자 Japan Advertiser 신문에 이 사실이 실렸고,³⁾ 이어서 12월 15일자 도쿄 아사히신문에는 "미국 상황에 사는 한인들이 광복 운동 자금으로 30만원(달러)을 모금하였다."⁴⁾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의 유학생들은 광복 운동을 구체화하는 행동안을 찾게 됐다.

일본에서 1918년 11월 10일 도쿄 우시킴피 청풍정에서 웅변회를 열었고, 12월 29일에는 명치 회관에서, 12월 30일에는 도쿄 한국 YMCA 회관에서 민족 자결에 의한 독립론이 주로 논의되게 되었다. 2월 1일에는 상해에서 김규식이 파리의 강화 회의에 갔고, 3월 13일 도착한 그에게 미주의 대한민국

민회 중앙총회는 위임장과 경비 3천500달러를 보내서 한국대사관을 열게 하였다. 이윽고 1919년 2월 8일에는 '2·8독립선언'을 선포하였고, 결의문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온 겨레의 대표 33인 이름으로 독립 선언이 선포되었다.

3.1싸움과 미국이라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논하여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①3.1싸움을 계기로 1905년 이후 미국의 대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미국의 의회, 특히 상원에서 논의된 점, ②그 배경을 알게 하는 데 미국과 하와이에 살고 있던 동포들의 노력이 컸던 점, ③이에 못지않게 한국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의 동정과 노력이 있던 점이다.

더욱이 개인으로는 험버트(Homer B. Hulbert), 스코필드(Scorfield) 등의 노력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럽 쪽에 먼저 쏠렸다. 윌슨(W. Wilson) 대통령의 약소 민족 개념 속에 한국이 들어 있지는 않았고, 한국에 대한 전후 처리도 그의 생각 밖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가늠어 보아야 할 것은 그다지 큰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이고, 윌슨 대통령 자신은 그가 구상했던 국제연맹안(League of nations)의 비준 통과 문제에 더 골치를 앓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상원에서의 한국의 3.1싸움에 대한 논의도 미국의 국제연맹안에 결들여 나오게 된 데 불과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3.1싸움은 미국의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의 유명자인 뉴욕타임스에 실린 것이 3월 20일이었고, 같은 날 허스트(Hearst)계 신문들도 보도하면서 일본을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아울러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한국친구회(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의 모임⁵⁾과 한인 자유 대회를 연 것은 미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한국을 심는 데 커다란 구실을 하였다. 미국 연합통신(U.P.) 등을 통해서 한국의 소식이 미국에 보도된 것만도 290회⁶⁾에 이르렀다.

그 뒤 1919년 3월부터 1920년 12월 15일 사이에 한국에 관한 기사는 9천 차례나 있었는데, 일본을 유리하게 쓴 기사⁷⁾는 50가지 가량이었던 것을 보면 미국 여론이 만주까지 뻗어 가며 약탈해치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미국 내의 일본인 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취업을 위협하는 것도 아울러 작용했던 것이다.⁸⁾

서재필은 미국의 유력한 기업가,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들을 초청하여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인 자유 대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열어 국내의 3.1운동의 진상과 일제의 탄압, 학살, 처형들을 보고하고, 미국 정부와 국제연맹에 대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기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그곳의 미국 독립관에서 독립 행진을 하였다.⁹⁾ 미국의 한국친구회는 동정자가 늘어 17개 지부를 두게 되기도 하였다.¹⁰⁾

2. 미국 의회에서의 토의

미국 의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는 상원 의원들의 중심 의제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이 1882년의 한미수호조약을 맺은 뒤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반성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919년 6월 30일에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출신 상원 의원 스펜서(Spencer)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1882년의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조문을 이행할 필요 여부를 외교 상임 위원회에서 묻자고 제안하였다.¹¹⁾ 1919년 7월 15일에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 문제를 다루고 있던 상원 회의에서 포인덱스터(POINDEXTER)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한국 문제를 들고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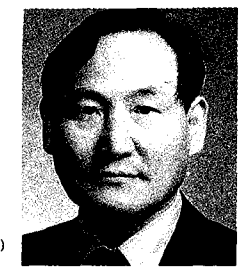
국제연맹 헌장은 세계의 평화, 무장 해제, 인류의 멸망 방지 등을 내걸고 있지만, 국제연맹의 헌장과는 반대로 실망을 주는 한 예로 잔인과 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윌슨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아 와서 한국민을 자유롭게 하여 주리라고 한국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들었다. 그 결과로 절망 속에 항거가 일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 그러면서 국제연맹은 그 동안에도 바쁘게 일본과 맹약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3천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의 지배하에 넘겨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같이 국제연맹안의 비준에서 윌슨 대통령에 대한 공박에 결들여 그 헌장의 무의미함을 지적하고 나왔다.

네브라스카 출신 노리스(Norris)의원도 국제연맹이 중국의 일부를 일본에 넘겨 주게 하였는데 중국은 일본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였다.¹²⁾ 그 까닭은

"일본이 바로 이 시간에 힘으로 한국의 문화 역사의 모든 전통을 없애 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음을 중국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은 일본의 군인과 관리들이 죄가 없는(만일 죄가 있다면 단지 한 가지, 곧 자기



손보기
서울대 문리대 및 동 대학 대학원을 나와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음. 서울대·연세대 교수, 버클리대 초빙 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단국대 초빙 교수, 단국대 한국민족학연구소장, 한국선사문화연구소장으로 있다. 저서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한국 구석기학 연구의 길잡이>의 다수가 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일뿐인) 한국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의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관료는 내쫓기고, 한국 정부는 위에서 맨 아래까지 일본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본 만행을 더 이야기하였다.

- ① 한국 사람의 개인 집에서 책을 뒤져내서 불태우고,
 - ② 그 까닭은 사라나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울 기회를 없애고,
 - ③ 한국말은 일본말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 ④ 한국 안에 한국 학교라고는 하나도 두지 못하게 하고,
 - ⑤ 중국에 있어서의 독일의 지배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배는 비교가 안 된다.
- 노리스 의원은 발언권을¹⁴⁾ 얻어 다음과 더 말했다.

“내 손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오. 이 사진은 한국의 한 시민이 죽은 것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백(S.A. Beck) 씨가 준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20년 동안이나 선교사로서 한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in Korea)의 일을 보아 왔다. 그는 바로 지난 달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사진을 코닥 사진기로 찍은 사람의 바로 옆에서 있었다고 한다. 이 불쌍한 한국 사람은 한쪽 귀를 잘랐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어져 있다. 그의 몸에는 일본 군병이나 관리가 잔학하게 저지른 28군데의 상처가 나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목이 그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는 무기도 갖지 않았고, 죄가 없으며 불법을 저지르려고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예국심에 넘쳐 ‘한국 만세’라고 크게 부르짖은 죄밖에 없다. 이 까닭만으로 그는 짓밟히고 잘리우고 처벌되었으며,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 이 일은 한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보기의 단 하나일 뿐이다.

본인은 한국의 사정에 대한 미국 장로 교회의 보고서가 뉴욕타임스 7월 13일자에 실린 것을 여기 들고 있다. 본인은 이 전체 보고서를 이 자리에 읽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미국 시민 전원이, 특히 상원 의원의 모두가 읽어 주기를 바란다. 상원 의원들은 중국을 일본 사람에게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 나라의 교회인들 모두가 선교사의 공식 보고서를 읽어 주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의 처음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들의 보고들은 몹시 증오스럽고, 이를 읽는 사람의 피는 들끓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사실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거의 넣지 않았다. 사실을 사실대로 적어서 그 나름대로의 뜻을 전하려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매우 길고,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이 끼칠 일이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고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쓰여지는 대상에 대해서도 -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만 남녀 가릴 것 없이 용감하게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더욱이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내쫓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 내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손을 묶어서 매달고 마디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들은 별장계 달군 쇠로 살을 지진다. 그들은 가지 각색의 고문 방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가 이 불행한 희생자들로부터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억지 자백을 끄집어 내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목적이 달성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백씨는 감리교 목사로 그는 다음과 같은 수백 명의 한국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말탄 일본 관리들에게 짓밟히고, 일본 경찰에게 곤봉질 당하고 군병에게 얻어 맞아 인사 불성이 되고, 창칼로 찢리고 칼로 베어졌는데 그 까닭은 죄없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의 조국을 사랑한다는 까닭이라 한다. 그들은 무기도 안 가졌고, 해치려 하지도 않았으며, 죄가 있다든지, 언동에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년 동안 한국에 있던 이 분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의 두 눈으로 보았음을 말하였다. 조금만 더 계속한다면 이같이 잡아 가둔 사람들에게서 일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종류의 억지 증거를 끌어 내곤 한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간을 고문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원하는 대로의 증언을 끌어 낼 수 있고, 또 끌어 낼 때까지는 고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때 맥코믹 의원이 이 보고를 기록에 남길 생각인가 하고 묻자 그러기로 동의하여 의회 속기록에 실기로 하였다.

노리스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3.1싸움에 대한 일본인들의 잔학한 행동을 말해 나갔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 아래와 같다.

- ① 달군 쇠로 수없이 저지른 사람이 기적으로 살아서 병원에서 33일 동안 입원하고 있는 다리에 15cm가량의 자국이 4곳이나 남아 있다.
- ② 모든 경찰관 주재소에는 수십·수백 명이 갇혀 있고, 가장 심한 짐승 같은 고문이 빚어지므로 사람들은 왜인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
- ③ 대나무로 90대를 때리고 내쫓는 데 하루에 다 때리면 맞은 사람이 견뎌 낼 수 없기에 30대씩을 3일간에 걸쳐 나누어 때리고,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되어 대부분이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

④ 3.1운동에 가담한 부녀자에 대한 고문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치욕을 주는 일이다. 일본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 앞에서 벌거벗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나 중국인은 유럽 사람들과 같이 남이 보면 큰 수치로 여기는데, 심문을 할 때면 옷을 발가벗겨서 일본인 헌병들이 있는 방에서 심문을 하며, 법정에서도 옷을 벗긴 채로 걷게 한다. 그 중에서 손으로 가리려는 부인은 두 손을 뒤로 묶어 걷게 하였다. 이같이 하여 한 기독교 여성은 팔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⑤ 서울의 근교인 교회에 기독교도들을 몰아넣고 불질러 이 교회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타 죽게 하였다(수원 제암리).

⑥ 4월 18일 헌병대가 경주에 새로 지은 교회에 당도하였는데 모든 가구와 명석들을 모아서 불지르고, 다음날도 태울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모아서 불살랐다. 다음날은 불을 끄고, 기독교 신자를 다른 곳으로 쫓고 다시 불을 질렀다.

이 보고서 전문을 의회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여 기록하게 되었다.

3. 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의 활동

뉴욕타임스지 7월 13일자의 보도는 다음과 같았다.¹⁵⁾

“한국에서의 공포는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 살인과 고문에 대한 장로 교회의 공식 보고: 기독교 마을을 불사름. 조사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0인이 교회에서 살해되었다.”

이러한 보고는 일본의 검열을 피해서 겨우 전해져 쓰였는데 이 보고서는 수천의 낱말로 되어 있어 다 실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목사의 보고서가 있다.

이것은 수원과 오산 사이에 있는 제암리에서의 일로 4월 16일 그곳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이 마을이 불살라진 까닭이 기독교 신자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더우드가 이 마을 이르자 78연대의 군인들이 주재소 밖에 있었다. 언더우드는 40호 가량의 마을에서 화요일인데도 기독교 신자를 교회에 모이게 하고, 남자만 가둬 놓고 불지르고 창칼로 찢고, 긴 칼로 베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을 모조리 불질렀다는 꼭 같은 내용을 기독교도가 아닌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서 되풀이 들었던 것이었다. 이같이 교회와 사람을 불사른 것은 한 마을만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도 15마을쯤 있었다.

또, 평북 정주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의 내분으로 교인이 불지른 것을 보도하고, 여자 교인들을 불

러서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고 한다.

1919년 7월 10일자로 일본의 하라(原) 수상이 미국 의회에 보낸 전보가 7월 17일에 전달되었다. 때는 미국 내의 기독교연합회의 동양관계위원회(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of the feder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ian in America)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잔악한 행위’라는 소책자를 인쇄에 부치려고 할 즈음이었다. 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권리 남용을 하는 것을 본인은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 체제는 약 10년 전에 비롯되었는데, 변화하는 사정에 따라 그 본질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상의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이미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 한반도 여러 곳에서 불행하게도 일어나고 있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 시행하게 될 것이다. 실시 절차에 따른 시행은 쉬이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 동포들의 장구한 행복을 향상시키려는 본인의 노력이 오해되어서는 아니될 줄로 안다.¹⁶⁾

이러한 전문은 미국기독교교회연합회에서 보낸 전보에 대한 답이었는데 순량한 미국기독교회는 이에도 희망을 걸어 본 것도 같았다.

‘한국에 있어서의 잔악한 행위’라는 소책자는 3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일본-한국의 전후 정세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3월 초에 상해와 천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신 통보가 들어 왔다.

한국에서 놀랄 만한 독립 운동이 전개되어 있고, 일본 정부는 지독한 야만 탄압을 한다는 것이었다. 4월에 들어서는 전신으로 들어 온 3월의 소식들을 확인하는 편지와 보고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 보고들은 일본의 엄격한 검열을 피하면서 여러 곳에서 간접으로 보내졌고, 주소는 교회 선교부로 되어 있다.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의 친구, 친척에게 보낸 것을 그들이 교회 선교부로 다시 보낸 사본도 많았다.

이들 소식이나 편지들의 내용은 미국의 행동이 일본 사람들이 야만 무도한 탄압에서 한국인을 구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¹⁷⁾ 4월 중순에 한국에서 사태를 몸소 겪고 미국에 온 맨 처음의 사람은 암스트롱(A.E. Armstrong) 목사였다. 그는 캐나다 장로 교회 선교부 서기였는데 10개월 동안 중국,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지냈고, 그가 요꼬하마를 떠나려 할 때 ‘한국을 다시 찾아 보라’는 전보를 받은 것이었다. 그는 3월 16일 서울에 도착해서 여러 관계 사람들과 만나서 완전하고 정확한 소식을 적기 위해서 3일 동안 머물렀다.

뉴욕에 도착하자 그는 바로 미국 장로교 선교부 서기 브라운

(Arther J. Brown) 박사, 미국 감리교 복음 교회 선교부 서기 프랭크 매슨 노드(North) 박사, 미국 성서회 서기 헤이븐(William I. Haven) 박사들과 만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교 부보다 미국 기독교교회연합회의에서 한국 사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결론지었고, 4월 16일에는 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10여 차례의 회의가 열렸고, 이 문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방도를 찾자고 합의하였다. 뉴욕에 있는 유력한 일본인들을 불렀고, 일본의 친구들은 긴급하고 긴 전보들을 일본으로 보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에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일간 신문에 주지 않고 시행되었다(동양 선교부의 생각은 인도주의에 의해서 해결해 보자는 가벼운 이상주의에서 나온 것 같다).

이 위원회는 그 동안 만들어진 정확한 보고를 공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쇄된 다음의 문서는 이 위원회가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한국에 있는 30명 이상의 미국, 영국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참여한 것이다. 이들 문서는 이 위원회가 정성껏 만든 것으로 그 중에는 개인들의 서한도 있고, 일부는 실제 목격한 사실에 대해 서명한 자술서도 들어 있다. 만일 모아진 모든 자료를 모두 인쇄한다면 1천 쪽이 넘는 책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³⁸⁾

첫째는 한국 사람을 인도에 어긋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둘째는 미국의 여론의 건전하고 지성 있는 판단을 하게 하고, 이러한 여론이 일본의 진보성 있는 반군국주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정의를 확보하여 한국에 있어서 공평한 처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 독립 운동에 관계되는 정치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에 독립을 주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수성, 고문, 무도한 탄압, 종교 박해, 살인 등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끝장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고, 이 같은 행위가 한국에서 넓게 날뛰고 있다는 것이 틀림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길 바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여론이 필요하고,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 군국주의의 정신과 실천의 결과로 일어나는 세계의 파멸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것 같이 일본에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진보

반군국주의의 정신과 실천의 결과로 일어나는 세계의 파멸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것 같이 일본에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진보 반군국주의의 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내각수반은 평민으로서의 처음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고, 그 자신이 자유주의자일지라도 군국주의 정책과 그 사람들의 후계자인 것이다...”³⁹⁾

이러한 위원회의 앞글은 교회 인사들이 일본의 하라 수상에 기대를 걸었던 흔적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에의 정면 비난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의 타도를 내세우고 일본에서의 자유주의의 발전을 기대한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일제의 잔학상 폭로

이 보고서는 34가지의 폭로 사실을 들고 있으며, 1919년 3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일들이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한·일 사태’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비인도 탄압이 날로 저질러지고 있으며, 6천 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있다. 같은 권위의 상경으로 군인, 헌병, 경찰만이 아니라 일반 관리도 칼을 차고 다닌다.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는 없고, 체포에 대한 탄원 제도도 없다. 고문이 멋대로 이루어지고 일본인과의 소송에서 한국인이 이길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피의자들을 2주일 동안이나, 또는 주석에서 만들어 내는 죄목으로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다. 또 한국인은 무죄를 증명하기까지는 죄인이다.

이 보고서는 그 다음에 34항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일 사태라는 머리 부분에서 미국 기독교연합회의 해결 방안은 이상에서 맴돌고 만 것을 엿볼 수 있다. 윌리엄 헤이븐이 이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서명하고 있다. 폭로 내용은 1~34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1919년 3월 21일자, 한국에 있어서의 반항 운동이라는 폭로 1항목에서 가)~사)항까지 다루고 있다.(폭로 사실 약함)

5. 미국 의회에서의 반성

미국 상원에서 8월 18일에는 미주리 출신의 스펜서 의원의 동의로 고종황제의 고문이었던 헐버트의 성명서를 외교 위원회에 돌려서 속기록에 신기호 하였다.²⁰⁾ 9월 19일에도 스펜서 의원의 발의로 한국의 정세에 대한 돌프(Dolph) 고문의 성명서가 하원 속기록에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이 내용은 14면에 걸치는 것으로 일본의 죄과, 한국의 위치, 면적, 인구, 자원, 통상, 산업, 철도, 항해, 은행, 체신, 학교, 교회, 세금, 정치, 법정, 개인 자유, 한국과 외국과의 조약 등 배경을 들고 1905년 10월 고종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친서, 독립 운동, 일본의 포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일본은 전제 정치인 데 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 정치이며,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미국은 마땅히 한국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민이 바라는 것은 미국에게 무력 간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폭악한 통치를 버리고 한국민의 독립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¹⁾

이윽고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문서들을 중심으로 토의한 다음에 1919년 10월 1일에 펠란 의원의 제안으로 제200호 결의안이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미국 의회 상원은 한국민이 바라는 정부 수립을 위한 큰 뜻에 동정을 표함이다.”

미국 상원의 동정이 표시되었으나 미국 행정부에 끼치는 영향은 별로 큰 바 없었다. 국제연맹 헌장 비준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10월 9일에 프랑스(France)의원은 한국에 대한 정의 불이행을 들고 나섰다. 이에서 1882년의 한미수교조약의 조문의 불이행을 말하고, 알렌(Allen)주한 미공사도 1904년에 ‘한국 황제에게 미국 정부가 호의를 가지고 대일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힘 쓸 것’이라고 거짓으로나마 황제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²⁾ 이 당시에 물론 태프트-가쓰라[桂] 비밀 협약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²³⁾ 이 같은 것을 지적하고 나오게 된 것이었다.

노리스 의원은 속기록에 들어 있는 헐버트의 서신을 들고 1905년 11월 21일자 루트 국무가 헐버트에게서 고종의 국서(그 내용도 속기록에 들어 있다)를 받았다는 받음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백악관에서는 그러한 국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선언한 일을 들추어 냈다. 이것은 미국이 신의 없고 1905년 조약 등은 일본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²⁴⁾ 또 영국에 있던 한국 사람이 일본의 을사보호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집조(여권)로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 할 때 일본 여권을 요구한 미국 이민국의 처사를 공격하였다.²⁵⁾ 그는 기독교 정신 및 자유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미국이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²⁶⁾

10월 24일에는 미국 하원에서도 한국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일리노이주 출신 매슨(William E. Mason) 의원이 미국 하원의 동정표 시안을 제출하고(하원 제359호안) 외교위원회에 돌려기로 하였다.²⁷⁾ 민간 차원에서는 1920년 6월 24일에

스틸(Joseph M. Steele)이 발의하고, 톰킨(Floyd W. Tomkin) 박사가 사회를 본 필라델피아 시민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실질상 정부(de facto government)를 승인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 상원 속기록에 신게 되었다.²⁸⁾

다시 상원에서는 녹스(Philander C. Knox) 의원(테프트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다)이 뉴욕 해럴드지에 실린 사설을 들고 나와 미국 외교사에 있어서 미국이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 잠시 동안이나마 쉬우칠 시간을 갖자는 발언을 하였다. 1921년 12월 23일에는 8월 24일에 일부 위원단이 한국에 갔던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²⁹⁾ 1921년에는 메이슨 하원 의원이 제출한 ‘한국 동정안’도 외교 위원회에 넘겨졌다(하원 제의안 제35호)³¹⁾

이러한 의사 진행은 한국에 대한 의원들과 일부 민간인들의 재인식을 말하여 주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었다. 미국 신문, 잡지 등에 나타난 기사는 9천 쪽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82년의 한·미수교조약의 불이행, 기독교 정신, 자유, 민족 자결의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이 일본의 포악한 짓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데 대한 비난과 한국 독립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³²⁾

단지 한국 교포들의 활동과 그 노력은 미국의 의원들에 영향을 주고, 의원들은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 반대 수단으로 쓰기도 하였지만 한국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하였던 것은 미국의 극동 정책의 큰 테두리를 몰랐던 까닭이라고 하겠다. 199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양 근로자 대회에 참석한 여러 한국 대표 중 김규식은 그 참가한 이유를 미국인 기자 에반스(Evans)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³⁾

“우리가 미국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으나 이에 실망한 나머지 이곳에서나마 희망을 걸어 보려는 뜻에서 참석하였다.”

재미 한인들의 실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꾸준히 미국에 한국을 심으려고 힘썼다. 그 결과 1942년 5월 31일자 해럴드 트리본 신문에는 ‘잊어버린 기념일’이라는 글을 실어 1882년의 한미수호조약을 회상시키고, 미국의 오랜 빛을 갚을 때가 왔다고³⁴⁾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카이로 회담에 반영되는 데는 중국의 영향이 더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3·1운동의 메아리가 미국에까지 뻗치고, 한국 사람들의 광복 운동 가운데 미국에서 몽치된 한인 사회에서 자금으로 상해나 시베리아쪽에 도움을 준 것은 특기할 사실이다.(주 번호를 일일이 다루려 했으나 약함. 미국의회 속기록에 자세한 것이 나와 있음.) *

일본에서의 독립 운동

조항래

일본 유학생들의 2·8학생 독립 운동은 무엇보다도 당시 학생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애국 사상과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 정책에 민중적인 도전을 결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근대적 의미의 학생 애국 운동을 새로이 기원하게 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에 있어서 항일 독립 운동은 중국 본토, 중국 동북, 노령, 미주 등지의 그것처럼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항일 독립 운동사에서 2·8독립 선언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의 운동은 각별한 의의를 갖는다.

일본 제국주의(이하 일제라 약함)가 완전히 우리 나라를 병탄하기를 전후해서 재일 유학생들의 저항 정신과 애국 사상의 전통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2·8 학생 독립 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달라진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민족 독립의 이유를 발견하고, 독립 운동의 투쟁 상대국이 적지 일본의 서울인 도쿄[東京]와 그 밖에 도시에서 조국 독립을 위한 애국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독립 운동의 정신적·행동적 근원을 대동하도록 한 운동이다.

이러한 2·8학생 독립 운동의 규명은 3·1운동의 동인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항일 학생 독립 운동의 한국사적 의미와 일제하 항일 독립 운동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는 데 하나의 전제가 될 것이다.

본고는 2·8학생 독립 운동의 배경과 동기, 그 모색과 전개를 살펴보고, 2·8이후의 독립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8학생 독립 운동의 배경

1905년 11월에 일제가 능결한 을사조약에 의한 일본의 우리 나라에서의 통감부 통치의 시작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거니와 해외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의 입장으로서도 더욱 조국이 식민지로 강점되어 나가고 있다는 통분한 사태에 직면하고, 이에 대해 이들도 좌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도쿄를 비롯한 재일 유학생들의 항일 구국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도쿄 부립제일중학교에는 1904년에 파견된 황실 유학생 46명이 입학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약에 반대하여 동맹 휴교를 단행하여 최린(崔麟), 한상우(韓相愚), 유승근(柳承瑾), 지성운(池成允), 강원구(姜元求), 곽한탁(郭漢卓), 전우영(全宇榮) 등 강경파 학생들은 끝내 저항하다가 퇴학 처분을 당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최익현(崔益鉉)의 추도회를 올렸고, 반일 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몸이 된 안창호(安昌浩)가 도쿄에 들렀을 때 송별회를 열어 주는 등 반일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움직임은 대한유학생회(1906~1908), 대한학회(1908~1909), 대한홍학회(1909~1910) 등 유학생 단체가 개편되는 사이에 더욱 가열해졌다. 동맹 휴교 이후에도 유학생들은 민족적 목욕이 자행되고 있을 때마다 이에 저항, 시정토록하였다.

1907년 3월에 와세다[早稻田]대학 모의 국회 석상에서 이 대학 일인 학생이 “조선 왕을 일본의 황족으로 하자”는 가부토론을 제안하자 이에 격앙한 유학생들은 전원이 퇴학·원서를 대학당국에 제출하여 일대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해 11월에 도쿄의 한 국화 전시장에 도쿠가와[徳川象宣]라 써 붙인 국화로 만든 인형 앞다가 굴신 배례(屈身拜禮)하는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선 왕 내조(來朝)’라 써 붙인 표찰을 달아 놓았던 것이다. 이에 격분한 우리 유학생 200여 명이 이를 습격하여 인형 전부를 파괴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헤이그 밀사’에 관한 1907년 7월 16일자 ‘보지신문(報知新聞)’의 고종의 강제 양위 결정을 마치 한국민과 재일 유학생들이 주장한 것처럼 꾸민 허위 보도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이 허위 보도를 국내외, 일본 각 정당에 선언서를 작성·발표하였다.

이어 이들은 정미7조약이 능결됨을 보고, 일제의 침략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한국민의 항일 구국 운동을 고취하려고 한 것이다.

1909년 12월 4일에는 일진회가 이른바 합방 성명을 발표하여 반민족적 망동을 자행하자 유학생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유학생들은 대한홍학회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 일진회의 죄악을 성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선언서를 작성하여, 고원훈(高元勳), 이풍재(李豊載) 2명을 대표로 국내에 파견하였다.

이들 대표는 국내의 국민 대연설회에 참석하여 일진회 주장의 매국성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한편, 국민의 여론을 통한 이른바 합방 반대 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1910년에 강점을 하면서 ‘대한홍학보’는 6월에 정간 처분을 하고, 유학생들은 일경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항일 의식은 점차 성장되었고, 확고한 민족 의식은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이 무렵 유학생 운동의 중심이 되는 조직은 도쿄의 조선기독교청년회와 조선유학생학우회였다. 1906년 11월에 발족한 조선기독교청년회는 회관을 갖고 있어 각종 집회를 할 수 있었고, 1917년 11월에는 기관지 ‘기독교청년’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유학생학우회는 대한홍학회 이후 각도 단위의 친목 기관, 조선유학생친목회 등을 통합하여 안재홍(安在鴻), 최한기(崔漢基), 서경묵(徐慶默) 등이 1912년 10월에 발족한 것으로 우리 유학생은 의무로 가입하는 학회였다. 처음 도입하는 유학생은 본회의 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또는 회원과 교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를 지목하여 국적이라 칭하고, 일본의 개[犬]라고 매도하였다. 이들은 1914년 이래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을 무대로 격렬한 항일 독립론이 거론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었다.

2·8학생 독립 운동의 모색

1915년에서부터 1917년에 걸쳐 이들 청년회나 학우회는 신년회, 웅변 대회, 학술 연구회, 동창회, 망년회, 졸업생 환송회,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운동회 등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주 독립을 위한 민족 자결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 학생들은 유학생계에 선도적 구실을 한 것이고, 2·8학생 독립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형성하고 추진한 주역들이었다. 이들은 학문을 애국과 독립 운동으로 직결시키는, 적진 속에서 민족 독립의 지혜와 역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학생들의 항일 독립 의식의 성장 과정에서 자극과 충격을 준 것은 1918년 1월에 발표된 미국 윌슨(Wilson) 대통령의 민족 자결 14원칙과 세계 대후의 동유럽 여러 나라의 독립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장덕수(張德秀)는 상해에서, 여운홍(呂運弘), 지용은(池鎔殷)은 미국으로부터 도쿄에 잠입하여 중국과 미주의 움직임을 알려 주었고, 대동 단결 선언이나 대한 독립 선언서를 기초·작성한 바 있는 조소앙(趙素昂)은 상해로부터 잠입하여 유학생들의 궂기를 고취하는 데 적지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상해에 있던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 대표로서 김규식(金奎植)을 2월 1일에 출발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 운동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미주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는 ‘저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의 1918년 12월 15일자에 ‘한국인들 독립을 주장(Korean Agitate for Independence)’과 12월 18일자 ‘약소 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요구(Small Nations Ask to be Recognized)’라는 보도를 발견한 유학생들은 본격적인 독립 운동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학생들의 항일 독립 민족 의식을 실천 단계에 몰아 넣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자극된 유학생들은 처음 최원순(崔元淳), 정광호(鄭光好), 김안식(金安植), 김현준(金賢準) 등이 시국 문제를 서로 토론한바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사를 표시하여 파리 우리 대표들의 제소를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고 하여 “거족적인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유학생들이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12월 29일 메이지[明治]회관에서 개최된 조선유학생학우회 주최 망년회에서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독립론이 주제로 등장하여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며, 이어 30일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개최된 동서 연합 웅변회에서는 독립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가 거론되어 격렬한 토론을 전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독립을 위한 실행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증론에 따라 1919년 1월 6일 기독교 회관에서는 학우회 주최로 개최된 웅변회에서 윤창석(尹昌錫), 서춘(徐椿), 이종근(李琮根), 박정식(朴正植), 최근우(崔謹愚), 김



조항래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 경복산업대, 효성여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숙명여대 교수·도서관장, 항일민족운동사연구회장으로 있다. 저서에 〈한말 사회단체사 논고〉, 〈개항기 대일 관계사 연구〉의 다수가 있다.

상덕(金尙德) 등은 번갈아 일어나서 “오늘의 정세는 우리 조선 민족의 독립 운동에는 가장 적당한 시기며, 해외의 동포들도 이미 각각 실행 운동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인 운동을 개시하자.”고 역설하고, 실행 운동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여 임시 실행 위원으로 최팔용(崔八鏞), 서춘, 백관수(白寬洙), 이종근, 김상덕, 전영택(田榮澤), 김도연(金度演), 윤창석, 송계백(宋繼白), 최근우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실행 위원들은 운동의 방법으로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되, 이를 일본 정부 요로와 각국 대·공사, 귀·중 양원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이들 대표들은 일경의 미행과 같은 방법의 감시를 무릅쓰고, 독립 운동은 고립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내외의 독립 지사들과 연관성을 갖는 구체적인 투쟁 계획의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2·8학생 독립 운동의 전개

앞서 선정된 실행 위원 9명(10명 중 전영택은 병으로 사임)에 이광수, 김철수(金喆壽)를 추가하여 11명의 실행 위원이 비밀리에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기초 위원은 백관수, 김도연, 이광수를 선출하였으나 실제의 문안 작성에는 이광수가 주로 담당하였는데, 그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3일 사이에 끝내고, 그것을 다시 일문과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그것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 주재 각국 외교 사절에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문으로 된 것은 송계백이 감추어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유학생들의 독립 운동을 알리었다. 중앙학교 현상운(玄相允), 송진우(宋鎭宇), 그리고 최남선(崔南善), 최린 등이 이를 받아 보고 흥분하였다는 것이다.

송계백이 서울에 왔던 것은 독립 선언서 인쇄용 활자 구득과 도쿄에서와 같이 독립 운동을 일으킬 것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노식(鄭魯湜)을 만나 그의 전답을 판 돈을 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도쿄로 돌아갔다. 이광수도 김석황(金錫黃)으로부터 받은 돈을 선언문 인쇄비로 최팔용에게 3백원을 주었으며, 이 밖에 청산(靑山)학원생 9명과 여자 유학생 대표 김마리아가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유학생들의 독립 운동은 파리에 파견되는 우리 대표자의 사상적 뒷받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독립을 원한다는 적극적 결의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이광수를 상해로 보내게 된 이유는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 세력과의 접촉 및 유학생들의 독립 운동을 대외적 세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해에 건너간 이광수는 영역한 독립 선언문을 만국 전신국을 통해서 전문으로 파리에

체제 중이던 윌슨, 클레망소, 로이드 조오지 등 3거두에게 전 송하였는데, 그때 전보료만도 720원(800불)을 지불하였다.

그는 또한 도쿄에서의 2·8독립 선언과 보조를 맞추어 선언서와 거기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이튿날 노오드차이나 데일리뉴스(North Chian Daily News)의 평론란에 ‘청년 조선의 열망(Young Korea's Ambition)’이란 제목으로 2·8독립 운동의 내용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그 이튿날 ‘차이나 프레스(China Press)’에는 좀더 상세히 보도되었다. 유학생들의 독립 운동은 이렇게 하여 국제적인 보도 선상에 소개되었던 것이다.

이광수가 상해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동안 도쿄에서의 독립 운동은 진행되어 예정한 2월 8일이 되었다. 이들은 오전 10시경 독립 선언서 및 결의문과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를 각국 대·공사관, 일본의 각 대신, 귀·중 양원, 조선총독부 및 각 신문사, 잡지사와 여러 학자들에게 우송하였다.

그날 오후 2시에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유학생학우회 임시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약 4백 명의 남녀 학생이 참여하여 명목은 유학생 총회였으나 그 실상은 조선청년독립단대회가 되었다. 단상 배후에는 이미 선언서가 쓰여진 무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최팔용이 하였고, 독립 선언서는 백관수가, 그리고 김도연은 결의문을 각각 낭독하였다. 장내는 노호와 절규 속에 감격의 통곡이 계속되었다. 이 선언서는 먼저 서두에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다음에 한·일 양국 관계와 일제의 우리 나라 침략을 규탄하고, 끝으로 독립의 방략이 항일 무장 혈전에 의한 무조건적 완전 자주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식을 끝마치고 시가 행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일경이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 중에 한인 고등계 형사인 선우갑(鮮于甲)이라는 자는 장내에서 일일이 주모자 학생을 지시하면서 일경의 체포를 도와 주었다. 이들은 눈이 내리고, 찬 바람이 몰아치는 적도의 길위에 맨발로 개나 소처럼 끌려 가면서 망국 학생의 쓰라림 속에 치솟는 분노와 결의를 뼈아프게 다짐해 나갔던 것이다. 그 중에서 17명은 정식으로 검거되었고, 취조 결과 10명에게 재판에서 이른바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일제의 음모는 좌절되었으나, 이들은 끝내 출판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최팔용, 김도연, 서춘, 김철수, 송계백, 김상덕, 백관수, 윤창석, 이종근 등은 모두 실형을 받고, 이듬해 4월에 출옥되었으며, 그 밖에 학생들은 이튿날인 9일 경찰에서 석방되었다.

맺음말 - 2·8 이후의 독립 운동

2·8독립 선언은 그날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주동 학생들이



도쿄 유학생들의 2·8학생 운동은 국내외 3·1운동에 선도적 영향을 주었다. 사진은 법정으로 나가는 이봉창 의사(옆)와 도입 전 선서하는 이봉창 의사(아래)



구속되자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을 전폐하고 독립 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2월 12일 일본 제국 의회에 독립 청원을 하고, 후계 투쟁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히비야[日比谷]공원 음악실 부근에 1백 수십 명이 집회를 개최하여 이달(李達)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다시 켈기를 감행하려고 하다가 이달 이하 13명이 일경에 검거되었다. 2월 15일 유학생 감독부에서는 여기에 가담한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으며, 거기에 의지하여 기숙하고 있던 51명은 2월 17일 전부가 동맹 퇴사까지 하였다.

그리고 2월 23일 최승만(崔承萬), 최재우(崔在宇), 변희용(卞熙溶) 등은 조선청년독립단 민족대회 소집촉진부 취지서를 국문 3백 매와 일본 1백 매 두 종류로 등사하여 갖고, 이튿날 히비야 공원에 축진 대회를 열었다.

또한, 변치덕(邊致德), 한진희(韓鎭熙), 이재훈(李載勳) 등은 3월 10·11양일에 걸쳐 태극기 130매를 만들어 구속된 학생 대표자 최팔용 등 공판일에 시위하려다가 12일에 발각·압수당하였는가 하면, 정태성(鄭泰成)은 3월 16일 독립 운동에 관한 선동문을 만들어 고향 함남으로 우송하려다가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독립 운동은 도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3월 19일 오사카에서도 일어났다.

한편, 유학생들은 3월 9일 재도쿄조선청년독립단 동맹휴교 추진부의 명의로 애국심 있는 학생들은 동맹 휴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형제 자매를 도우라는 격문을 돌렸으므로 이에 호응해서 국내 운동에 참가하려고 귀국하는 학생수가 급증하였다. 2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귀국 총수 491명 중에서 359(73.11%)이 학생이었으며, 서울에 온 총수 323명 중에서 학생이 127명이었다. 이제 도쿄나 오사카에서의 독립 운동이 지나간 뒤에도 유학생들의 독립 운동에의 끝없는 집념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활동의 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실현되었다.

요컨대, 일본 유학생들의 2·8학생 독립 운동은 무엇보다도 당시 학생들의 조국의 독립을 위한 애국 사상과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 정책에 민족적인 도전을 결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의 학생들은 일인과 필요 이상으로 친밀하여도 조국을 배반한 개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2·8학생의 주역들은 대체로 그 뒤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생애를 바쳤고, 이러한 소지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근대적 의미의 학생 애국 운동을 새로이 기원하게 한 2·8운동에서 이미 마련되었던 것이다.

도쿄 유학생들은 2·8학생 운동을 통해서 국내의 3·1운동에 선도적 영향을 주게 되었으나, 순수한 애국심만으로는 조국의 광복을 기약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당시의 국제 정세하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가 관철될 수 없다는 점과 일제의 간악한 침략을 타도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차원에 의한 독립에의 모색을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 일부 졸업생 또는 재학생은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고, 도쿄 유학생들도 대열을 다시 정비하여 일면 연학(研學), 일면 항쟁(抗爭)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감시로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항일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였으나, 지사들은 이에 굽히지 않고, 공포 투쟁으로 맞서 일제에 대항하기를 계속하였다. 이제 그 현저한 몇 가지 예를 보면 국무원(國務院) 폭파 미수 사건, 서상한(徐相漢)의 의거, 박열(朴烈) 사건, 이중교(二重橋) 사건, 이봉창(李奉昌)의 일왕 저격 사건, 양근환(梁根煥)의 의거 등이 있었다. *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

— 상위 자격 취득 과정을 중심으로 —

이윤식

교원들이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승진이나 인사상 유리하도록 유인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교원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5-6년 주기로 60시간 이상 수준의 일반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이에는 주임교사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일반 연수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보다 일반 연수 성적의 비중을 높게 반영하며, 일반 연수의 성적은 3개의 평균을 반영함으로써, 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수에 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원 연수의 필요성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과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교원의 자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전의 대한교육연합회가 제정한 '사도 현장'에서는, 교원은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되며,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강령'에서는 교원은 자기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스승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또한 교재 연구와 교육 자료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수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 제74조에서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 교육에 전심 전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교원의 의무와 자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국제적

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1966년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는 세계 각국에서의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일련의 공통적인 기준과 척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선포하였다. 이 권고는 무엇보다도 교직을 전문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권고 전체에 걸쳐서 분명히 하고 있다.

권고의 기본 원칙으로 제6항에 "교직은 전문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Teaching Should be regarded as a profession)."고 하여, 교직이 전문직임을 못박고 있다. 동 항은 교직이 전문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그것은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적 업무의 하나"이며, 또한 교원들에 대하여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개인적 집단적인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44항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은 "엄밀한 전문직적 기준에 비추어, 새로운 직위에 대한 그 교원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여 전문직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교직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교육과 연찬이 필요하고, 엄격한 자격 기준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직 종사자들의 권익보다 학생들의 권익이 우선하는 사회 공공적 및 윤리적 책임이 수반되는 직종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교원은 전 교직 기간을 통하여 계속 교육 차원에서 그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다.

교원 자격 연수 제도의 개관

그러나 현행 교원 연수 제도에 대해서는 교직 전문성의 증대보다는 단지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과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교원 연수 제도의 여러 영역 중에서 자격 연수 과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관해 보고,

이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자격 연수의 연수 대상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급 정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 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으면 1호봉 승급의 혜택이 부여되며,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의 성적은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시 18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된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직 경력, 1년 이상의 주임교사 경력, 총경력 12~15년(4년제 대학 졸업 기준)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경력 평정점 90점, 근무 성적 평정점 80점, 연수 성적 평정점 30점(연구 실적 평정점 3점 포함)이 반영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그 중 연구 실적 평정점 3점을 제외한 순수한 연수 성적으로는, 일반 연수 성적이 9점, 자격 연수 성적이 18점 반영된다.

일반 연수는 동 등급 직위에서 평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평정 대상으로 하되, 둘 이상의 일반 연수를 이수했을 경우에는 그 중 성적이 우수한 것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자격 연수도 둘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순위에 따라 당해 승진 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하고, 관련 정도가 같은 자격 연수를 둘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는 그 중 성적이 우수한 것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

그리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승진 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 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한 후, 선 순위자 순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 고사에 의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지명한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특이한 변화는, 종래 연수 대상자의 1.5배수를 추천하여 필기 고사를 통해 선발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1989년부터는 일정한 경쟁 배수 없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 대상자 순위 명부상의 선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 고사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3년 이상 교감 경력(교육 전문직 경력 포함) 소지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 기준으로 총경력이 국민학교의 경우 16-22년 이상인 자, 중등 학교의 경우 16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시와 같이, 경력 평정점 90점, 근무 성적 평정점 80점, 연수 성적 평정점 30점(연구 실적 평정점 3점 포함)이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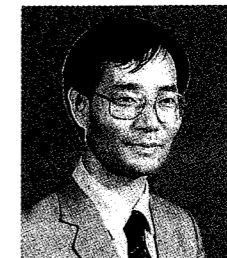
2. 자격 연수의 교육과정

자격 연수의 연수 과정별 교육 내용은 '교원 자격 연수 표준 교육과정'에 준해 설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에 새로운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발표하고, 6월 1일부터 각 시도 교원연수원에서 종래 사용해 오던 표준 교육과정(1987.5.15제정) 대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준 교육과정의 개정은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른 연수 교육과정 내용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 지방 교원연수원 설립 완성(1995년도) 단계에 따른 연수 과정 개발 보급의 필요성, 종래 연수 과정 보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즉 ①제 6차 교육과정 개정 정신을 구현하는 교원 연수 교육과정의 개정, ②과정간의 체계를 확립하여 내용상의 중복을 해소, ③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연수 과정으로 개편, ④연수자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 ⑤교원 자격 연수 표준 교육과정을 기본 모형으로 연수 기관에 제공하고,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 등이다.

개정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은 각급 학교의 중견 교사로서 교과 교육, 특별 활동, 학생 생활 지도, 담당하는 교과목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학급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미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윤식

서울대 사대,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교원 교육 및 교육행정학 전공으로 철학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교원교육연구부장으로 있다. 저서에 <장학론 논고>·<교내 자율 장학론>, <교사 신규 채용 및 전보 제도 개선 연구>의 다수가 있다.

개정된 교감 자격 연수 과정은 교감의 역할 수행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교양 및 직업적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 경영의 실무와 교내 장학 지도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교장 자격 연수 과정은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격과 창의적인 지도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원 자격 연수 제도의 문제점

교원 연수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및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립 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규모는 공립 학교 교원과 교육 전문직 총 1천 474명으로서, 공립 학교 교원의 경우는 총수의 0.5%인 1천 259명(초등 교원 680명, 중등 교원 579명)을, 교육 전문직의 경우는 총수의 약 7%인 215명을 우선 표집하였다.

질문지 조사 결과와 관련 문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상위 자격 취득 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원 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한다.¹⁾

첫째, 교직 생활 전체 기간 중에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둘째, 연수 기관 특히 대학 부설 연수 기관의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

셋째, 대체로 하계·동계 기간에 하루 6~7시간씩 운영되는 연수 일정, 그리고 강의식 위주의 연수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넷째,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체 또는 외래 연수 요원을 충분히 확보·활용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종래에 직전 교육과 현직 연수간, 그리고 현직 연수의 각 과정간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중복이 있는 듯하다.²⁾

여섯째,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수 참여 의욕이 별로 높지 않으며, 연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유인 체제도 미흡한 듯하다.

일곱째, 연수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내용·방법·절차 등과 관련하여 타당성·신뢰성·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듯하다.

특히, 1정 자격 연수의 성적 평가 방법 및 그 활용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에 위해서는 연수 성적 평정점 30점이 반영된다. 그 중 연구 실적 평정점 3점을 제외한 순수한 연수 성적으로는, 일반 연수 성적이 9점, 자격 연수(1정 자격

연수 또는 교도·사서교사 자격 연수) 성적이 18점 반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³⁾ 첫째, '80년대 이전에 1정 자격 연수를 받은 교원들의 경우, 성적이 현행(81점~100점 구간에 표준 정규 분포도에 의해 분포)보다 낮게 평정되어 있거나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이때는 현행의 최하 점수인 81점을 부여함), 상대적으로 교감 자격 취득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교원들이 적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1정 자격 연수의 기회가 단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연수 성적이 낮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감 자격 취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에 받은 1정 자격 연수의 점수가 나쁜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교도교사 또는 사서교사 자격 연수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교도교사 및 사서교사 자격 연수가 그 대상자 선정이나 연수 결과 활용에 있어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셋째,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 20~25여 년 전에 받은 1정 자격 연수의 점수를 18점(일반 연수 점수 9점을 포함한 연수 점수 27점의 66.7% 비율) 반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넷째,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평정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받은 일반 연수 점수 하나만을 반영하는 관계로, 평정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전에는 일반 연수를 받을 필요성이 적으며, 교원들의 연수 욕구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그 밖에 연수 기관에 따라서 성적의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교원 자격 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

1. 개선의 기본 방향

교원 연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교직 생활 전기간에 걸쳐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신장·유지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 발달(teacher development)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직 전기간을 통하여 교직과 관련된 지식, 기능, 행동, 태도 및 관점에서 변화를 보인다.⁴⁾ 교원들의 전문적인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수가 필수적이다.

둘째, 교직에 임용되기 전에 받은 직전 교육과 교직에 임용

된 후에 받는 현직 연수 간에, 그리고 교직 생활 중 받게 되는 계속적인 현직 연수들 간에 연계성과 체계성이 있어야 하며, 현직 연수와 교직 직무 간에도 연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들이 연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교원들에게 승진이나 인사상 유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들이 종전에 갖고 있던 연수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 개선 방안(안)

1. 1정 자격 연수 대상자를 현재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는 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의 연수 욕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여 연수 효과를 높인다.

교사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교직에 들어와서 대체로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어느 정도 학교 현장에서의 교직 생활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까지는 주로 단위 학교 내에서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되는 수업 장학이나 선배 교사들의 지도, 조언을 통하여 교과 지도 및 생활 지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5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기준에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과 방법들을 나름대로 재해석해 보고, 새로운 교수 이론이나 방법, 그리고 학급 경영 방법을 시도하려는 의욕이 커진다고 한다.⁵⁾ 이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1정 자격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면 연수의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연수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1정 자격 연수가 교직 경력 5년 이상 경과해야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교사 발달에 관한 이론에 맞추어서 관계 법령(교육법 제79조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5~6년 주기로 60시간 이상 수준의 일반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단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일반 연수의 의무 이수 주기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들은 교직 전문성의 유지·제고를 위해 교직 생활의 전체 기간 중에 계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교육과정의 개편 주기인 5~6년을 주기로 하여 60시간 이상의 체계적

인 일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원, 그리고 교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교원들이 1정 자격 연수를 교직 생활 5년 정도 경과 후에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5~6년 주기 일반 연수의 의무화’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5~6년 주기로 일반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 학교 교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3. 교원들이 5~6년 주기로 받게 되는 60시간 이상 수준의 일반 연수 중에는 주임교사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연수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교원들이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비록 ‘주임교사’가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주임 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임교사는 단위 학교의 경영에 있어서 교장·교감 다음으로 중간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임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중간 관리자로서 주임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도록 연수해야 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다.

바람직하기로는 주임교사 연수를 자격 연수(180시간) 수준으로 강화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한 연수의 교직 경력에 이른 교사들이 이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의 사정과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⁶⁾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임교사 연수의 자격 연수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임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60시간 이상 수준의 일반 연수는 주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이의 이수 시기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교직 경력이 경과한 시기로 한다.

교육부에서 지난 3월 31일에 제시한 ‘교원 자격 연수 표준

(표 1)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시 연수 성적 반영 비율

구분	연수 성적	일반 연수 성적	합 계
현행	18점 (66.7%)	9점 (33.3%)(10년 이내 받은 것 1개)	27점 (100%)
개선안	9점 (33.3%)	18점 (66.7%)(1정 자격연수 이후 받은 것 3개의 평균점)	27점 (100%)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주임교사 일반 연수 과정이 각 시·도 교원연수원에서 주임교사를 위한 일반 연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참고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성적과 일반 연수(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받은 일반 연수) 성적을 모두 반영한다. 이때, 자격 연수 성적보다 일반 연수 성적의 비중을 높게 반영하며, 일반 연수의 성적은 3개의 평균점을 반영한다.

상위 자격 취득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이전에 받은 자격 연수 점수와 일반 연수 점수를 현행과 같이 모두 반영한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에 1정 자격 연수 점수를 반영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으나, 1정 자격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의욕 유지를 위해서는 1정 자격 연수 성적 반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1정 자격 연수 성적과 일반 연수 성적의 반영 비율을 앞의 <표1>과 같이 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 제30조 개정).

위에서 제안된 연수 성적 반영 비율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예상된다.

첫째, 현행처럼 1정 자격 연수 성적을 18점 만점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점수의 최대 편차가 3.6점(18점×100% - 18점×80% = 3.6점)으로서 대단히 크다. 그러나 제안된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점수의 최대 편차가 1.8점(9점×100% - 9점×80% = 1.8점)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80년대 이전에 1정 자격 연수를 받은 교원들의 경우, 성적이 현행보다 낮게 평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감 자격 취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민원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1정 자격 연수 성적의 반영 비율을 낮춤으로써, 과거에 받은 1정 자격 연수의 점수를 대체하기 위해 교도교사 또는 사서교사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교도교사 및 사서교사 연수가 그 대상자 선정이나 연수 결과 활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정 자격 연수 성적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일반 연수 성적의 반영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감 직무의 수행과 시기적으로 인근해 있는 각종 일반 연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과거 20~25여 년 전에 받은 1정 자격 연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 교감의 직무와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넷째,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일반 연수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반영하는 일반 연수의 수도 현재 1개에서 3개로 확대함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교직 생활의 전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반 연수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다섯째,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반영하는 일반 연수의 수를 현재 1개에서 3개로 확대함으로써, 1정 자격 연수와 교감 자격 연수 사이에 연수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연수에 임하는 교원들의 연수 의욕이 낮다고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안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시 연수 성적 반영 비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 및 관련 조치가 요구된다.

(1) <표1>에 의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시 연수 성적 반영 비율'은 1994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시·도 교육청 나름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1정 자격 연수 이외에 교도교사·사서교사 자격 연수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받게 될 교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정 자격 연수 성적이나 교도교사·사서교사 자격 연수 성적 중 좋은 것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행의 사서교사 자격 연수는 이를 1994년부터 60시간 수준의 일반 연수로 전환한다. 그리고 교도교사 자격 연수는 계속적으로 실시되되, 그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합리화를 기한다.

(3)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일에 근접해 있는 교사들 중에서 1정 자격 연수 이후 현재까지 1개 또는 2개의 일반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의 일반 연수 성적만을 반영한다. 단 이러한 조치는 향후 5~6년 기간까지만 인정한다.

(4)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교원들에게 일반 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교원들로 하여금 일반 연수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유인 체계를 강구한다(예: 전보 시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⁷⁾

5.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교육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성적·논문을 본인이 원하는 연구 실적 점수로 사용하거나 혹은 이전에 이수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성적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육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하면, 그 연구 논문에 대해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 0.5~1점을,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1~2점을 연구 실적 점수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급 정교사가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연구 실적 점수로 사용하거나, 혹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 제30조).

그러나 1급 정교사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연구 실적 점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1정 자격 연수 이외에 교도교사·사서교사 자격 연수를 받은 경우, 1정 자격 연수 성적이나 교도교사·사서교사 자격 연수 성적 중 좋은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겠다.

따라서, 1급 정교사가 석사·박사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구 실적 점수로 사용하거나 혹은 1정 자격 연수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6. 연수 성적의 평가에 있어서 연수 과정간, 그리고 연수 기관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연수 기관은 연수 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연수 성적의 평가에 있어서 연수 연도, 연수 과정, 그리고 연수 기관간에 불균형이 커서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연수 분위기 및 연수 자체의 본질을 오도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각 연수 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연수 성적 분포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이는 특히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수원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높은 듯하다.

원칙적으로 연수 성적 분포는 90점을 정점으로 한 표준 정상 분포 곡선을 따르면 문제는 없을 듯하다.

7. 연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수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자격 연수의 경우 학교에서의 수업 결손을 피하기 위하여 방학 기간 중에 연수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고려할 때, 연수 기관에 충분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연수 여건은 연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연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일반 산업체의 연수 시설들에 비교하여 볼 때, 교원 연수 시설, 특히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수 시설의 낙후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겠다.

우선적으로 혹서기, 혹한기에 대비하여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 밖에도 효과적인 연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휴게실, 도서실, 기숙사 그리고 소회의실이나 분과 토의실 등 각종 부대 시설의 완비도 시급하다.

8.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수한 강사 요원을 확보·활용하고, 연수를 받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활용한다. 또한, 교원들이 연수를 받기 전에 연수의 진행 일정, 연수의 내용·방법, 평가 방법, 참고 도서, 과제물 등에 대해 사전에 필요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연수에 임하도록 한다.

우수한 강사 요원을 확인·선정·활용하기 위하여 연수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강사 수당을 적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교원들 중에서도 학위 소지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현직의 우수 교원들 중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원이나, 각종 연구 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교원, 그리고 각종 실험 학교 활동이나 연구 학교 활동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수의 방법으로는 실험·실습·실기 방법 및 다양한 학습 자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참여식 수업 체제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9. 국립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 중에서 교장·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국립 대학의 총장과 시·도 교육감 간에 적절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국립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장·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시, 이들에 대한 추천이 국립 대학 총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연수 대상자의 수에서 국·공립 간의 형평성 결여로 공립 학교 교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 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교장·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는 국립 대학 총장과 시·도 교육감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서면 동의 등의 절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면 관계로 주 설명은 생략함.)*

교원 연수 제도 개선 방안

- 사서·교도 및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를 중심으로 -

유현숙

자격 연수는 결국 그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연수 제도는 그 명칭에 부합하는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 그 분야에서의 교육을 담당해야 함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연수의 결과가 승진 등에 활용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임시 방편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

현행 사서 및 교도교사 자격 연수는 사서교사와 교도교사 확보 및 재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연수의 결과를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래 전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의 승진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편의의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서 및 교도교사 자격 연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연수 후 부여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관련 이해 집단간에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의 경우는 앞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수 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안정된 연수의 형태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부전공 자격 연수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 등이 모색되어 오지 못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사서교사 및 교도교사, 그리고 부전공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사서·교도교사 및 부전공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 현황 및 문제점

1. 사서교사 자격 연수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서교사 자격 연수는 1978년

이래 1990년까지 초등과 중등 교사 각각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991년 이후부터는 초등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¹⁾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서교사 자격 연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오래 전에 받은 교사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어 왔고, 연수의 결과를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현행 사서교사 자격 연수에 대해 제기되어 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 과정을 이수한 후, 사서교사 자격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서교사 자격 연수 과정을

〈표1〉 사서교사 자격 연수 실적

연도	계	초등	중등
1978	75	-	75
1979	239	-	239
1980	-	-	-
1981	340	120	220
1982	539	229	310
1983	356	174	182
1984	404	174	230
1985	293	180	113
1986	354	184	170
1987	617	254	363
1988	588	420	168
1989	202	162	40
1990	239	212	27
합계	4,266	2,109	2,137

자료: 교육부 교원연수과(1992.9), 교원연수 실무편람,

〈표2〉 대학의 문헌 정보 및 도서관 학과 졸업자 현황

연도	졸업자수	연도	졸업자수
1980	134	1987	1,136
1982	164	1988	1,224
1983	217	1989	1,243
1984	655	1990	1,224
1985	814	1991	1,252
1986	891	1992	1,19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80-1992)

〈표3〉 교도교사 자격 연수 실적(중등)

연도	이수자수	연도	이수자수
1978	583	1986	700
1979	413	1987	750
1980	410	1988	1,015
1981	630	1989	507
1982	712	1990	590
1983	640	1991	653
1984	771	1992	1,001
1985	698	(계획)	

자료: 교육부 교원연수과(1992.9), 교원연수 실무편람.

이수한 교사들은 대부분이 이 점수를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해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실제로 사서교사의 기능을 행사하는 데는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재 사실상 초등 단계에서 사서교사 정원이 없는 실정하에서 이 자격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다.

둘째,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30여 개의 4년제 대학에서는 문헌 정보 및 도서관 관련 학과를 통해 1천 명 이상의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반수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된다(한국도서관협회, 1993). 이러한 실정하에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서교사 자격 연수는 문헌 정보 및 관련 학과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의 교직 진출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현재 각 시·도 교육청들은 관련 이해 집단의 민원 및 문헌 정보·도서관 학과 교수들의 강의 거부로 인해 사서교사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²⁾

셋째, 연수 대상자들의 경우도 연수 후 실제로 사서교사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의 내용이나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단지 연수를 이수했다는 사실이나 성적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같은 이유로 연수 담당자의 경우도 연수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사서교사 자격증을 약 2개월(180시간) 정도의 단기 연수를 통하여 부여한다는 것은 4년간의 정규 교육을 받은 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즉, 도서관학이나 문헌 정보학 관련 학과 학생들은 4년이라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사서교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는데, 자격증의 실제 활용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동일한 자격증을 교육기간이 다른 경로를 통해 부여한다는 것은 기회 균등면에서 어긋난다는 점이다.

2. 교도 교사 자격 연수

교도교사 자격 연수는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78년부터 1991년 기간 동안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현행 교도교사 자격 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교사 자격 연수 과정 이수자 수에 비해 실제로 일선 중등 학교에서 교도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비율은 극히 적음으로써 이 연수가 낭비적인 과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반 교사들에게도 학생 지도의 소양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매해 일정 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³⁾

둘째, 교도교사 자격 연수 역시 연수에 임하는 교사들이 연수의 내용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교도교사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실제로 연수 후에 교도교사로서 활동하는 비율은 적고, 그 점수만을 활용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사서교사의 경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교도교사 자격 연수의 경우도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교직 임용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현재 비록 국소수이기는 이 분야의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도교사 자격 연수를 실시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누적시킨다는 것은 이들의 교직 진출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

엄밀한 의미에서 복수 및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는 연수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교원 양성의 문제 즉, 자격증 표시 과목의 문제와 연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양성의 단계에서 예비 교사들의 부전공 과목 이수에 따른 자격증 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통폐합이나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한 과목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잉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수 차원에서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또 다른 과목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교원 연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표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2년 현재 이러한 부전공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는 전국적으로 6개 대학에 위탁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각 대학은 자체에 부설되어 있는 교원연수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현직 교사 대상의 부전공 자격 부여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유현숙

고려대 교육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음. 프랑스 국제교육기획 연구소에서 고급교육 행정가 연수과정 이수.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임. 역서로 <교육행정학의 반성과 비판(공역)>, 논문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방안 연구>의 다수 있음.

〈표4〉중등 학교 현직 교사 부전공 자격 부여 교육 기관

주관 교육청	해당 기관	부전공 자격 표시 과목	기간	비고
전라북도교육청	원광대학교	전자계산	'91-'93	매년 50명 이내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전자, 기계	'92.7-'93.1	각 60명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대학교	전자계산	'92.7-'95.6	매년 80명 이내
충청남도교육청	한남대학교	전자계산	'92-'94	매년 40-50명
각 시도교육청	서울대학교	농업기계, 식품공	'93.2-'95.12	각 50명
	충남대학교	업, 조경기술	'93.2-'95.12	50명

자료: 교육부, 교직국 양성과(1993), (유인물).

는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즉, 중등 학교의 현직 교사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에 관한 교육을 21학점(336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으로 해당 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전공 자격 연수는 1991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남, 충북, 충남 등에서 주로 전자계산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전공 자격 연수 과정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아직까지는 연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한국교육신문, 1992년 11월 25일자 보도).

부전공 과목 표시를 위한 연수는 앞으로 체육이나 농업, 그리고 어학 교과를 담당했던 교사들 사이에서까지도 희망자가 증가되리라는 전망이다. 우선 제 6차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현재 중등 학교에서 교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펼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중요한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농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농업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계 학과 및 학교의 폐과 및 폐교를 속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계 학교의 경우는 같은 농학 계열이라 할지라도 식품가공이나 농업기계 등 기술을 응용하는 학과의 신설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수가 필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전자계산 분야는 물론 농업기계, 조경, 식품가공, 정보처리 등의 분야로 부전공 연수 과정을 다양화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부전공 자격 표시를 위한 연수의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부전공 자격 연수는 새로운 교과에 대한 자격을 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의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즉,

연수를 주관하는 대학에서 336시간(21학점)만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표시해 주게 되어 되는데, 이는 부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이다. 이들도 결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4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과 동일하게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간의 연수 과정이 요구된다는 하겠다.

둘째, 부전공 자격 연수를 위한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선 교육과정과 직접 연관되는 실험·실습 설비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부전공 연수 과정은 주로 전자, 컴퓨터, 기계 등의 기술 관련 교과가 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실험·실습 설비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부전공 연수 과정은 주로 전자, 컴퓨터, 기계 등의 기술 관련 교과가 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실험·실습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시도 교원연수원의 여건이나 실정을 고려할 때 부전공 자격 표시를 위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부전공 자격 연수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학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연수를 시켜서 새로운 자격을 부여할 만큼 충실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부전공 자격 연수의 수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 과정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여타 자격 연수나 일반 연수와 마찬가지로 부전공 자격 연수 과정은 법적으로 의무화·규정화되어 있지 못하며, 부전공의 문제가 연수의 차원이 아니라 단지 양성의 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선 방안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3가지 자격 연수 과정 각각에 대한 개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잠정적인 개선 방안(안)을 제시한다.

1. 사서 교사

가. 개선 기본 방향

1) 자격 연수로서의 존속 여부 검토

앞으로 사서 교사 자격 연수는 그것이 자격 연수로 계속 존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활동의 기초 소양이 되는 사서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 일반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고도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장기적인 면에서 관련 학과 졸업생을 통한 공급으로 전환 앞으로 일선 학교의 사서교사는 문헌 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등 관련 학과 졸업생을 통한 충원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사 양성·임용, 그리고 연수 과정의 전반적인 연계성 확보를 통해 교원 인사 정책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3) 연수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사서교사의 연수는 일선 학교에서 정말로 사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이 그 대상자로서 선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연수 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고, 또한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강사들도 열심을 가지고 연수에 임하게 될 것이다.

나. 개선 방안(안)

앞으로 사서교사 자격 연수는 점차 일반 연수로 전환하고, 사서교사 연수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수 대상자 선정의 합리화, 연수 내용 및 방법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 자격 연수는 앞으로 일반 연수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서교사는 장기적인 면에서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 임용을 통하여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로 볼 때 앞으로 교도 및 사서교사 자격 연수 결과는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서교사 연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 시도 교원연수원이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비율이 타 기관보다 높아서 응답자의 약 40%가 이에 반응하고 있다. (표생략)

2. 교도 교사

가. 개선의 기본 방향

1) 교도 교사의 전문성 제고

현재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 양상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학생 교도의 방법이나 기술 등도 이에 상응하여 그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도교사는 학생 교도에 관한 전문적 이론을 토대로 한 카운슬링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문 분야의 이론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학생 교도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교도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 교사의 학생 지도 및 교도의 소양 제고

앞으로 일선 교사들은 비록 교도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과 지도와 더불어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 지도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는 어떠한 교과목을 다루든지간에 학생 교도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교사의 일반적 자질을 제고한다는 입장에서 교도교사 연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학과 졸업생의 임용 기회 확대

앞으로 교도교사의 경우도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의 교직 진출 기회를 점차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선 학교에는 주로 타 교과 전공의 교령 교사들이 대부분 교도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교도교사는 어느 정도의 연륜도 필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카운슬링의 기능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들의 임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교도교사 연령층도 고루 분포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연수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앞으로 교도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교도교사 자격 연수 희망자 중에서도 비교적 교도와 관련이 있는 분야나 인접 학문 분야를 전공한 교사들이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연수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선 방안(안)

앞으로 교도교사 임용 및 연수는 다음과 같은 2원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현직 교사에 대한 교도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더불어, 교도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에게도 학생 교도에 관한 일반 연수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면에서는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에 대한 교도교사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교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 지도에 대한 연륜과 전문성을 같이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직 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 연수와 더불어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을 통한 교도교사 충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교도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교도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의 경우도 학생 지도를 위한 소양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일반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일반 교사의 경우도 학생을 접하는 시간이 교도교사보다 많다는 점에서 교과 지도 이외에 학생 지도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교도교사 자격 연수의 대상자 선발도 대학에서 교도와 비교적 관련 있는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연수의 내용이나 과정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질 높은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도교사 자격 연수를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표5>와 같다. 역시 각 시·도 교원연수원에서 담당하기를 바라는 비중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약간 우세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교도교사 자격 연수 담당 희망 기관에 대한 의견

담당 기관	응답자수	비율(%)
계	1,181	100.0
○ 대학 부설 교원연수원	193	16.3
○ 시·도 교원연수원	480	40.6
○ 중앙 교육연수원	165	14.0
○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162	13.7
○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35	3.0
○ 대학+시·도 교원연수원	52	4.4
○ 대학+중앙교육연수원	8	0.7
○ 대학+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13	1.1
○ 대학+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2	0.2
○ 시·도 교원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	27	2.3
○ 시·도 교원연수원+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16	1.4
○ 시·도 교원연수원+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18	0.1
○ 중앙교육연수원+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1	1.5
○ 중앙교육연수원+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4	0.3
○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5	0.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원교육연구부 조사 결과임.

3. 부전공 자격 표시를 위한 연수

가. 개선의 기본 방향

1) 관련 법적 규정의 마련

과원 교사 발생이나 수업 부담의 형평 유지를 위한 현직 교사 대상의 부전공 자격 연수는 앞으로 그 과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확실하게 마련됨으로써 연수 시간이나 연수 담당 기관, 그리고 연수 후 부여하는 자격증 종별 등이 보다 확고하게 정

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전공 자격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수 기회의 점진적인 확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전공 자격 연수 현재 해당 시·도 교육청의 요청으로 6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교과목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농촌 교육 인구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통·폐합이 전개됨에 따라 앞으로 과목별 과원 교사가 속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전공 자격 연수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복수 전공 과정 이수자들의 전문성 증대

비록 부전공이라 할지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자들 못지않은 교육 내용과 실험·실습의 기회, 그리고 충분한 교육 기간을 통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의 제고

부전공 교사 자격증의 경우는 전공 교사 자격증에 비하여 그 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재 이 자격 연수 과정은 아직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연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에 대한 자격증 종류의 검토 및 유인 요인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선 방안(안)

앞으로 부전공 자격 연수는 교사로서 교육 활동에 임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하리라고 보는 과원 교사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미리 되어야 할 것이며, 과목별로 어느 분야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모든 중등 교사가 복수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연수 체제 및 양성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전공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는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정의 개편,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 교사의 발생 등을 전망해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연수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전공 자격 연수 과정 이수자는 일선 학교

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연수가 내실화되고 안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전공 자격 연수가 과원 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연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원 수급에 관한 연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전공 연수 과정을 보다 다양화하는 일이다. 현재와 같이 전자계산, 기계 등 제한된 영역에서 탈피하여 정보 및 관련 학과, 농업기공 관련 학과, 그리고 어학의 분야 등에까지 연수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 후 수여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의 종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해 주도록 하되, 상위 자격의 취득에는 활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전공 이수자들을 위한 유인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 과원 교사에 대한 대책은 부전공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가 해결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전공 자격 연수 희망자에 대한 유인책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 연수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연수를 위한 금전적 혜택이나 시간적 배려 등을 통해 연수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는 각 시·도 교원연수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과목들이다. 현재 각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 자격 연수는 앞으로 대학에서 계속 담당한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권역 설정을 통하여 공동으로 연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수의 절대 시간도 새로운 과목에 대한 자격증의 부여이만큼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한 학기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6>은 앞으로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33%가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교원연수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맺는 말

이상에서 사서·교도교사, 그리고 부전공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 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유형의 자격 연수는 결국 그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

<표6>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 담당 희망 기관에 대한 의견

담당 기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계	1,165	100.0
○ 대학 부설 교원연수원	384	33.0
○ 시·도 교원연수원	278	23.0
○ 중앙교육연수원	87	7.5
○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258	22.1
○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26	2.2
○ 대학+시·도 교원연수원	45	3.9
○ 대학+중앙교육연수원	4	0.3
○ 대학+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40	3.4
○ 대학+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2	0.2
○ 시·도 교원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	6	0.5
○ 시·도 교원연수원+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12	1.0
○ 시·도 교원연수원+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	-
○ 중앙교육연수원+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17	1.5
○ 중앙교육연수원+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2	0.2
○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3	0.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원교육연구부 조사 결과임.

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각 연수 제도는 그 명칭에 부합하는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 그 분야에서의 교육을 담당해야 함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연수의 결과가 승진 등에 활용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임시 방편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사서교사 자격 연수는 사서교사로서의 기능을, 교도교사 자격 연수는 교도교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전공 자격 연수는 앞으로 모든 교사를 복수 교과 전공자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등 교사 자격에 있어 복수 교과목 표시제로 나가야 함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제시되어 오고 있는 것이며(이윤식, 최상근, 박영숙, 1990; 이윤식, 유현숙, 1991), 우리의 교육 여건 변화 즉, 소규모 학교의 증대나 학과의 통·폐합 등의 추세를 전망할 때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3가지 유형의 자격 연수 과정의 개선에 대해 깊은 토의와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논의는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연수나 일반 연수, 그리고 교원 양성 및 임용 정책 등 교원 인사 행정 제도에 전반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면 관계로 주 설명은 생략함.) *

기초 질서 지키기, 시민 정신의 첫걸음입니다

교육자치제와 시·도 교원연수원 운영의 개선 방안

조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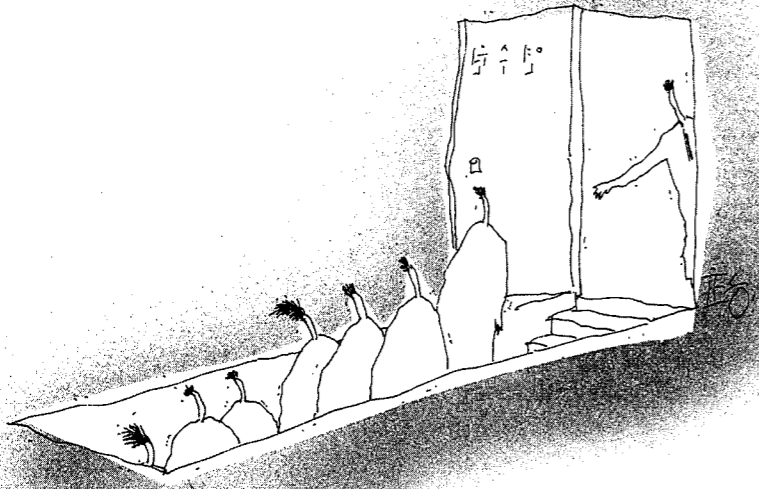


그림: 최정호

교육 자치제 실시에 따른 교원연수원의 발전 방안으로서 교관의 사기를 높이고, 연수 시기를 학기 중에 확대 실시하며, 현직 연수를 평생 교육과 연관지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연수 요구 조사를 통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교육의 질을 가능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말이다. 따라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 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의 교육법에도 제74조에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

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국민 교육에 전심 전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교육공무원법에도 제38조 제1항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노동기구와 유네스코가 공동 작성하여 유네스코 특별 회의에서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Ⅲ’ 지도 원칙 6항은 “교원은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엄격하고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적 업무의 하나이다. 또한 그것은 교원들에 대하여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

리를 위하여 개인적, 집단적인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 자질 향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그동안 각종 교원 연수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교원 연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center-based) 기관 연수, 학교를 중심으로 한(school-based) 교내 연수, 개인을 중심으로 한(individual-based) 개인 연수의 형태로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원 연수 기관은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대학에 부설된 초등교원연수원(11개), 대학·사범대학에 부설된 중등교원연수원(16개), 교육행정연수원(1개), 종합교원연수원(1개)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1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시·도 교원연수원(13개), 도합 43개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도 교원연수원에 국한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 제도상 및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고찰한 다음, 시·도 교육청 및 교원연수원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과 시·도 교육청, 시·도 교원연수원, 대학 부설 연수원간의 기능 분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도 교원연수원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시·도 교원연수원은 ‘각 시·도에 1개 교원연수원 설치’를 목표로 1987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인천직할시와 대전직할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개설되어 있다. 각급 학교 교원, 교육 전문직 및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1991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그 후로는 동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연수 종류는 일반 연수, 자격 연수, 직무 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반 연수는 교육의 이론 및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연수 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하며, 연수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고, 그 이수 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 연수는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과정은 2급 정교사 과정, 1급 정교사 과정, 교감 과정 및 교장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도 교사, 사서 교사 등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도 이에 포함된다. 그 연수 대상 및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며, 연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그 이수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직무 연수는 직무 수행과 직장 적용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배양을 위한 것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하고자 하는 여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그내용과 연수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하고 있다.

시·도 교원연수원의 조직은 원장 아래 교수부(교학부, 또는 연수부), 운영부(연구부 또는 지도부), 총무부(총무과 또는 서무과)로 편성되어 있고, 원장은 장학관으로, 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있다. 그리고 원장, 부장을 비롯한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관이 각 연수원에 17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제도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관의 선정, 연수 및 대우에 관한 문제이다. 시·도 교원연수원의 전임 교관은 전문직 중의 전문직으로 이들의 선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직전 교육은 물론 현직에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절실함은 다시 말할 나위 없다. 또한 근무 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교관에 대하여 승진 또는 전보에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보수면에서도 교장·교감과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연수의 시기 문제이다. 대부분의 현직 연수가 하계 방학·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기 중에 실시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설비가 주로 방학 기간에만 사용될 뿐 연중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격 연수는 승진이 라는 유인 체제로 선호되고 있는 편이지만, 일반 연수와 직무 연수는 덩그러니 추운 방학 기간에 집중적·대량적으로 실시되고



조병호

건국대 상경대를 나와 부산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음. 부산시교육연구원장, 교육구청장, 교육연수원장, 부산중앙여고·중앙고·경남공고 등 교장, 부산대 사대·교육대학원 강사를 역임했다. 저서에 <현대 장학론>의 다수가 있다.

있어, 교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평생 교육과 현직 연수와의 연계 체제의 문제이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로 되려면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때 현직 연수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수를 한 번만 받으면, 그 후 교감 자격 연수를 받지 않는 한 정년 퇴임 때까지 연수를 받지 않고도 평생 교직에 머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감 자격 연수를 받으려면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적어도 15~18년이 지나야 겨우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해당 자격자 전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1급 정교사 연수가 끝나면 사실상 연수는 거의 단절되는 실정이다.

나.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수 과정의 편성 문제이다. 연수 과정의 질을 높이려면 연수 요구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불충분하다. 또한, 연수 과정은 연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연수 과정의 개발이 필요한데도 연수 대상자를 고려한 연수 과정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여가 이용 지도를 위한 기능 연수를 희망할 때, CAI에 의한 교과 교육 지도 기법을 습득하고 싶을 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 제공되는 연수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연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교과 중심의 일반 연수와 교과별 자격 연수 과정에 전공 교과 교육이 부실하다. 그리고 현직 연수는 학문적 접근보다 현장의 교육 문제 중심으로 실천적 접근을 해야 함에도 이론 위주로 되어 현장 교육 문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한, 체계적인 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연수 기관별, 강사별로 교수 요목이 상이하고, 교육 내용도 사회 발전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연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연수 방법은 연수생 참여 중심의 연수를 위해 세미나, 분임 토의, 사례 발표, 실험·실습 및 다양한 학습·실습 자료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연수는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연수 시설의 미비뿐만 아니라 참여식 연수 방법이 부담스러워 이를 기피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또한, 하이텍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기자재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수 기법도 개발이 불충분하다.

넷째, 연수 성적을 위한 평가는 학습 평가, 실습·연구 활동 평가, 근태 평가의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학습 평가 영역에서는 중간 평가와 종합 평가가 있고, 실습·연구 활동 평가 영역에는 실습 평가와 분임 활동 평가가 있다. 연수의 최종 성적에는 위의 세 가지 평가 영역의 성적이 반영되고 있는데, 연수

원에 따라 평가 영역별 성적 비중이 다르고, 연수 성적의 분포 및 평균점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도 교원연수원의 제도상 및 운영상 개선 방안

앞에서 시·도 교원연수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도상 및 운영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제도상 문제의 개선 방안

제도상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교관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다. 교관의 임용은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현직 교감 중에서 전직시키거나, 교육청 또는 타 교육 기관의 전문직을 전보 조치하거나, 전문직 임용고시 합격자 중에서 선정, 임명하고 있다. 어느 경우이건 선정에는 인성적 및 전문적 자질을 심사하여 특별 채용해야 하고, 전문직 경력이 없는 자는 임용 전에 반드시 직전 교육(중앙교육연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학사 양성 과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임용 후 업무 과약이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여 안목을 넓히고, 식견을 높여야 한다. 해외 연수의 경험이 없는 교관이 해외 연수자 사후 연수를 담당 지도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행정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관으로서 근무 기간을 성실히 마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부령)과 시·도의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에도 위의 조항에 준하여 연수원 교관에 대한 우대 조항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수원 교관은 부장의 경우 교장, 장학사·연구사의 경우 교감에 상응하는 직위인데도, 보수면에서 대우가 열악하여 사기가 저하되므로 업무 추진비, 연수 기관 근무 수당 등의 증액으로 적어도 교장·교감과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교관이 신바람이 나야 연수원이 신바람이 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우대 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기간(최소한 3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도 교원연수원에도 중앙교육연수원과 같이 ‘전임교수제’ 도입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것이다.

둘째, 연수의 시기를 학기 중에도 확대 실시하는 일이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량 연수를 실시하니 식당·휴게실·화



시·도 교원연수원이 제학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관의 사기 진작, 다양한 연수 과정 개발 등 제도상·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진은 서울·전남교육청의 교원 연수회



장실 등 좁은 공간의 혼잡은 물론, 주차난까지 겹쳐 연수 운영의 효율에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도 상당한 수는 건강 관리, 가사 정리, 가족·친척·친지 방문 등 사유로 방학 연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감 자격 연수와 일부 일반 연수·직무 연수를 학기 중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에는 수업 결손 때문에 학교측에서 학기 중 연수를 극구 반대해 왔으나 이제는 학교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학급 인원의 감소, 교사 증원에 따른 담당 시수의 격감, 보충 수업·자율 학습의 축소 등으로 좀 여유가 생겼다. 학기 중에 연수를 해도 기껏해야 한 학교에서 평균 1~2명 정도 차출이 예상되는데, 교원 연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이해가 되리라 본다.

머지않아 우리가 유럽처럼 초·중등 교사들에게 교원 연수 휴가제(스웨덴은 7년마다 6개월, 독일은 5년마다 36일)같은 것이 도입이 된다면 교원 연수의 연중 실시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넷째, 현직 연수를 평생 교육과 연관지어 임용이 예정된 때부터 정년 퇴임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다.

1급 정교사까지는 임용 후 4~6년 사이에 해당 교사는 거의 연수를 받게 되나 1급 정교사 이후로는 정년 때까지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개 연수가 단절되며, 그 단절 기간은 너무 길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이후 자격 계층(예컨대, 전문 교사, 수석 교사, 대교사 등)을 하나 더 설정하여 연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처럼 교원 경력 5년째 해당 교원 연수, 교원 경력 10년째 해당 교원 연수, 교원 경력 15년째 해당 교원 연수 등과 같이 5년을 주기로 하여 그 기간 내에 연수를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급격하게 변모하는 사회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5년 주기의 현직 연수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것이다.

2. 운영상 문제의 개선 방안

운영상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연수 요구 조사를 통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발하는 일이다. 신나는 연수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연수 요구 조사가 첫째 요건이다. 연수 요구 조사는 흔히 참여할 교사들에게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부모, 교장·교감·주임교사, 교육청과 타 교육 기관의 전문직·일반직, 타 연수 기관, 관계 문헌 등 광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연수 요구 조사는 시·도 교원연수원 공동 연구로 추진하거나 공동 경비로 연구 기관 등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연수원은 이들 프로그램 중 지역 실정에 맞고, 실시 가능한 것을 선정,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웨덴처럼 교직 단체나 학술 단체가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을 카페테리아 메뉴식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해 놓으면 교사 각자가 판단해서 자기에게 맞는 상품을 산다는 식의 지극히 고도화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도 교원연수원의 시설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이들의 수용을 위한 지역 수준의 티처 센터(teacher center)의 개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 교과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이 참신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접근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력 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도록 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면에 개정된 표준 교육과정에는 교직 영역에서 ‘교과 교육의 동향과 수업 설계’, 전공 영역에서 ‘교과 연구 방법’에 각 4시간이 배당되어 있다. 교과 교육 전공자를 초빙 등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참신한 것을 선정하고, 이론 위주가 아닌 현장의 교육 문제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자격 연수는 연수 기관별, 강사별로 교육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표준 교육과정 전공 영역의 실러버스(syllabus)를 상세화하는 연구 개발이 있어야 한다.

셋째, 연수의 방법을 주입식 강의 중심 교육에서 참여식 자율·탐구 중심 교육으로, 교재 중심에서 다양한 첨단 기기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교원의 현직 연수는 성인 학습 원리에 기초하여 문제 중심, 과제 중심이어야 하고, 연수의 방법은 참여식 교육이어야 한다. 참여식 방법은 다양하다. 세미나 중심의 토의 학습, 과제 연구 및 발표, 분임 토의 및 발표, 배심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보기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모범 학습 사례를 VTR 등의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실험실·산업 현장에서의 실험·실습, 현장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산업 현장과 교원 연수를 연계하여 장기간 현장에서 참여 공헌하는 연수가 있다.

위에 열거한 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연수 기법에 관한 매뉴얼 발행 보급, 시청각 기자재의 확보, 연수 기법 및 기기 조작을 위한 교관·교사 요원의 자체 연수, 기법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수 기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연수 성적의 평가를 연수 연도, 연수 과정, 연수 기관 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일이다. 연수 성적의 평가는 승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교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통일 기준 아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교원들은 연수에 매력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동일 시·도 내에서 연도, 연수 과정, 연수 기관에 따라 성적의 분포 기준이 다를 때, A도에서 B도에 전입한 경우 A도와 B도의 성적 평가의 기준이 다를 때, 승진에서 경쟁자들이 갖게 될 불신·불만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제시한 '93년도 연수 성적 평가의 지침(장기 계획 수립 시행, 성적 분포는 81~100점 사이를 표준 정규 분포도에 의해 분포: 90점을 정점으로 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전국 모든 연수 기관 또는 연수 위탁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연수원은 출제 관리, 인쇄 관리, 보관 관리, 감독 관리, 채점 관리, 기록 관리 등 과정에서 공정(公正), 정확(正確), 보안(保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및 교원연수원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원간의 연수 업무에 관한 협조는

지금까지 장애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업무 협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연수원에 대한 교육청의 희망 사항을, 이어 교육청에 대한 연수원의 희망 사항을 논한 다음, 교육청과 연수원간의 협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수원에 대한 교육청의 희망 사항

첫째,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직원들이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투철한 교직원관을 갖게 되고, 교직자로서 정신 자세의 확립은 물론 질 높은 전문 지식과 교육 기술이 습득되기를 바란다.

둘째, 국가가 바라는 민주 시민 교육·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 통일·안보·경제 교육, 환경 교육 등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당해 연도의 교육 시책 등이 연수 과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셋째, 교관이나 교수들이 계속적인 자체 연수와 자기 연수로 자질 향상에 힘쓰고, 좋은 연수 과정을 짜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가 신나고 유익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넷째, 연수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

2. 교육청에 대한 연수원의 희망 사항

첫째, 현직 교직원의 교육 연수를 담당 지도하는 연수원은 교사의 교사가 일하는 연수 전문 기관이므로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인식되기를 바란다.

둘째, 교관이나 교수들은 자기 연찬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수 계획의 수립·실천·평가를 행하며, 연수생들의 수업 지도와 상담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율성이 존중되기를 바란다.

셋째, 교육청의 연수 업무 담당 부서가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 총무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번거로움이 있어 통합 부서가 있기를 바란다.

넷째, 연수 5개년 계획 수립, 연간 연수 계획 수립 등 연수에 관한 주요 사안에는 연수원과의 사전 협의를 바란다.

3. 연수 담당자 협의회 구성 운영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은 교육청의 희망과 연수원의 희망이 잘 조정되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청 초등교직과·중등교직과·총무과와 연수원 교수부·운영부 또는 교무과의 연수 담당자로 구성되는 연수 담당자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조정이 어려운 사안들은 과

장과 부장으로 격상하여 협의하면 될 것이다.

시·도 교육청, 시·도 교원연수원, 대학 부설 연수원간의 기능 분담 방안

먼저 연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기능과 시·도 교원연수원 및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의 기능을 살펴본 다음, 연수원간의 기능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도 교육청의 기능

시·도 교육청은 시·도 교원연수원을 설치한 지방 교육 행정 기관으로 시·도 교원연수원의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비치, 재정 부담, 직원 배치 등을 관리하고, 지방 교육 행정 기관 직제(대통령령)와 시·도 교육청 사무 분장 규칙(교육 규칙)에 의거 관할 교육 기관 및 학교 교직원의 교육·연수를 관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직원의 정신 교육, 인사 관리 교육, 입시 관리 교육, 생활 지도·진로 지도 교육 등 교육 시책상 차원의 단기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2. 시·도 교원연수원의 기능

시·도 교원연수원은 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관내 초·중등 교원과 전문직,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연수의 종류는 일반 연수, 자격 연수, 직무 연수이며, 연수 경비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3.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의 기능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은 교육법과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기관으로서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 초·중등 교원의 일반 연수와 자격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이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고, 소요 경비를 부담하여 대학에 연수를 위탁하는 위탁 연수를 한다.

4. 시·도 교원연수원과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간의 기능 분담 방안

앞에서 논의한 기능을 보면 교육청은 전혀 다르나 시·도 교원연수원과 대학 부설 초·중등연수원은 일부 그 기능이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도 교원연수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초·중등 교원의 현직 연수는 대학 부

설 초·중등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해 왔다.

그러던 것이 시·도 교원연수원이 설치된 후로는 좋은 환경과 성인 교육에 적절한 시설·설비의 구비, 우수한 연수 운영 요원 및 지원 인력의 확보, 교육 현장과 직결되는 연수 과정 운영, 여러 대학으로부터의 교수 초빙·사회 각계 각층의 자인인사 및 교육 현장의 선배 교사 등 다양한 강사 구성으로 연수의 성과를 높게 되자, 연수 관장 기관인 시·도 교육청은 거의 모든 교원 연수를 시·도 교원연수원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연수의 틀이 정착이 된 상황에서는 종래 기능의 재조정보다는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에서 새로운 기능을 맡는 것이 더 발전적일 아닐까 생각한다.

예컨대, 예체능 전담 교사의 양성 과정,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 전문 교과목의 특수 분야 심화 과정, 대학의 우수 인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험·실습·실기 프로그램, 통신 연수, 연수 요구 조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다.

결론

먼저 시·도 교원연수원의 개선 방안은, 첫째, 제도상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①교관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다. ②연수의 시기를 학기 중에도 확대 실시하는 일이다. ③현직 연수를 평생 교육과 연관지어 임용이 예정된 때부터 정년 퇴임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다.

둘째, 운영상 문제의 발전 방안으로 ①연수 요구 조사를 통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발하는 일이다. ②전공 교과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이 참신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접근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③연수의 방법을 주입식 강의 중심 교육에서 참여식 자율·탐구 중심 교육으로, 교재 중심에서 다양한 첨단 기기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④연수 성적의 평가를 연수원도, 연수 과정, 연수 기관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일이다.

다음 시·도 교육청 및 교원연수원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은 교육청 및 연수원 연수 업무 부서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는 연수 담당자 협의회를 조직하여 정례적으로 협의·운영하는 일이다.

끝으로, 시·도 교육청, 시·도 교원연수원,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간의 기능 분담 방안으로는 교원 연수의 틀이 정착된 상황에서 종래 기능의 조절보다 대학 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에서 예체능 전담 교사 양성 과정,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 전공 교과목의 특수 분야 심화 과정, 통신 연수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원 연수의 유인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최상근

교원 연수가 교원 전문성의 유지·신장, 그리고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의 유인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교원 연수는 교사 자신의 책임이 강조·주지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연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학교 현장에서의 연수 참여 저해 요인 제거 등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교원 연수가 교원 전문성의 유지·신장, 그리고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의 유인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교원 연수는 교사 자신의 책임이 강조·주지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연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계 법령 및 제도, 학교 현장에서의 연수 참여 저해 요인을 제거해 주고, 둘째, 연수 과정(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고, 그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셋째, 연수 결과의 활용은 승진 제도 위주에서 벗어나 교원 전문성의 활용과 학교 현장에서의 우대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원 연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교원 연수의 유인 체제들이 교사들로 하여금 연수를 받고자 하도록 하는 데 적절히 기여하여 왔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원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실태를 간단히 살펴본다.

교사들이 교원 연수에 참여하는 데 따른 접근의 문제, 교원 연수 제도 및 운영의 실제 측면, 그리고 그 연수 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 교원 연수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자격 연수의 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담당 강사진, 성적 평가 방법, 물리적 여건 및 환경, 프

그램 사전 홍보, 유인 체제 등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연수의 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 강사진, 성적 평가 방법, 물리적 여건 및 환경 프로그램 사전 홍보, 유인 체제 등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교사들은 교원 연수 제도 및 운영 측면 가운데 비교적 많은 영역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2. 교원 연수 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

교원 연수에 참여한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취득한 점수 결과, 이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의 경우 사서교사 또는 교도교사 자격 연수 결과를 교감 승진 대상자 선정시에 반영하는 관계로 인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교원 연수를 승진과 관계시켜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일반 연수 결과는 교감 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 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 결과가 있으면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연수마저도 그 결과 활용이 승진 구조에 크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공무원승진 규정,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2항4호 참조). 따라서, 자격 연수와 일반 연수의 결과 활용이 모두 승진 위주의 유인 체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에게 연수는 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교원 연수에서의 참여·접근 측면에 대한 인식

교원 연수에서의 참여·접근 측면에서의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우선 교사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교원 연수에 참여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의 기회가 교사들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반드시 받아야

할 연수 참여의 의무 규정 같은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단지 교감 이상으로의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두 번 연수만 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교직 사회 내에서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교원과 대부분의 사립 학교 교원들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이외에 다른 연수를 받을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된 면담 연구 등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교원 연수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원 연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복무의 하나이다.

둘째, 교원 연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원 연수는 교육 발전을 위한 것만큼 국가가 소요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교원 연수를 받으면 무언가 반대 급부의 보상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나이가 들어서는 승진을 위하여 할수없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4. 교원 연수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환 방향

교원 연수의 본질적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의 유지·향상 및 창출을 도모하고, 그를 통하여 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원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기본 시각과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 전환의 방향을 간략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이 방향들은 이하에서 기술될 유인 체제 개선 방안 수립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첫째, 교원 양성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원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외부인에게 인식시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함으로써 그만큼 중요하며, 이에 보다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둘째, 교원 연수는 교원 전문성의 유지, 수준 제고, 그리고 새로운 전문성의 개발과 창출 등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변질·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원 연수는 학교나 국가(교육 행정 기관)가 주도하여 타율적으로 창출·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교원들의 참여를 조성·촉진시켜 나가야 하며,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연수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사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평생 교육 의지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최희선의 5인, 1989:203-215; 정태범, 1988:51).

넷째, 교원 연수는 타 직업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능률주의, 업적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교직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연공주의 및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 연수 유인 체제의 개선 방안

1. 교원 연수 참여·접근 측면

1. 학교 수준에서, 그리고 교육 행정 기관 수준에서 교사들이 교원 연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1. 교사들의 연수 과정 참여 여부를 새학년도 개시 전에 조사하여 학년 배당·학급 배당·업무 배당에 반영한다.
 - 1-2. 일정 수 범위 내에서 교원 연수로 인한 유급 휴직 및 임시 교사 채용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한다.
 - 1-3. 장기 연수가 예상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으로 대기 발령을 내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결손을 미리 예방한다.

학교 단위에서 교원 연수 차출로 인한 수업 결손의 발생으로 교원 연수에의 참여가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당 교사가 교원 연수에 차출되거나 교사가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입시 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교원 연수 차출이 있을 때마다 빈번하게 차출되어 연수 전담 교사라는 라벨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상근

서강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 한국교원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대·중앙대·한국교원대 등 강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으로 있음. 저서에 《한국의 교육관》의 다수가 있음.

한편, 학교장은 교원 연수 차출이 내려 왔을 때, 그에 따른 수업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임시 교사 채용 권한이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3조)에 교사들을 교원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2. 교사들이 교원 연수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연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도록 한다.
 - 2-1. 교사가 자비로 석·박사 과정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사와 대학이 시작시 협의·승인 과정을 거쳐서 자율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2-2. 교사가 자비로 방학 중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하면 교육법시행령 제 66조 제 2호의 근무 규정 위반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해당 규정에 단서를 삽입토록 추진한다.

자기 부담으로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하여 학력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으나, 이를 학교 조직 관리 및 통솔의 차원에서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교사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연수 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교원들의 석·박사 학위 과정의 재학 문제를 근무지 이탈로 규정·해석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장의 교원 연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동·하계 방학 중 교사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해외 여행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교사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데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다. 동·하계 방학 중 해외 여행을 억제하는 근거로서 교육법시행령 제 66조 제 2호와 총무처 예규 제 215호(공무원복부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공무 외의 국외 여행의 경우 여행 기간은 개인별 연가 등 휴가 기간 내로 하되,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 66조 제 2호의 휴업일수를 포함한다.”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일로서, 학기 중 교사가 연가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비 부담으로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학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교육 최신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사후 이를 교내 연수에 활용한다면 크게 효과적일 것이다. 예산을 절감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원 연수의 제도 및 운영 측면

3. 교육 행정 기관 및 시·도 교원연수원은 학교 형편, 교사 요구 및 현장의 필요 등이 적절히 반영된 연수 기회 제공과 연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방안의 수립을 강구하여야 한다.
 - 3-1.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연수 과정을 위하여 시·군·구 교육청에 교사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시·도 교원연수원과 교육연구원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 3-2. 단기 일반 연수(여기에는 대체로 국가 정책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이 해당되고 있음)는 가급적 정보·통신기기 및 CCTV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 3-3. 연수 과정의 내용 및 실시 시간수, 그리고 연수 대상자들의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분할 과정 방식으로서의 연수의 실시를 고려한다.

교원 연수 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 연수에 참여시 수업 결손이 크게 문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연수 과정이 제대로 개설되고 있지 못하다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수 과정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 교원연수원 및 시·도 교육연구원의 인력과 자원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구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교사의 현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센터가 된다면 기관 연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박덕규·임연기, 1986; 손경수, 1988). 또한, 교육 전문직(장학직과 연구직)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사립 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교직 전문성의 신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각종 수많은 단기 연수에 차출되어 교직 수행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사들은 이 과정을 잡무로 분류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감히 출석 수업 매체를 지양하고, 근무 학교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방송 매체 및 인쇄 매체 등을 활용하여 연수를 실시한다면(교육정책자문회의, 1991; 최영애, 1991; 교원단

체총연합회, 1992), 학교 수업의 결손을 막고, 학교장과 교사의 연수에 대한 책무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원 연수는 거의 모든 과정이 집중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집중식 출석 수업 운영 체제에서는 학교 현장의 수업 결손 문제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수 과정의 성격, 실시 시간수, 그리고 연수 대상 교사들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분할 과정으로 운영한다면 첫째, 집중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수업 결손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둘째, 연수 과정에서 터득한 지식 및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차후 연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4. 시·도 교원연수원에서는 일반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새롭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교사들의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4-1. 모든 연수 과정을 자격 연수와 일반 연수로 구분하여 통·폐합하고, 일반 연수 과정을 교양 과정, 교직 및 직무 과정, 교과 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과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4-2. 모든 일반 연수 프로그램을 16시간 1단위(1학점)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고,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이수한 프로그램 및 이수 학점을 기록한다(누가학점제).
 - 4-3. 모든 일반 연수 과정의 교양 과정, 교직 및 직무 과정, 교과 과정별 연수 프로그램들을 교직 경력 및 직급에 맞추어 받을 수 있도록 위계화해 구성한다.

일반 연수를 받아 본 교사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이 없어서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혹, 새로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것이라는 선입견에 가리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 간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연수 참여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반 연수 이수 인정 기준이 6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강좌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감을 주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반 연수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교양 과정, 교직 및 직무 과정, 그리고 교과 과정이 그것이다. 각 과정별로 연수 내용을 위계화하여 편성함(교육정책자문회의, 1991)으로써 프로그램간에 내용의 중복

을 피하고, 또한 교사 개인이 자신이 이수한 수준을 명쾌하게 알게 함으로써 차후 이수해야 할 연수 프로그램의 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 과정 연수의 경우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연수는 의무화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교직 및 직무 과정에서의 연수 가운데 교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훈련과 같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별도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사 자료에서 누락되고 있는 60시간 미만의 단기 일반 연수 과정의 이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 과정 이수를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1단위를 1학점 이수한 것으로 하여 프로그램명과 이수 학점수를 인사기록카드에 누가 기록(김신복 외 3인, 1991)해 나간다면, 교원 인사 배치시에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5. 모든 연수 기관에서는 연수 성적 평가 결과를 기재할 때에 절대 평가 점수와 상대 평가 점수를 동시에 기록·보고하도록 한다.

앞으로 교원 연수를 받은 횟수(학점수)도 중요하고, 교원 연수의 비중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에서 볼 때 연수 성적 평가는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첫째, 연수 과정 이수의 성패, 둘째, 절대 평가 점수, 셋째, 연수 대상 집단 가운데에서의 전체 순위, 넷째, 백분위 점수 등 네 가지 평가 자료를 기록·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연수 성적에 대한 평가 자료는 그 연수가 종료된 지 한참 지나서야 활용하게 되므로 그 평가 자료를 인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사의 연수 성적을 보았을 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교원 연수 결과 활용 측면

6. 교원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직에서 존속할 수 없도록 연수 결과가 다각도로 활용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6-1. 교원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주임교사, 교육 전문직, 교감 및 교장 등의 임용에서 우대되도록 한다. 이 때 각 기본 이수 학점과 과정을 설정·제시하여야 한다.
 - 6-2. 교원 연수를 많이 받아 일정 학점을 취득한 교사에게는 가칭 직능 수당(직무 능력 향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6-3. 교원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은 수업 지도 시간수를 배려하여 교내 교사 연수 담당자 및 초임 교사 지도 교사로 적극 활용한다.

교원 연수란 학교에서 할애하여 준 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노력하여 전문성을 연마하는 것이라 인식할 교사들에게 심어 주며, 그와 같이 평소에 노력한 교사가 교단이든 교육 행정 기관에서든 우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새로운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저 교직 근무 경력만 높으면 교원 전문성이 확보되고, 일반 사회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과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연공 만능주의 가치관은 교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교직 사회에도 타 직업 사회에서와 같이 능력주의 가치관이 새로이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유능한 사람이 교직을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유능한 사람이 스스로 좋아서 교직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임교사, 교육 전문직, 교감, 교장은 각종 교원 연수 과정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력을 연마한 교사가 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유인 체제 개발

아래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몇 가지 개선 방안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기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7. 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에는 엄격한 평가 인정 과정을 거쳐서 연수 프로그램 과정별로 연수 기능을 부여하며, 연수 인정권자는 수시로 연수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앞으로는 일반 연수에 한하여 연수 프로그램 단위 과정별로 희망 대학을 공개로 접수받아서 평가 인정하도록 한다(최희선 외 5인, 1989: 22-24, 216-223).

시·도 교원연수원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과정의 경우 양질의 연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 기관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들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수렴해야 하므로 교원들의 요구가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체나 일반 연수 기관에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와 학교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8. 점차 연수 경비 부담의 주체를 국가로부터 교사 개인에게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미명하에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는 의식이 팽배해졌고, 따라서, 그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고 있는 교원 연수의 경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표1>에서 약 20%의 응답자가 교원 연수 경비 중 일부 부담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아진다.

교원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규정은 우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임의 규정이라 함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 연수 경비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전액 지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 집행 의사가 교사들에게는 교원 연수의 경비 부담 주체를 국가로 고정 관념화하는 효과를 초래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교원 연수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책무까지도 국가의 관장 사항으로 인식하게 하여 교사들이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전문직 사회는 물론이고, 여타 직업 사회를 막론하고 직업인의 능력은 자신의 책무이지 국가나 소속 단체의 책임 사항이 아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은 그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주의 사고는 전문직 사회에서 더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 사회의 일반적 추세를 감안하여 교직 사회에서도 교원의 전문성의 신장과 관련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교원의 책무 사항으로 귀착시켜 가는 새로운 풍토의 조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직 사회는 물론이고, 여타 직업 사회를 막론하고 직업인의 능력은 자신의 책무이지 국가나 소속 단체의 책임 사항이 아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은 그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주의 사고는 전문직 사회에서 더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 사회의 일반적 추세를 감안하여 교직 사회에서도 교원의 전문성의 신장과 관련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교원의 책무 사항으로 귀착시켜 가는 새로운 풍토의 조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1) 교원 연수 경비 중 일부 수익자 부담에 대한 의견

의견	인도	%
찬성	242	19.7
반대	989	80.3
계	1,231	100.0

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교사들의 자격 갱신과 관련 있는 12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부터 교사가 일정 부분 소요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교원 인사에서 선연수, 후임용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활동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간다.

현재 교직 사회는 각종 자격과 보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지위에 합당한 구비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교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인사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치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리고 교원 자격과 보직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는 전문성의 보유를 확립시켜 주는 교원 연수에 대한 이수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교도교사 자격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교도주임을 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5항: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과는 달리 그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를 교도주임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한다. 물론, 교도교사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있으면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도교사 자격 연수 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교도 활동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인식,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본 연구에서의 면담 연구 결과, 1993. 5.).

한편, 학교 현장에서 각종 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설정, 활용되고 있는 주임교사제의 경우에서도 그것이 법정 주임이든 비법정 주임이든간에 해당 주임 연수 과정의 개설 및 이수자에 대한 발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주어진 일반 직무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업무 분장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연수 과정의 개설과 이수, 그리고 그후에 필요한 인사 조치 등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극히 일부 사립 학교의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교감 및 교장의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원이 먼저 발령을 받은 후에 나중에 필요한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연수 과정의 이수가 승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수 참여 자체 및 효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발령과 전문성 보유의 시간적 격차로 인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교직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격 지위와 업무 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연수 과정

을 개발·개설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만이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운영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연수, 후임용 체제가 확립(최희선 외 5인, 1989: 20; 교육정책자문회의, 1991; 김신복 외 3인, 1991)될 때 연수에 대한 의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10. 교원 연수 담당 기관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강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0-1. 교원 연수에서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유능한 강사 인력의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도록 한다.

10-2. 교원연수원의 교관 요원으로 교직, 연구 및 연수 경력이 풍부한 현직 교원을 활용한다.

10-3. 교원연수원의 교관 요원을 전보 대상 요원, 상근 요원, 겸임 요원 등으로 구분·운영한다.

교원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 요원이 숫자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전국 시·도 교원연수원 근무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본 연구의 면담 조사 결과, 1993). 이 같은 수적 부족 현상은 교원 연수가 동·하계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하다고 한다.

한편, 교원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교관 요원들이 모두 전보 대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관으로서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겨를이 없이 근무하다가 실전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전보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원연수원의 교관 요원의 구성 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전문성을 수렴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겸임 요원(최희선 외 5인, 1989: 216; 교육정책자문회의, 1991)은 교원 연수 경험이 많은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겸직 발령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가능함).

한편, 현직 교원이 교원 연수 담당 강사로 활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상향된 대우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교원연수원의 담당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현직 교사는 최하위 등급인 시간당 25,000원이 지급되고 있어서 교원의 사기를 교직 사회 내에서 약화시키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쉬운 환경 보호는 침 안 빨고 껌 안 버리기

사학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방안

서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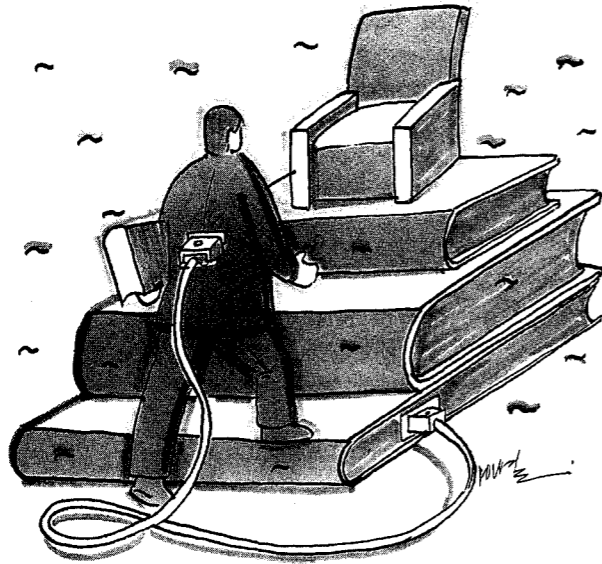


그림: 윤종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양질의 교사가 필요하며, 또한 직전 교육과 현직 연수 교육도 중요하고 필요함은 물론이다. 어떻게 하면 현직 교원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고, 그들이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까, 교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지원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선 풀어야 할 선결 과제이다.

중등 교육과 사학 교원 연수의 의의

교육의 발전 방향은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래 사회는 전문화 시대, 다양화 시대, 과학 정보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우리는, 치열한 국가 경쟁 속

에 처해 있으며, 내적으로는 우리의 민족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과학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장래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약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 상황에 알맞은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은 바로 국력이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의 승패가 바로 교육에 있고,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쟁적으로 교육을 개혁하고,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개혁은 곧 교원의 질적 향상과 자기 혁신을 뜻한다. 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기 연찬과 연수, 이를 지원해 주는 교육 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은 어느 나라보다도 취학률과 교육열이 높았고, 양적인 대중 교육에서는 성공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이 장래의 국가 사회 각 분야의 발전과 영향을 생각해 보면 양적 교육은 질적 교육에 비해 그 효과면에서 크게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50여 년간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그 발전 정도에 있어 빈약함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를 맞아 신한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육 개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 교직자들의 자아 혁신이요, 교원 연수라고 생각되기에 교원 연수에 대한 현상향과 문제점 등에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중등 교육

한국 중등 교육은 그 동안 대중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통하여, 국가 근대화 및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많은 인적 자원, 즉 인력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교육의 내실과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데는 너무나 소홀하였던 것이다.

그간 우리 중등 교육은 자율성이 없이, 획일적인 교육 행정과 빈약한 교육 여건, 이기적으로 과열된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지·덕·체·예·기의 조화로운 인격 형성과 인성 개발을 다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충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 수업으로 개개인의 잠재력,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 해결력을 기르지 못하는 교육이 되어 왔다.

1970년 이래 우리 중등 교육은 무작위 추천된 학생들을 근거리 배정된 학교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여 학생은 학교 선택권,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잃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질적인 학생들은 구대 의연하고도 획일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 학습 능률도 떨어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 정책과 교육 환경, 교육 방법과 교육과정, 학교 운영과 학교 정책이 언제까지 이대로 지속될 것인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중등 교육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러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각기 다양하고 특수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다양한 사회에서 개성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산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에 있으므로,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성이 다른 각 개인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개인의 성장도 있고,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이 있고, 국가의 성장도 있을 것이다.

우리 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과 열성이 있는 교원이 새롭고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으로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풍토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막중한 책임과 희생, 정열과 성실로써 학생들에게 인류 사회의 자유와 평화, 윤리와 도덕, 삶의 보람과 기쁨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중등 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재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으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시 교육과 관련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한 획일적인 수업 방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경쟁심만을 조장시켜, 학생들의 잠재력, 사고력, 창의력, 해결력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인성, 사회 협동 정신과 봉사 정신, 집단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이다. 우리는 지금 열악한 학교 시설과 교실, 빈약한 교육 기제, 부족한 교육 재정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 학문과 연구에 대응할 수 없는 교육 환경 여건이 되고 말았다. 값싼 교육으로 과연 어떻게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질 좋은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이러한 망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셋째로, 각종 교육의 체계화 문제이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볼 때, 교육은 크게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 유아 교육, 국·중·고·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교 교육, 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생·계속·성인 교육 등이다. 과연 이런 교육의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잘 연관되어 상호 보완되고 있는지 치밀한 중등 교



서연호

서울대 문리대를 나와 미국 샌트루이스 대학 원 석사, 독일 스트트가르트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음. 한양대 부교수, 한국사학 법인연합회, 중등법인연합회 이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역임. 현재 서울 송문고 교장. 저서에 <현대 물리학>의 다수가 있음.

육의 계획·과정·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문제가 다. 각종 교육의 비연계되어 있는 방입 상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2. 사학

한국 사학은 공교육과 함께 그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민주 시민 육성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조국 광복 이후의 폭발적인 교육 수요를 사학이 분담하여 왔으며, 현재 사학의 비중 또한 중학교 30%, 고등학교 60%, 전문대학 90%, 대학교 75%에 달하고, 기타 각종 학교는 거의가 사학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학의 비중과 역할을 무시한 교육 정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며, 교육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사학은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특수성과 자율성, 독자성이 없으면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립 학교법에서도 “사학은 그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 (제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은 학교 운영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 특수성, 자율성,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립에 종속 내지는 준공립화의 위험을 극복해야 한다.

사학은 국가의 위기와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존재 가치가 빛났고, 희망과 재기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사학은 근래에 와서 교육의 공공성·보편성만을 우선시한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 내용이 획일화되었고, 엄한 규제와 간섭, 지시와 감독만을 받았을 뿐, 부족한 교육 재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의무와 명분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사학도 미래 지향적인 사학 특유의 다양한 각종 교육 내용과 특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교원

교육의 3대 요소는 학생과 교육 내용과 교원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원은 뚜렷한 교직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연찬으로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교원은 학생의 사표로서 대사에 모범적이어야 할 것이며, 대화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교원은 인간을 육성하는 특수한 전문직이기에 자격증이 없이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직전 교육을 받고 교원 자격을 얻게 된다. 그 종류는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도 상담 교사, 교감, 교장, 이 외에도 실기, 양호, 교련, 사서, 특수 교사 등 매우 다양하며,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임용된 후에는 자격 연수를 받아 승급, 승진이 된다.

교원이 부족한 시절에는 임시 중등 교원 양성소도 있었으나, 교원은 국·공립 사범 대학이나 교육 대학을 마치면 성적과 관계없이 무시험 또는 순위 고사도 임용되었으며, 현직 교원의 과반수 이상인 일반 대학 출신 교원들은 대학교 평균 B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교직과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순위 고사나 면접을 통하여 교직에 근무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과잉 양성되었고, 교직 기피 현상으로 우수 교사 채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어떠한 시험도 없이 한번 받은 자격증으로 정년 까지 자연 승급하는 체계에 따라 구태 의연한 매너리즘의 폐단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과 제도,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여건의 향상 교육 목표와 방법, 교육 예산의 증액,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 실력 향상, 등에 관한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 한다. 이는 곧 교원에 의하여 완성되어진다는 것이다. 한 교원은 여러 학생의 생애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교원의 자질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의 개혁은 곧 교원의 자기 혁신·개혁과 일치한다.

현재 사학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 이외에 온갖 연수와 잡무에 피로해 있다. 교원에게 있어 수업은 교육의 생명이고, 교직 생활의 전부이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과 대화하고 자신을 재평가받는다. 그러므로 수업 방법과 기술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 학급 50여 명의 학생들이 이질화되어 있어 학습 지도, 생활 지도가 아주 힘들다. 교원 1인당 주당 정규 수업 시수가 초등 25~31시간, 중등 19~22.5, 고등 17~20시간이다. 더욱이 보충, 자율 학습 시간까지 합치면 주당 30~40시간이나 된다. 더구나 학사 행정, 공문서 회신 보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 요청, 그 이외도 교내의 잡무, 특별 활동, 교외 생활 지도, 연수, 출장, 행사 동원 차출, 회의 등 수업 외의 잡무 부담이 너무 많아 본연의 수업 준비,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흔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교육의 부실로 돌리거나 그 해결 방안을 중등 학교 교육에서 찾으려 함으로써 교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양질의 교사가 필요하며, 또한 직전 교육과 현직 연수 교육도 중요하고 필요함은 물론이다. 어떻게 하면 현직 교원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우어 줄 수 있는가.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까. 교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사학 교원 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1. 연수의 필요성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현중 등 교육의 문제, 사학과 교원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면 교원 연수의 필요성은 재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교육 대학, 사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교원이 되기 이전에 우선 교직에 대한 적성과 인성 검사와 면접, 실기 고사와 신체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미진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반수가 넘는 비사범계 출신 교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자질 향상, 전문성 신장 등은 현직 연수를 통하여야만 재평가될 수 있다.

둘째, 교원을 위한 예비 교원의 선발, 양성, 그리고 임용된 이후, 모든 현직 교사는 계속적인 각종 연수를 통하여 교직 전문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한번의 교직 과정 이수 이후 평생 자격증을 얻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고 나면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정년(65세)까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셋째, 학문과 지식이 팽창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사회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보잘것 없이 되어 사회 주변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지식이 될 것이므로 계속적인 지식과 기술이 보충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육 내용도 달라지고, 교육 기능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학문과 지식, 이론과 기술을 배우며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절실히 요구 된다. 수업 방법도 입시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예습, 실습, 관찰, 발표, 토론 결론,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학습 지도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 교육은 어떠한가? 가정 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어 자녀의 재질과 관심을 교육적인 전문 기술로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녀를 지도할 능력이 없는 결론 가정이 늘고 있고,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습 지도, 생활 지도는 물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고, 이에 상담 지도까지 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종 행정 업무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과 교육과정 내용도 바뀌며, 또한 새로

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학교라는 집단 교육 활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원 스스로 연구하고, 연수를 통하여 전문가와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교원 현직 교육의 주된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의 보충, 보완과 학문적인 능력 배양 이외에 교직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직무 연수, 각종 특별 연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관련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교육 공무원은 체계적이고 연관된 각종 일반 연수, 자격 연수, 직무 연수, 기타 특별 연수를 필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연수 참여 현황

현재 일선 학교 교원 연수 중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것은 일반 연수로, 내용은 국어, 윤리, 영어, 일반 사회, 과학 및 실과 교사 연수였다. 주로 교육연구원, 연수원, 교육원, 직업 학교, 학교 강당, 전산 학원, 과학원, 국립 극장에서 실시하였다.

단기 특별 연수로는 종류도 다양하여 경제, 새마을, 통일 안보, 독서, 교과서 개편, 인구 교육, 체육, 국민 정신 교육, 성 교육, 수련회, 연찬회, 영어 회화, 컴퓨터 교육이었으며, 주로 교육원, 연수원, 학교 강당, 통일연수소, 자유총연맹, 새마을 본부 등에서 실시되었다.

자격 연수는 각 과마다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로 주로 서울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직무 연수는 교도, 교감, 교장 자격 취득 연수 이외 주임 연수와 윤리 연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지구별 장학 협의회 연수 모임을 각 과마다 실시하였고, 수시로 학교마다 자체 전달 연수와 자체 연찬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외 연수와 국내 산업 시찰, 땅굴 견학 등의 연수가 주어져 있다.

3. 각종 연수의 문제점

교원 연수는 교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 투철한 사명감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나 교원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욕과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연수 후에 기대되는 효과나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가. 연수 계획

연수 계획, 즉 종류, 과목, 내용 시간, 기간, 장소 등을 연수 이전에 알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할당하여 차출하므로 교원이 선택할 여지도 없고, 강제 연수라 준비도 없이 참석하게 된다.

또한, 각종 연수의 선발, 평가, 성적 등이 공사립간에 동등하게 처리되지 않고, 연수마다 다르며, 국공립 중심의 연수로 진행되는 듯하여 사학 교원은 소외감을 느낀다. 하기 방학 중 무더운 날씨에 대강당에서 수많은 연수생에게 심어 일찍 형식적으로 듣게만 하는 강의식, 일방적인 강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나. 연수 내용

일반 단기 연수는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되어 있고, 연수 내용이 전공 과목과 무관하며,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일방적인 강의식 내용이다. 자격 연수는 연관성이 없이 연수 과정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구태 의연한 강의식 방식이다.

우리 나라 교육 현장에 맞지 않은 선진국에 관한 교육 이론 강의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교원 자신이나 교직 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단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다. 사립 학교와 관련된 문제

예측하지 못한 각종 연수 회의가 학기 중에 수시로 있을 때는 수업 결손과 학교(담임) 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각종 연수에 따른 자체 경비 보조나 업무 경감 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연수 이수 성적에 따른 호봉, 승진,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없다. 사학의 특성상 일반 연수는 승진, 혜택, 자격 취득에 관계없는 연수이므로 아예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연수 정책

승진 규정에 의하면 일반 연수와 자격 연수의 평점이 국공립 교원에게는 승진에 한 번 반영되나, 승급이 너무 요원한 것이어서 경력과 근무 평점에 의존하여 20년 경력 이전에는 아예 포기 내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학 교원에게는 각종 연수의 선택과 참여 기회가 적어 이수 후 우수한 성적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보조, 승급, 포상 등의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수 참여에 대한 의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수 년간 연수를 받지 않은 교원도 있고, 기피하는 실정이다.

연수 의욕 고취 방안

각종 과목별 연구회와 학회에 참여하여 연구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없고, 연수 참여에 따른 출장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며, 사학은 그나마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실비 보상도 못되는 형편이다. 현장 학교 교육에 관련된 연수는 더욱 확대 보급되도록 각종 연수의 많은 기회를 사학 교원에게 부여해야 하고, 특히 사학 교원을 위로하기 위한 시찰과 해외 연수 견학 등은 공

사립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모든 연수는 타율적으로 받아야 하는 귀찮고 실증하는 지루한 연수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참여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수 내용이 필요하고 유익하며, 즐겁고 보람 있는 연수로서 학교 현장에 반영되어 학교 교육의 변화가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학 교원 측면

가. 예고 없이 강제로 치출되는 연수가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학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내용이 되어야 한다.

나. 학기 중보다는 방학 기간에, 하기 방학보다는 겨울 방학 기간에, 지방 원거리보다 인근 교육 기관에서 소집단으로 교과목별, 희망 선택별, 흥미 취미별로 실시하는 연수라야 하겠다.

다. 연수 대상자 차출, 연수 평가가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립 동등한 연수 참가 경비가 국고에서 지원 지급되어야 하며, 우수 연수 이수자에게는 격려, 표창, 승급, 보직, 특전(시찰, 해외 연수) 등 혜택이 있어야 하고, 더욱 연구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라. 연수 계획, 내용, 희망 분야 등을 설문지 조사를 통해 사전에 예고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수에 필요한 문헌 자료 조사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여 희망자만을 선발하여 연수를 한다.

2. 사립 학교 측면

가. 연수 참가에 따른 출장비, 연수비, 연구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연수 경비 예산이 국고로부터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국공립과 같이 보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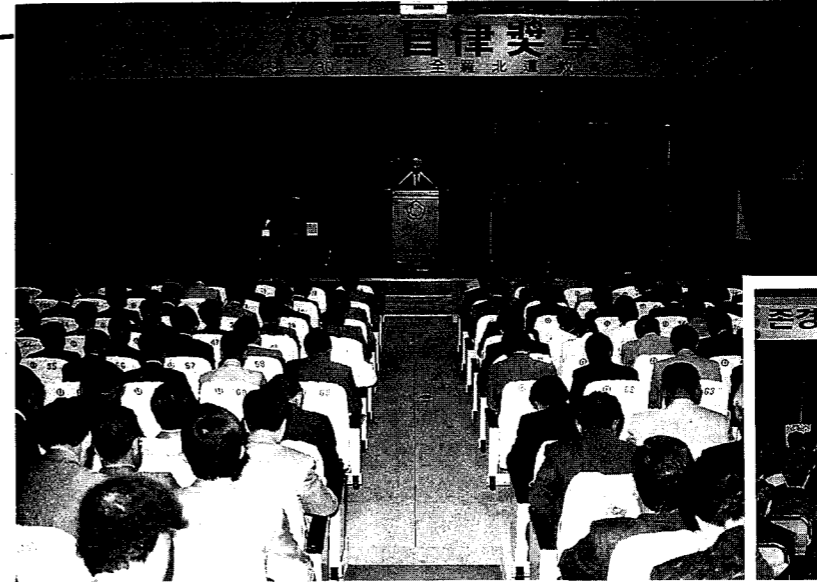
나. 학기 중 일과 시간에는 각종 연수, 시찰, 협의회 등 어떠한 출장도 없어야 하며,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 전달 연수도 가능하다.

다. 가능하면 사학 교원만을 위한 연수이거나 학교별, 지역별, 교과목별로 실시되되, 그 내용을 새롭고 충실한 것으로 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라. 교원을 위한 취미 소질 등 특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내용도 교육 현장 문제에 대비한 흥미 있는 연수라야 한다.

3. 기타 관련 사항

가. 연수 계획의 과목, 내용, 시간, 기간, 장소 등을 사전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전 교육과 현지 연수를 통한 수준 높은 교사 양성이 시급하다. 사진은 제주·전북도교육청의 연찬회.



여론 조사하여 교원이 희망하는 내용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유익한 연수가 되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나. 현직 교원 연수 제도를 자격, 승진, 보수 체계와 연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 국공립과 같이 사학 교원에게도 실비 현상의 연수 경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강의식보다는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 과목별 정보 교환, 협동 연구 등 새로운 연수 모형이 필요하며,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방안에 동참하는 자긍심을 교원에게도 주어야 한다.

제 언

1. 교육 공무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보면 자격증에 대한 효력의 문제도 있다. 평생 자격증이 아니라 각종 연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 발전에 지대한 영향과 효과가 있음에도, 연수 이수에 대한 필수, 의무, 강제 규정이 없고, 승진 규정에서 평점 점수 총 200점 중 연수 평점이 30점으로 적은 가산점 부여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교육 공무원(교원, 장학직, 연구직, 서무 행정 관리직 등), 특히 상위직 교육 공무원은 임용 전이나 직위 부여 이전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직무 연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원은 일정 기간(5년~10년) 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가 있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연관성 있는 단기, 장기의 의무 내지 필수 연수가 이수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무덤고 촉박한 하기 방학에 실시하는 강의가 아니라 교원들이 스스로 희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연수를

계절별(시험 기간)로 오후(야간), 또는 겨울 방학에 수시로 실시하여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이나 교육원, 연구원, 연수원 이외에도 라디오, TV, VTR 등의 시청각 자료를 통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인근 지역별, 교과목, 영역별, 전공별, 취미, 흥미 관심별, 직급별, 직무별로 연수가 실시됨이 바람직하다.

3. 공사립 교원 구별 없이, 실비 보상의 연수 출장비가 국고 부담으로 전액 또는 일부라도 공히 지급되어야 하며, 자격, 승진, 보수 등과도 연관되어야 한다. 연수 성적이 우수한 교원과 이들 학위 소유자에게는 해외 연수, 연구 혜택, 계속 연구 활동 보조비, 연구 발표 기회 부여, 교원 연수 강사, 유급 휴가, 승진 전보, 직무 연구 수당 신설로 급여 우대 등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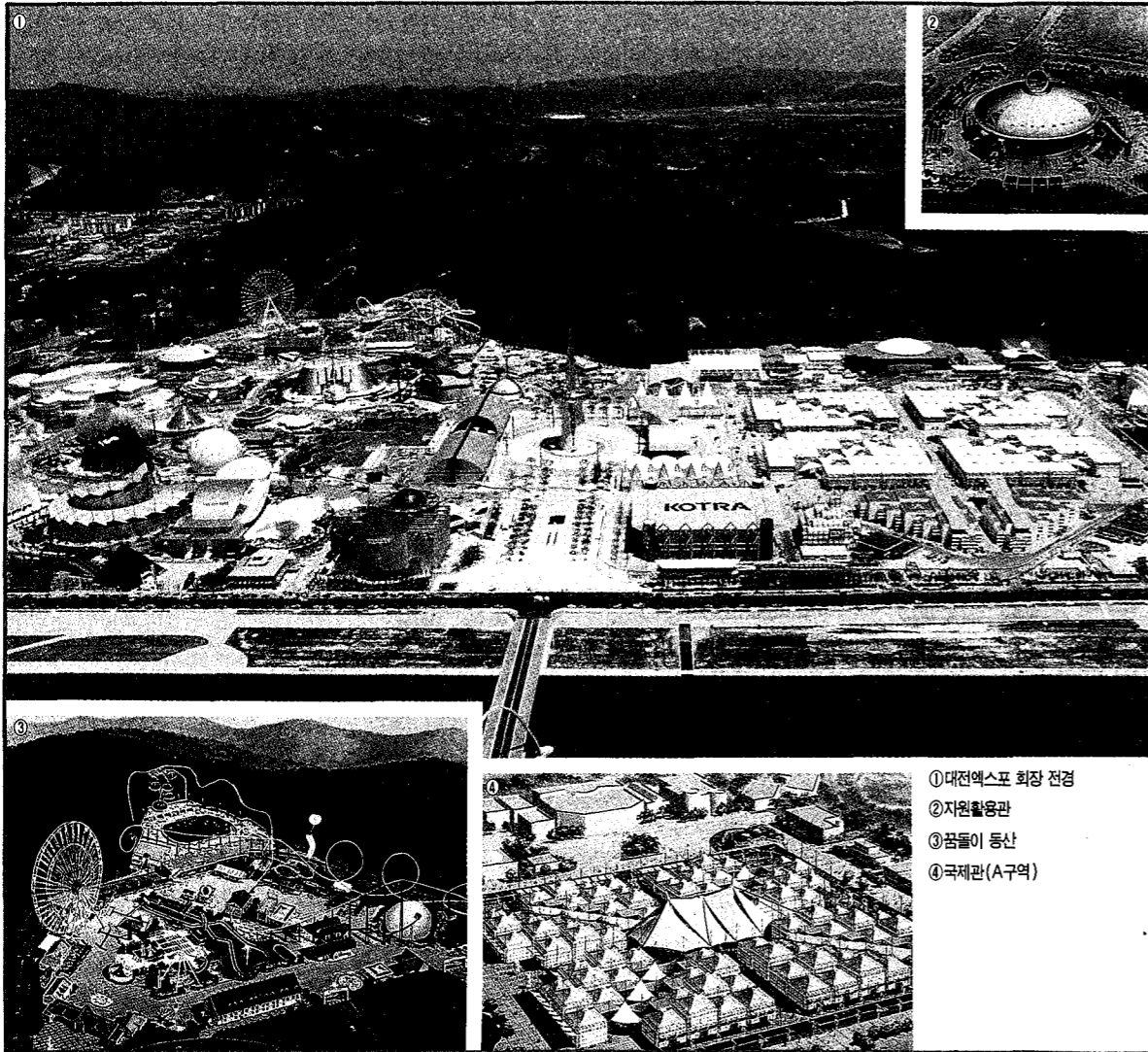
4. 교원 연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 교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학습 방법, 교과 내용 개발, 평가 방법, 교육 과정, 수업 방법 모형 개발, 교육 기자재, 실험 실습, 진로 상담에 관한 상호간 정보 교환 교육 문제 해결 토론, 협동적 연구 등에 관한 연수로 실제 필요하고 유익한 연수 내용이어야 한다.

5. 교원 현직 연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수원, 연구원, 교육원 등 각종 교육 기관을 임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각종 교원 연수, 즉 자기 연수, 일반 연수, 자격 연수, 특별 연수, 직무 연수, 기타 연수 등을 위하여 가칭 '교원교육연수원'을 전국에 지역별로 신설하고, 전문 연구 요원이 있어 각종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시로 교원들의 자문 지도 보조 연구 등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교원의 연구 연수 교육 기관으로서 편의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겠다.*

대전 EXPO 93, 현장을 안내한다

송 하 성

대전엑스포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6대주에서 1백 12개국과 28개 국제 기구가 참가, 각종 첨단 과학 기술·시설이나 고유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전세계 과학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8월 7일 개막하게 되는 경제·과학 올림픽 대전엑스포 현장을 미리 가 본다.



① 대전엑스포 회장 전경
② 자원활용관
③ 꿈돌이 동산
④ 국제관(A구역)

대전엑스포 어떻게 개최되나

대전엑스포 '93은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의 도룡 지구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며, 부제는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다. 박람회장 규모는 국제 전시 구역 7만 6천 평, 상설 전시 구역 7만 4천 평, 그리고 주차장 시설 등 장외 지역 12만 3천 평을 포함하여 모두 27만 3천 평에 달한다.

국제 전시 구역은 전체 구역을 '주제의 마당', '세계인의 한마당', '문화 창조 마당', '산업 번영의 현장' 등 4개의 소구역으로 나누었으며, 이 전시 구역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통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서 이룩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상설 전시 구역은 '인간과 통신의 세계', '탐험의 세계', '미래의 기술 세계', '환경과 자원의 세계' 등 4개의 소구역으로 나누어 수준높은 과학 기술을 통해 미래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복지 및 번영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보여 줌으로써 자라나는 신세대에게 과학 입국과 선진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자기부상열차 회장 내 운행

대전엑스포 '93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전시와 각종 행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첨단 기술로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회장 내의 교통 수단으로 운행하게 된다. 50~60인승의 이 자기부상열차는 열차가 레일 위에 떠서 달리게 되므로 소음과 진동이 없을 뿐더러 속도 또한 매우 빠른 차세대 꿈의 열

차이다. 머지않아 이 열차가 실용화되면 우리는 쾌적하고도 빠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박람회장 안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하여 달리는 이 자동차는 공해 없는 자동차로서 대기 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전엑스포의 마스코트인 꿈돌이 로봇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시 연출용 로봇을 개발하여 박람회장 안내, 사물 놀이, 농악 합주, 그림 그리기 등을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친근감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고, 박람회장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첨단 과학과 예술의 접목 시도

대전엑스포에서는 과학 기술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학술 행사로는 주제 심포지엄, 세계 한민족 과학 기술자 종합 학술대회 등이 열리며, 첨단 과학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창작 뮤지컬 등 공연 행사가 열리고, 국제 민족 축제, 엑스포 영화제, 팝스콘서트 등 이벤트 행사가 열리는 등 모두 50여 종의 행사가 2천 3백 회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정부관'을 비롯한 26개의 한국 전시관에서는 각 전시관의 소주제별로 실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일부 전시관,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과학 기술 전시 계획만 간단히 살펴본다.

과학 기술 전시 계획

'자동차관'에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태양전지자동차', 그리고 경주용차, 분리형 자동차, 6개의 다리로 걸어다니는 자동차 등이 전시된다.

'소재관'에서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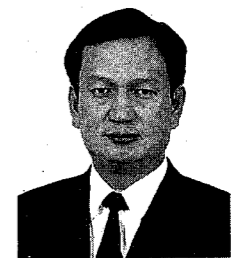
다란 굵기로 수십 톤의 무게를 지탱하는 '질긴 쇠'가 전시되는가 하면, 충돌 사고에도 탑승자가 보호되는 견고한 자동차, 기동이 없이 허공에 설치되는 고가 레일, 수상 도시와 해저 도시 등 신소재가 실현시켜 줄 미래 세계가 펼쳐진다.

특정 온도가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형상기억합금, 승용차를 들어 올리는 가스다란 탄소섬유, 섭씨 2백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금속보다 내마모성이 강하고 가벼우며, 충격에 강한 뉴세라믹스와, 이러한 신소재로 만든 신제품들이 선보인다.

새로운 에너지 세계 선봬

'자원활용관'에서는 무공해 태양전지, 태양광 가로등, 태양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주 광발전, 무공해 수소 에너지, 왕겨탄, 음식 폐기물과 인분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파도를 이용한 파력 에너지,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의 세계를 보여 준다.

'정보통신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궤도 차량 전시 기법을 보여 준다. 관람객들은 1백 55량의 궤도차에 나눠 타고,



송 하 성

성균관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파리 스펀느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음.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현재 경제기획원 기획국 서기관.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홍보부장.

초당 45센치의 속도로 4백 5미터의 궤도를 돌면서 9막 48장으로 펼쳐지는 통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세트, 로봇, 조명, 특수 효과, 음향, 영상 등을 통해 여행하게 된다.

‘테크노피아관’에서는 실물 크기보다 수십 배나 큰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체험하게 되고, 가상 현실 체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공의 인물과 널을 뛰거나 승부차기를 하게 되는데, 시스템 밖에서 보기에는 혼자서 허공을 헤매는 것같이 보이지만 본인은 실제 상황같이 느끼게 된다.

이 밖에도 각종 국내 전시관에서는 차세대 꿈의 열차인 ‘자기부상열차’, ‘과학위성’, ‘과학로켓’, ‘무인비행선’, ‘꿈돌이 로봇’, ‘사물놀이 로봇’, ‘조각 로봇’, ‘힛 펌프’, ‘페 타이어 아스팔트’ 등 과학 기술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대전엑스포의 주제를 구현하고, 과학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각국의 전시 계획

또한, 대전엑스포에서는 110여 개의 국가와 20여 개의 국제 기구가 각각 개성적인 전시를 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몇몇 나라의 과학 기술 전시 계획만 간단히 살펴본다.

‘프랑스’ 전시장에서는 과거의 프랑스 발명품, 루와시 공항의 제3터미널 모델, 공항 레이더와 신호 장치, 대중 수송 장치, 화물 수송기, 전기자동차, 공기 및 수질 측정 기구, 가벼운 도시 철도, 지하 터널, 신도시 개발, 원자력 발전소, 태양 에너지 발전소, 자연 가스의 해양 수송, 포장 및 재활용, 쓰레기 재생, 유독 물질을 없애기 위한 발전소, 수질 처리 공장, 부식 방지 장치, 수질 분석 기구, 오염된 토질 정화, 관개 체제, 인공위성, 해저 광케이블 통신 라인, 스마트 카드, 한국과의 기술 및 산

업 협력의 예, 환경 정책, 환경 관련 전문 공공 기관, 환경 보전을 위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 등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선보일 계획이다.

‘페루’ 전시장에서는 스페인 식민 시대 전과 식민 시대의 금·은 제품,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 점령 이전의 어업 기술, 그리고 만들어진 지 10세기가 넘는 것으로서 채소즙으로 만들어진 수공예 제품들을 보여 준다. 영상 물로는 페루의 생산 분야 현대화 정책과 새로운 투자, 기술 이전 등을 보여 준다.

‘태국’ 전시장에서는 비단 생산 과정, 보석 세공 기술, 과거 생활 방식, 난초 개종 기술, 난초 향수, 빛과 색상, 해양 동물 연구, 유전자 선택과 분리, 세계 최대 민물고기용 수족관, 산호 보호 현황 등을 보여 준다.

‘스리랑카’ 전시장에서는 기원 전 3세기에 고대 신화인이 세운 역사적인 수도의 수많은 유물, 세계 최초의 병원, 스리랑카의 역사가 기록된 비문, 스리랑카의 성서가 기록된 야자잎, 기원 전 2세기에 세워진 300피트 높이의 거품방울 모양 사리탑, 보석이 박힌 원형 유골집,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 석조 성(5세기에 건축), 불상, 석조전 사원과 수도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상, 전통 문양 장식, 금속 판화, 자유 무예 지대 등을 다양하게 보여 준다.

‘중국’ 전시장에서는 문방 사우, 우주 항공선, 로켓, 물가 전시관, 양쯔강 협곡 건축 모형, 자연 경관, 현대 생활 양식 등을 보여 준다.

관람객들은 세계 110여 개국의 독특한 전통 기술과 문화, 첨단 과학 기술 등을 돌아보면서 지구촌의 미래에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는 93일 동안 50여 종의 문화 예술 행사가 2천 300

여 회에 걸쳐서 화려하고 다채롭게 펼쳐진다.

각종 문화 예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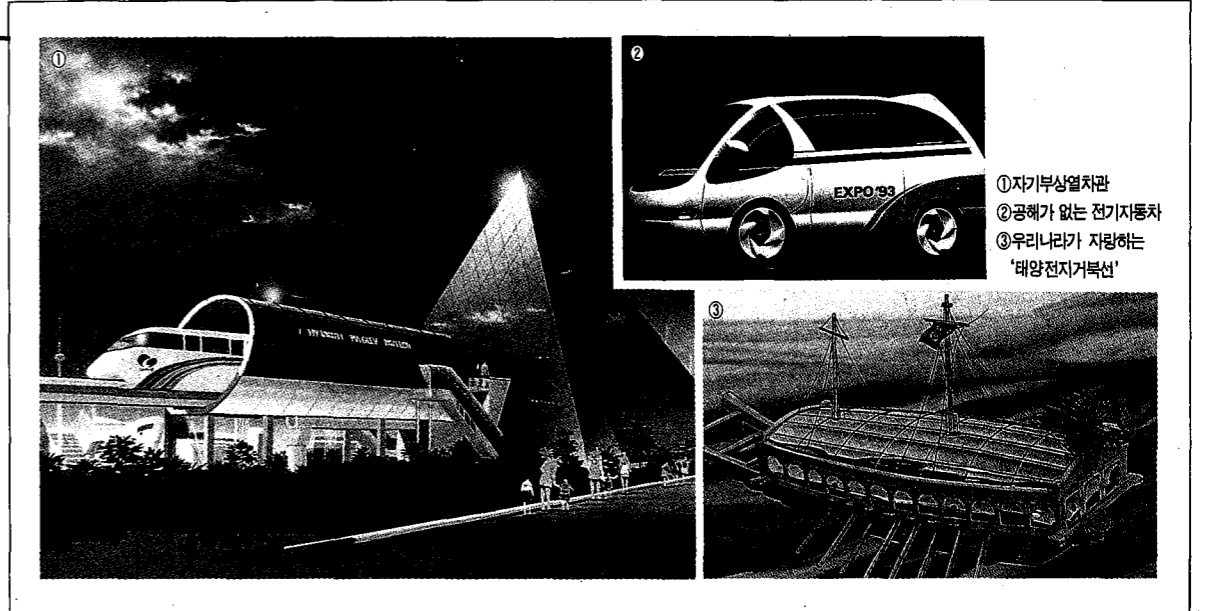
우리 나라 역사상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적인 문화 예술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이러한 문화적 사건은 엑스포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엑스포 문화 예술 행사는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 발전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그만큼 늘려 주게 될 것이다.

대전엑스포 '93의 문화 예술 행사는 몇 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첫째, 주제에 걸맞는 세계 수준의 다양한 문화 행사, 둘째, 전 세계의 문화 예술 유치를 통한 지구촌 문화 교류 및 축제의 장 마련, 셋째, 장외 경축 문화 예술 행사 병행 개최를 통한 범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조성 등이다.

이러한 목표다운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식 행사로는 개·폐회식을 비롯하여 참가국들의 행사인 내셔널 데이, 국제 기구의 행사인 스페셜 데이, 한국의 날, 시·도의 날, 기업의 날, 단체의 날 등의 행사가 있다.

문예 전시 행사로는 첨단 기술 미술 전인 테크노아트전, 비디오아트쇼, 국제 전시 행사인 리사이클링 특별 미전, 한국의 도자기 비교 귀향전, 국제 서예전, 세계 아동 미술전, 미래 테마파크 조각전 등이 있으며, 일반 문예 전시 행사인 한국의 풍속화전, 촉각 조각전, 전통 공예 실연전 등이 있다.

공연·축제 행사로는 첨단 기술 공연 행사인 개막 축제, 뮤지컬, 현대 음악제, 컴퓨터 영상 그래픽 오페라, 테크노 종합 무대, 갑천 수상 영상쇼 등이 있고, 국제 문화 행사인 국제 민속 축제, 외국 단체 초청 공연, '93 미스 월드 유



①자기부상열차관
②공해가 없는 전기자동차
③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태양전지거북선'

니버시티 선발 대회, '93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 대회, 국제 에어로빅 선수권 대회, 세계 우주소년단 대회, 엑스포 패션쇼, 팝스 콘서트, 섬유 축제, 축제 행렬 등이 있고, 전통 문화 행사인 전통 예술 공연, 마당놀이, 청소년 축제 등이 있다.

문화 예술 행사 시설로서 대공연장, 엑스포 극장, 놀이마당 등의 공연장과 재생조형관, 문예전시관, 전통공예실 등의 전시관과 갑천 주변, 한빛담 광장, 축제거리, 거리 공연 공간, 중앙 광장 등의 야외 문화 행사장이 마련돼 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예술과 첨단 예술이 모여 박람회장을 감동적인 축제의 장으로 수놓게 될 것이다.

대전엑스포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이에 걸맞는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의 기본틀을 수출 주도에 의한 고도 성장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밖으로는 통상 마찰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견제와 안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에 따른 이른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 때문에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진 사회에 진입하고, 국제 사회에서 초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수준과 생활 문화의 향상 등 내부적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완전한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과 경제 중심 발전으로부터 사회, 문화, 과학까지를 포괄하는 전 분야의 균형된 발전, 그리고 선진 국민으로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엑스포 '93의 기대 효과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생활에 응용함으로써 생활의 합리화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전엑스포에서는 세계의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보이고, 아울러 우리 과학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는,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국민의 사회적·문화적 소양을 배양하는 것이다. 엑스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이 직접 참가하고 즐기

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행사이다.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

셋째로, 대전엑스포는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국제 행사는 모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대전엑스포는 우리 역사상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 행사임에도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 이는 앞으로 각종 대규모 이벤트의 지방 개최 가능성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앞으로, 대전의 대덕 연구 단지는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엑스포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과학 공원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 주는 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네번째로, 대전엑스포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국제화에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엑스포는 국제 사회 속에서 자국의 경제·사회·문화 등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와 국민 자신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또한, 국제 정세의 커다란 흐름과 타국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져다 주고, 그 결과 문화와 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94년도 대학 시설비 투자 방향

최종률

교육부는 '82년부터 '92년까지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총 8천 92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시설 보유율은 고구 시설 79.6%, 연구 시설 48%, 실험·실습 기자재는 31.5%에 불과한 실정이다.

1. 대학과 대학 시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은 학생·교수 및 직원과 이들의 활동 장소인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설이란 대학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과 물리적 환경 및 장비를 뜻한다.

대학 시설은 외곽 시설과 내부 시설 및 교지까지 포괄하게 되며, 외곽 시설은 교육 기본 시설, 지원 시설, 연구 시설 등과 같은 교육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이고, 내부 시설은 각종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학 시설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속적, 효과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므로 대학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적 조건이며,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 시설 투자 현황

'80년대에 들어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국립 대학의 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부족이 가중됨에 따라, 교육부는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82~'86)에 3천 558억원을 투자하였다. 뒤이어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87~'91)에도 4천 170억원을 교육 기본 시설과 지원

시설 및 내부 시설 등의 확충에 투자하였고, '92년도에 1천 200억원을 투자하여 '82년부터 '92년까지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총 투자액은 8천 928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설 보유율은 교사 시설 79.6%, 연구 시설 48%, 실험·실습 기자재는 31.5%에 불과한 실정이다.

'93년도에는 1천 28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설 보유율을 약 1% 제고시키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교육부에서는 GNP 대비 5% 교육 예산 확보 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 기간의 대학 시설비 총 소요액 1조 8천억원(시설 보유율 80.4%→95%) 중 3천 200억원을 '94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여 경제기획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

3. 시설 투자 소요 증가 요인

그 동안의 계속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립 대학 시설 투자의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그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전반까지 대학 입학 정원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3년도까지는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와 국가 및 산업 사회의 인력 수요 변동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과와 신·증설과 정원 증원이 이뤄짐에 따라 연간 학생수의 증가율은 평균 4%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이와 함께 단과대학에서 종합대

〈표 1〉 학생수 증가 현황

구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89	'90	'91	'92	'93	'89	'90	'91	'92	'93
대학교	11	13	19	20	161	172	203	217	220	
대학	15	14	10	9	14	53	50	29	28	40
교대	11	11	11	11	11	13	13	16	16	17
전문대	14	14	13	13	6	17	19	17	16	9
계	51	52	53	53	51	244	254	265	277	286

학으로, 전문대학에서 개방대학으로, 농고에서 전문대학으로 개편, 승격 또는 합병됨에 따른 투자 소요 증대도 나타나고 있다.

〈표 2〉 대학의 승격, 개편, 합병 현황

구분	학교수	비고
단과대→종합대	9	부산수산, 목포, 공주, 군산, 순천, 안동, 창원, 강릉, 한국해양
전문대의 종합대 통합	2	예산농전→공주대, 군산수전→군산대
전문대→대학 승격	1	목포해전→목포해양대
전문대→개방대	6	삼척, 상주, 진주, 충주, 안성, 밀양
농고→전문대	1	이리농공

한편, 여수수산대학, 대전산업대학, 청주전문대학은 그 동안의 학생 증원과 기존 부지의 협소로 현재의 부지 내에서는 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전 사업은 단기간 내의 집중 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설 투자 소요의 막대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인력 양성 정책에 따라 국립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92년에 2천 10명, '93년에 1천 240명을 증원한 바 있다. 이것은 목표하였던 연간 1천 200명씩 '95년까지 4천 800명을 증원 하도록 되어 있는 이공계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 6개 대학에 '92년에 199억원을 투자하였고, '93년에 209억원을 책정하고 있지만 당초의 투자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시설의 적정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비도 시설비 투자 소요 증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 대학의 교사 시설 총 2천 98동 중 188동은 철거 대상이고, 26%에 이르는 559동이 개수 또는 중

수 대상이다.

시설의 보수는, 건물의 모든 부위는 재료의 물성에 따라 범위가 크든 작든 간에 주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는 예방 보전(preventive maintenance)과 일단 고장이 발생한 이후 처리 및 보수하는 사후 보전(break down maintenance)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대학 시설의 경우 예방 보전은 예산 형편 상 거의 고려할 수가 없고, 사후 보전을 위한 예산도 '94~'98동안의 총 소요액 1천 10억원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99 이후의 소요예산도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93예산:183억원).

4. '94 대학 시설비 요구

'94년도 예산 요구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한 GNP 대비 5% 교육 예산 확보 계획에 따라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 요구액의 조정 기준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편성상의 기본 원칙으로서는 학생 증원에 따른 시설 소요분을 우선 반영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하며, 부족되는 교육 기본 시설의 지속적 확충에도 유의하였다. 또한 기숙사 및 도서관의 확충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며, 이전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 소요를 반영하였다.

개별 사업은 완공 사업, 계속 사업, 신규 사업, 보수 및 기타 사업과 토지 매입으로 구분하여 구분된 사업별로 세부 방침을 정하여 조정하였다.

완공 사업의 조정은 사업을 개시한 지 5년 이상이 된 사업은 가급적 '94년에 완공토록 계상하였으며, 3~5년차의 사업으로서 잔여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의 사업은 '94년도에 완공 소요를

계상하여 대학별로 1개동 이상을 완공하도록 하였다.

계속 사업은 대학별 총 사업비와 적정 공기를 감안하여 중기 재정 계획 내의 각 사업 연도가 균형되도록 '94소요를 반영하였다. 또한, 교육 기본 시설을 위주로 하여 교육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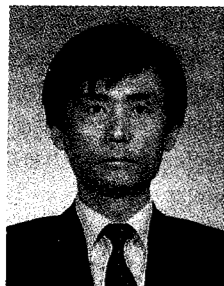
신규 사업은 대학 상호간의 시설 보유율이 균형되도록 유념하였다. 즉 교육 기본 시설, 연구 시설, 지원 시설, 부속 시설, 기타 시설 등과 같이 대학설치기준령이 제시하고 있는 기능별로 시설을 분류한 후 기능이 동일한 시설별로 대학 전체의 보유율과 계열 또는 단과 대학의 보유율을 검토함으로써, 대학간의 균형 유지를 도모하였다.

한정된 규모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계속 사업이 과다하면 투자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94년도 완공 예정인 사업과 진행 중인 계속 사업의 건수를 고려하여 예산 요구액을 사정하였다. 또한, 승격 대학의 교육 기본 시설 확충을 고려 하였으며, 교대의 경우는 전산 교육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전산 교육수요 확대에 대비하였다.

시설의 개·보수 사업은 시설의 노후도 및 보수 주기에 따른 사업의 완급을

〈표 3〉 학교급별 시설비

		조정 내역(사업비 기준) (단위:억원)			
구분	학교급	학교 수	'93	'94	'94
			예산	요구	교육부 조정
일반 시설비	대학교	34	825	4,155	1,895
	교대	11	47	844	124
	전문대	6	72	181	92
	기타	6	18	94	46
	소계	57	962	5,275	2,157
산업 인력 양성 시설비	대학교	20	149	-	437
	전문대	6	-	-	-
	소계	26	149	-	437
합계		57	1,111	5,275	2,594



최종률

교육부 교육시설국 건축사무관

우리 모두 '기초 질서 지키기'에 참여합시다

—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

* 앞으로 기초 질서 문란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정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거리와 행락지 등 공공 장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무질서 현상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거리에 버려진 휴지나 담배꽂이를 치우는 데만 연간 2천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질서 행위가 범법인 줄 알면서도 귀찮고 하찮은 일로 여겨 범죄의식 없이 무심코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지요.

질서야말로 더불어 사는 지혜이며, 문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

차례를 지켜야 할 곳에서 차례를 지키고, 버려서는 안 될 곳에 휴지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사소한 기초 질서부터 내가 먼저 실천하여 우리 모두 건강한 사회 기구기에 앞장섭시다.**

- 거리나 공공 장소에서
 - 침이나 땀을 뺀거나 휴지·담배꽂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 차례를 지켜야 할 곳에서는 줄서기를 생활화하고 새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 공연장이나 경기장 및 정거장에서는 암표를 사거나 팔지 않습니다.
 -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 보도를 이용하고,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나 정차를 합니다.
 - 운전자는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 노상에 물품을 내놓거나 호객 판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광고물은 허가된 것만 지정된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 관공지나 행락지 등에서
 - 행락 질서를 지킵시다. 자릿세나 바가지 요금은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음주 후 고성 방거나 싸움 등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야영이나 취사를 해야 합니다.
 - 나무 또는 꽃을 꺾거나 바위에 낙서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휴지·담배꽂이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25,000원)	
○ 길·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25,000원)	
○ 음주·소란 등 불인간을 조성하는 행위 (25,000원)	
○ 새치기하는 행위(25,000원)	
○ 자연 훼손·행락 질서 방해 행위 (25,000원)	
○ 불법 주차차 행위(30,000원)	
○ 자릿세를 징수하거나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등. (즉심, 구류, 과료)	

검토하여 대학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토지 매입은 이전 사업의 추진 및 교육 기본 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학교 시설 결정 지역 내의 집단 민원 대상 사유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계상하였다.

〈표4〉기능별 시설비 조정 내역 (단위:억원)

구분	'93		'94		비고
	예산	요구	예산	부조정	
교육 기본 시설	466	1,662	953	44.2	
지원 시설	124	666	221	10.2	
연구 시설	32	185	107	5.0	
소 계	622	2,513	1,281	59.4	
부속, 기타 시설	89	755	247	11.5	
시설 보수	166	806	366	16.7	
토지 매입	85	1,201	263	12.4	
소 계	340	2,762	876	40.6	
합 계	962	5,275	2,157	100	
산업 인력 양성 지원 시설비	149	-	437		
총 계	1,111	5,275	2,594		

〈표5〉공정별 시설비 조정 내역 (단위:억원)

구분	구분	'93 예산		'94 교육요구		비고
		예산	부조정	예산	부조정	
신규	풀조	48	930	238		
	완성	74	557	41		
계속	풀조	249	909	819		
	완성	340	872	418		
기타		251	2,007	641		
계		962	5,275	2,157		

〈표6〉신규 사업 조정 내역

구분	'93 예산		'94 교육요구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학교(20)	15	37	90	817	36	161
대학(14)	8	44	42	277	8	53
교육대(11)	2	2	39	316	12	28
전문대(6)	1	1	7	41	3	19
기타(6)	-	-	6	36	2	18
계(57)	26	84	184	1,487	61	279

5. 대학 시설비 예산의 당면 과제

앞에서 시설비 투자 소요의 증가 요

인을 항목별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립 대학 학생수 증가는 거의 매년 4~5%의 증가율을 유지한 결과 '87년에 22만 1천 명이었던 학생수가 '93년에는 28만 6천 명이 되어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및 교육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립 대학 시설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왔다. 즉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시설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년에는 6.6%이었던 것이 '93년에는 1.1%로 오히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표7〉대학 시설비의 비중 (단위:10억원, 명)

구분	'81	'87	'91	'93
정부 예산	8,040	16,060	28,973	41,936
교육 예산	1,465	3,124	6,598	9,831
	(18.2%)	(19.5%)	(22.8%)	(23.4%)
국립대학시설비	96(6.6%)	72(2.3%)	87(1.3%)	111(1.1%)
학생수	156,524	221,712	264,541	285,963

또한, 단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물가 인상분을 감안할 때 물량의 관점에서 보면 감소폭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계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유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시설 기준과 대비할 때 80% 수준으로 정책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 시설 기준상의 학생 1인당 면적은 15~17㎡(보유 12~14.6㎡)로서 외국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학생 1인당 면적 25~40㎡의 절반 수준이다.

〈표8〉대학 시설의 학생 1인당 면적 현황 (㎡)

대학명	국내		국외	
	1인당면적	대학명	1인당면적	대학명
서울대학교	14.6	스핀포드대학	40.4	
부산대학교	11.7	오하이오주립대	31.7	
전남대학교	11.0	미시간주립대	27.2	
목포대학교	10.7	동경대학	24.1	

2000년대의 대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고도화와 기능의 다변화는 필수적이다. 먼저 검토한 현실적인 투자 소요 증대 요인 이외에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산학 협동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시설 확충, 지역 사회 학술 기관으로서 대학의 사회 봉사 기능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면 시설비 예산 규모는 상향 조정이 불가결한 것이다.

'94년도 시설비 예산으로 2천 59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국가 재정이 허락해야 한다는 꺾 수 없는 전제가 따른다.

경제기획원은 '93년에 접어들어 그동안의 균형 배분적인 대학 재정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대학 시설비 지원을 일반 지원과 정책 지원으로 구분하여 일반 지원은 이미 추진 중인 계속 사업과 학생 정원 및 대학 승격에 따라 보유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의 시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정책 지원은 기성 회계의 시설비 기여 비중과 민간 기부금 유치 및 지방 자치 단체 전입금 확보 실적 등을 검토하여 자구 노력에 상응한 비율로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비국고 시설비 투자 현황을 보면, 정부 주도에 의한 6개 특성화 대학의 민간 기부금을 제외하면 대학의 민간 기부금 유치 및 지방 자치 단체 전입금 실적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기성 회계의 대학 시설에 대한 기여도는 2~8%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지원 방식이 계속되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대학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 자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정책 지원 방식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설 보유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염려가 많으므로 당분간 균형 있는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수·학습 정보

권낙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수·학습 모형

기억 촉진 수업 모형

우리는 생활하는 동안 기억해야 될 많은 과제를 접하게 되고, 많은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한다. 인간의 사고와 여러 능력은 지식에 근거하여 나오고, 머리 속에 기억된 지식이 적을수록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교수·학습에서 기억의 문제는 주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Lorayne와 Lucas에 의하여 개발된 기억 교수·학습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억 모형의 개요

인간의 능력은 지식과 기능에 근거하고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한다. 기억력이 향상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시간이 절약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수용하여 의미 있게 통합하고, 나중에 자유자재로 인출하는 것이 기억 모형의 목표이다.

기억에 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인간 기억에 관한 통일되고 일관된 만족스러운 이론의 정립이라는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기억 모형에서 학습 자료의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원리와 기법은 기억하기 전에 기억할 사물이나 아이디

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것(주의 집중),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과 연합시키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기억하도록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며, 연합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심상이 생소하고 우스꽝스러우며, 불가능하거나 비논리적인 연합을 형성하는 '연결어법'(연결어법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자료와 연결될 수 있는 친숙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과 새로운 자료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연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새로운 외국어 단어를 학습할 경우를 예를 들면, consider라는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고 할 때 consider와 음이 유사한 '건지다'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 consider와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건지려고 숙고하는 사람의 그림과 연합시켜 의미를 표시시켜 준다.), '대용어법'(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만드는 방식. 예를 들어 신라의 장보고를 암기하려 한다면 '시장 보고 오너라'와 같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생각나게 마음 속에 영상화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구를 선택하여 기억하는 기법), '핵심어법'(보다 광범위한 사고나 몇 가지 종속적인 사고들을 대표하기 위하여 한 단어를 선택하는 기법)이다.

2. 교수·학습 단계

Lorayne와 Lucas의 연구에 의해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자료에 대한 주의 집중, 관계의 형성, 감각적 심사의 확대, 실제 회상해 보기가 그것이다. 이들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은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 주의를 집중하고, 암기를 용이하게 하는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조직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암기 대상, 즉 주요한 아이디어나 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 것도 이런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열거해 보고, 이것들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 보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심사 숙고한 후에 아이디어를 비교해 보고, 그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 보는 것도 단계 1에 포함된다.

단계 2에서는 일단 학습 자료가 명확히 규명되고 평가되면 학습할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몇 가지 기억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즉 연결어, 대용어(추상적인 경우에), 그리고 결국 복잡한 구문일 경우에는 핵심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억술을 포함한다. 이것은 생소한 자료를 친숙한 단어나 그림, 그리고 아이디어들과 연결시키고, 여기에 심상이나 단어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다.

단계 3은 학생들이 연합 관계를 형성

한 후, 심상을 한 가지 이상의 감각에 연합시키는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연합이나 과장을 통해 유머 있는 장면으로 극화시킴으로써 심상을 풍부하게 만드는 단계이다. 이 때 심상은 회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수정을 할 수도 있다.

단계 4는 실제로 회상을 연습해 보는 단계이다.

3. 기억 촉진 수업 모형의 적용

이 기억 모형은 자료를 암기할 필요가 있는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집단(예컨대, 원소 주기율표를 배우는 화학 시간)이나 개인(예컨대, 시, 이야기, 연설문 혹은 연극 대사를 암기하는 경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비록 교사 주도 하의 암기 과제를 다루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모형에 익숙해져 자유 자재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4. 기억 촉진 수업 모형의 기대 효과

기억 모형은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

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이 모형은 심상의 사용 기술과 환경에 대한 주의 집중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에 대한 감각, 즉 생소한 자료를 완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존재를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기억 모형의 중요한 효과 중 첫째는, 학습은 생득적인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는 데 있다. 두번째 효과는 이 모형이 심상 능력을 향상시켜 줌과 아울러 창의적인 능력과 태도를 형성시켜 준다는 것이다. 즉 심상을 훈련시키는 동안 창의성이 개발되고, 창의적인 사고가 쉽게 이루어진다. 심상 형성은 주위 세계에 대해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억의 일부분으로서 심상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위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세번째 효과는 이 모형이 특정한 자료에 대한 암기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이다.

즉 쉽게 암기하는 능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교수·학습 문헌

학습의 자유

Carl R. Rogers 저, 연문희 역. 문음사, PP.453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을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학 시험 준비를 위한 주입식 교육을 교과목 내용 중심으로 계속하고 있어, 자주적·협동적·건강한 인간을 길러 내기는 어렵다.

이 책은 우리 교육 현실을 보고, 교육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탄식하는 교사, 학부모, 교육학도, 일반 독자들에게 참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책으로,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와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 중심 수업, 인간 중심 교육 방법을 실천해 온 과정과 그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교실에서 교사가 인간적이고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공감적일 때 학습 과정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 발달이 촉진된다는 감동적인 사례

를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호기심과 학습 욕망을 조정할 신뢰로운 교실 분위기 조성, 학생·교사·행평가 모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학생 자신의 자긍심과 자신감 배양,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견의 즐거움, 교사들의 학습 촉진법 개발, 교사들의 인간적 성장과 학생과의 만족, 만족스러운 삶의 깨달음을 도와 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어려움과 기회'에서는 교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외적인 상황과 힘에 대한 검토와 성장하는 삶의 가능성 탐색, 제2부 '교실에서의 자유와 책임'에서는 교실을 인간화하면서 촉진자로서 교사들이 경험한 흥분, 좌절, 보상에 관한 이야기 소개, 제3부 '교사들에게'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유의 촉진자가 되어서 교육 혁신의 모험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 제4부 '확실한 증거'에서는 네 연구팀의 작품으로 학습 과정에서 인간 중심적인 태도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자료를 제시한다.

제5부 '혁신의 몇 가지 실패'에서는 인간 중심적 방법이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제6부 '철학적 입장과 가치 지향'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상, 자유선택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에 대한 저자의 철학적 입장이 제시되었고, 제7부 '우리의 도전'은 교실에서의 인간 중심적 방법의 장점을 참신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읽을 때마다 신명이 나는 이 책은 교사들의 인생과 그들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생에서 교육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도전적인 표지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차

개인차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견되는 신체적·지적·정의적 영역에서의 차이를 말한다.

인간의 개인차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심리 측정 운동이라는 심리학의 새로운 측정 운동에 편승해서 발달하게 되었다.

인간은 신체 및 생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인차가 현저하다는 것이 생물학자와 생화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신장의 개인차와 신진 대사 기능, 칼슘의 양 혹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 땀을 흘리는 속도, 맥박, 위산의 농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분이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근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작 기능, 감각 기능, 또는 지각 기능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개인차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에 있어서의 개인차이다. 지능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I.Q.50-150까지의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으로 이 범위 내에서 개인차가 있다고 본다. 개인차를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능이라는 인간의 능력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것은 학업 성취 예측의 자료로 활용,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참고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인성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데 반해,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등은 인성을 중심으로 한 개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지각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차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에 있어서의 상당한 개인차가 있으며, 지각 속도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로 지각하거나 느린 속도로 지각하는 등, 모든 지각 과정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지각 속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의 개

인차이다. 인간의 태도, 흥미, 가치관에 개인차가 현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것이 개인차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부각되게 되었다. 개인차가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까닭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 적성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수업을 전개할 때 수업의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수·학습 이론가

알버트 반두라

반두라는 1925년 12월 4일 알버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Mundare에서 태어났다. 그는 영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석사(1951)와 박사 학위(1952)를 받았다. 1953년 Wichita Guidance Center에서 박사 추수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스탠포드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두라는 많은 영예를 안았는데, 1972년의 Guggenheim Fellowship, 미국 심리학회 12분과에서 수여한 Distinguished Scientist Award, 캘리포니아 심리학회에서 수여한 1973년의 Distinguished Scientific Achievement Award, 1974년의 미국 심리학회 회장, 그리고 1977년의 Aames Mckeen Attel Award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반두라는 여러 가지 과학 학회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으며, 17개 전문 학술 잡지의 편집 위원이기도 하다.

아이오와대학교에 있는 동안 반두라는 Hull적인 학습이론가인 유명한 Kenneth Spence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임상심리학에 있었다. 이 당시 반두라는 효과적인 정신

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던 생각들을 명료화하고, 이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상세하게 논술해 보는 데 관심을 가졌었다.

반두라가 Miller와 Dollard가 쓴 “사회 학습과 모방”(Social and imitation, 1941)을 읽고 크게 영향을 받은 것도 이 때의 일이다. Miller와 Dollard는 사회적 행동과 모방 행동의 설명 기초로서 Hull의 학습 이론을 이용하였다. Miller와 Dollard의 모방 학습에 대한 설명은 20년 이상 동안 심리학 문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 초기에 이르자 반두라는 일련의 논문과 서적을 출판, 발표하여 모방 학습에 관한 이전의 설명 개념에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관심의 논제를 보다 확대시켜 가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이 분야를 관찰 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관찰 학습이라는 분야는 현재 대단히 인기가 있으며, 또한 날로 인기를 더하여 가고 있거니와, 이제는 반두라를 이 분야의 지도적인 연구가 및 이론가로 보는 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각국 대학 지도자들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

교육협력과

위기에 놓인 각국의 초·중등 교육

최근 뉴욕대학에서 개최된 국제 대학 총·학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초·중등 교육이 위기에 놓여 있음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학이 이에 대한 교육 개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못함을 인정했다.

뉴욕대학(NYU) 총장 L.Jay Oliva는 대학이 교육 개혁 논의와 실제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러 참가자들은 대학이 초·중등 교육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는 것은 초·중등 학교측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며, 대학 본연의 기능이 연구와 강의임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 24개 대학의 지도자들이 참가했는데, 텔아비브대학의 Y.Dienstein 총장은 대학 교수들이 초·중등 교육의 개혁에 대하여 전문적 참여를 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예컨대 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은 그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Oliva 총장은 교육 개혁에 대한 고등 교육의 역할은 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바, 이는 교육 개혁의 의제를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대학의 관심 사항을 밝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지도자들은 또 그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소수 민족 학생들이 그들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가나에서는 학교로부터 직업 세계로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관심과도 일치하고 있다.

가나대학의 G.K.Nukunya는 교육 정책의 목적이 보다 기능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졸업자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만대학의 Yen Chu인 문대학장은 대만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수학·과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문·사회 과목에 있어서의 교수법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마스쿠스대학의 M.Z.Shwaiki총장은 서구 TV방송의 급속한 유입이 학생들의 관심을 학습으로부터 이탈시키고, 배급 풍조를 만연시켜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풋볼 선수가 명망 있는 대학 교수보다 더 부유하다면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려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유럽 대학 네트워크의 총재인 G. Verhagen은 대체로 유럽의 학교 체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으나 당면 과제는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각국 교육 개혁 중점은 초·중등 교육

이날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교육 문

제에 대하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중점이 초·중등 교육에 주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집단은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학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함을 인정했다. 또 Oxford대학의 Claus 경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미흡하였으며, 대학에 대한 냉소주의의 한 이유가 사회과학·연구 업적의 일천함에 있음을 지적했다.

Oliva 총장은 대학이 교육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능은 교원의 양성이라고 말했고, 여러 참가자들은 교사의 임상 훈련과 현장 훈련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Oliva 총장은 이 분야야말로 학생들의 졸업 이후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장래의 교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교수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대학 교과에 있어서의 학교 교수법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대학 내 교육 대학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대학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교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되었는데, Oliva 총장도 이에 대해 대학은 학교와의 작업에 있어서 대학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장학론 논고 - 교내 자율 장학론 -

이윤식 지음
교육 자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의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사들이 자율적인 '교내 자율 장학'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이 책은 저자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교내 자율 장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장학론에 관계된 논문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무엇을 위한 장학인가?' '교원들은 장학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요구하는가?' '교내 자율 장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내 자율 장학을 잘 하기 위해서 교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장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모두 11편의 논문을 실었다.
* 4.6배판 388면 · 값 9,000원 · 과학과 예술

랭킹 100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마이클 H. 하트 지음/김명옥 옮김
저자는 지금까지 실제했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을 뽑았는데, 그가 내세운 최고의 인물은 마호메트이다. 저자는 컷머리에 그 이유를 독특한 논법으로 설파, 독자를 납득시키고 있다. 저자는 주제의 인물을 전기적으로 기술해서 그의 경력, 인류에의 공적도, 그 중요성의 분석도 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인재 양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다.
* 신국판 512면 · 값 7,500원 · 도서출판 에디터

미의 순례 - 체험의 미술사 -

강우방 지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인 저자가 그 동안 써 온 글들 가운데 논문 이외의 것들을 모은 글로서, '6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사찰과 불교 유적을 답사하며 적은, 이론서가 아닌 실천의 서이다. 이 책은, 무상한 가람, 불교 조각의 독창성, 불교 건축의 여러 문제, 그림과 글씨의 세계, 미술사의 방법론, 미의 여로, 생활 속의 단상 등 7부로 되었다. 현장 교육에 임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지침서로, 일반인에게는 좋은 교양서가 될 것이다.
* 신국판 394면 · 값 7,000원 · 도서출판 여경

대중 문화와 문화 산업

박기성 지음
문화가 인간의 자아 구현을 통한 보다 완전한 삶의 창조로 규정될 때, 대중 문화는 그러한 창조적 활동에서 표현자와 수용자가 분리되고 있는 것이 특성이자. 한국의 대중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60년대 후반 경제적 근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대중 문화는 경제적 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함께 성립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책은 대중 문화에 대한 이론서인 것이다.
* 신국판 428면 · 값 6,800원 · 평민사

한국의 경영사상

양창삼 지음
한양대 경상대 교수인 저자가 한국의 경영 사상을 밝힌 책으로 1부에서 한국 경영학과 그 발전을, 2부에서 5부까지는 한국의 경영 사상을 시대별로, 5부는 실학기, 개화기, 근대기와 한국의 경영 사상을, 제6부에서는 조직과 한국의 경영 사상을 실었다. 2부에서 5부까지의 시대기에서는 그 시대의 주요 인물의 경영 사상을 실어, 우리 나라의 경영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 신국판 446쪽 · 값 13,000원 · 양영각

제2판 현대의 교육심리학

박이청 지음
이 책은 교육심리학의 기본 구조를 다룬 (현대의 교육심리학)을 개정 보완한 책으로, 다음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는 최근에 보고·발표된 국내 연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의 교육심리학을 시도하였고, 다른 하나는 현대 교육심리학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영역을 대부분 다루었고, 권말 부록으로 교육심리학 용어 해설을 실었다.
* 크리온판 452면 · 값 9,000원 · 학문사

10 1/2 장으로 쓴 세계 역사

줄리안 반즈 지음·신재실 옮김
저자 줄리안 반즈는 영국의 작가로, 이 책은 시간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종교 재판, 우주선의 탈 착륙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는 유럽, 북남미, 지중해를 거쳐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각 장마다 역사의 주요 사건을 소재로 다루면서 지적이고도 유쾌한 흥미로 읽을거리의 재미를 한껏 부풀리면서도 포스트 모던 소설 기법을 쓰고 있다.
* 신국판 400면 · 값 6,500원 · 도서출판 동연

개정판 최신교학

세계지도집



- 교학사 편
- 국배판
- 487면
- 값 50,000원

급변하는 국내의 실정을 생각해 보면, 지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만 항상 유동적인 사회이다 보니 완벽한 지도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국내로 보면 행정 구역의 변경, 새로운 도로의 개통, 대단위 간척에 의해 지도 개정이 불가피하며, 세계의 변화로는 독일의 통일, 구 소련의 붕괴, 동부 유럽의 변천, 새로운 독립 국가의 탄생 등이 또 새로운 지도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부응하여 교학사에서는 '82년의 초판을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과 증보를 하여 펴냈다. 한국편은 전도와 지방도를 1:100만, 대도시는 1:2.5~5만의 축척으로 상세화하였고, 세계편도 최신의 자료로 엮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꼭 필요로 할 지도책이다.

교육신서 이제 지혜로운 부모가 되자

도서출판 학문사에서 교육신서 5권이 출간되었다. 1권, 이제 지혜로운 부모가 되자/홍명희 지음·2권, 아이들은 칭찬과 대화를 원한다/장춘환 역·3권, 위인들의 어머니는 지혜로웠다/신현식 지음·4·5권, 참된 자녀 교육을 위하여 1·2 홍명희 지음. 올바른 어린이로 기르기 위하여 어머니와 유치원, 국민학교 교사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신국판 240~334면 · 값 4,500~5,000원 · 도서출판 학문사

- 국민학교환경학습관조성자료 (교육연구 601집) · 4·6배판 100면 · 비매품 · 전남교육연구원
- 강원교육 · '93.6월호 (통권 140호) · 비매품 · 강원도교육청
- 과학충남 · '93.6 (제56호) · 4·6배판 335면 · 비매품 · 충남과학교육원
- 교육경북 · '93 (통권 102호) · 4·6배판 160면 · 비매품 ·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제주 · '93.6월호 (통권 80호) · 4·6배판 130면 · 비매품 · 제주도교육청
- 부산교육발전계획 ('93~'97) · 4·6배판 267면 · 비매품 · 부산직할시교육청



'93 한국교육연감

■ '93년판 한국교육연감/11특집 2연지 3기특 4저로 · 통계
● 한국교육연감 4x6배판 830면, 호화양장
■ 일반부록/54~'92년 현장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주제목록
● 일반부록 4x6배판 512면, 값 60,000원
■ 별첨부록/각종학교 및 교육유관단체 명부(주요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신문사 (11287-113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3
전화: (02)576-5882~7, 576-5873

한국의 불상

조용중

불상이란 협의로는 석가의 모습이고, 광의로는 석가의 종교적 권능이 분화된 여러 如來, 보살과 불교를 수호하는 사천왕, 인왕, 팔부중의 호법신들, 석가의 제자와 역대 고승상까지 포함된다.

초기 불교의 예배 대상으로는 석가 탄생을 의미하는 蓮華, 成道를 의미하는 菩提樹, 불법의 무한함과 거듭됨을 의미하는 法輪, 이 밖에 佛足跡과 석가의 유골을 모신 스투파[塔]를 삼았는데 탑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었다.

불상은 석가 열반 후 4~5세기를 지나 기원을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여, 불교의 북방 전래와 함께 2세기 경에는 後漢에, 우리나라에는 4세기 경에 들어왔으리라 짐작되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불상들은 대부분 6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다.

□고구려의 불상: 초기의 불상은 오늘날 볼 수가 없으며 평양에 천도한 下代에 와서 몇 점이 있는데, 소형의 금동불이 주류를 이루며, 本尊과 脇侍를 한 光背에 담은 일광삼존불상도 등장하고 있다.

광배 뒷면에 조성 시기와 연유를 적은, 명문이 새겨진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은 가는[細長] 몸체와 얼굴, 날카롭게 좌우로 뻗친 옷자락, 古式의 舟形 광배에 새겨진 火焰文과 중생을 보호하며 두려움을 없애는 손 모양[與願·施無畏의 通印]을 통해 삼국 시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결과 명문의 己未를 539년으로 보아, 한국 最古의 불상으로 보고 있다.

景四年辛卯銘金銅如來立像은 광배의 명문으로 보아 無量壽佛[아미타불]로서 높은 육계(肉髻), 약간 살이 오른 얼굴과 몸체, 옷주름과 단의 부드러운 곡선이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조형 감각을 보여 준다. 신묘는 571년으로 판단되고, 같은 양식을 보여주는 평양 원오리 출토 泥佛·菩薩

片도 같은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伝 平川里 출토 金銅彌勒半跏思惟像과 永康七年銘金銅光背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끝마무리나 세부 표현이 둔중함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한국미의 특징이 엿보이며, 삼국 시대에 유행하던 반가사유상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불상이다. 후자의 명문에 나타난 永康은 延嘉나 景과 함께 고구려 연호로 파악되어 그 의미가 크다.



금동보살 입상·높이 18.2cm·8세기

□백제의 불상: 백제에서도 5세기까지는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예가 없다. 다만 중국의 五胡時代, 즉 3~4세기 경의 古式佛像 양식이 반영된 岫巖 출토 金銅禪定印如來坐像이 있으나 아직 국적 불명이고 중국 불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서산 보원사 출토 金銅如來立像은 양식적으로 연가명불상과 통하여 백제와 北魏,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 미술의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백제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으로 처리된 法衣와 古拙의 미소가 담겨 있으며, 시대는 6세기 초로 보아 백제의 最古佛像으로 본다.

예산 화전리 四面石佛은 한국 最古의 사면불로서, 좌불인 남면은 佛頭는 없지만 삼국 시대에만 보이는 옷자락이 대좌를 덮는 裳懸座를 보인다. 그리고 광배에 가득한 화염문이나 동, 서, 북면 입상의 복식과 신체 표현 등을 볼 때 6세기 중엽의

작으로 볼 수 있다.

암벽에 조성한 마애불로서는, 태안 磨崖三尊佛像과 서산 磨崖三尊佛像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중앙에 구슬을 받든 捧寶珠形菩薩이 좌우에는 장신의 여래협시를 거느리고 있고, 후자는 중앙에 通印을 한 여래 입상이, 좌우에는 반가사유형 보살상과 봉보주형 보살 입상이 배치된 것이다.

서산 마애상은 이제까지의 어느 불상보다도 살이 올라 양

감이 풍부하고 옷주름도 U자형으로 부드러운 처리이며, 특히 얼굴의 미소는 소위 '백제의 미소'라는 고졸한 맛이 어려 있다. 조성 시기는 600년 경으로 추정된다.

鄭智遠銘金銅如來三尊立像은, 정지원이 죽은 처의 왕생극락을 위하여 발원한 글이 적힌 광배에는 두광의 연화문을 생략하고 화염문도 간소화한 점에서 隋唐 양식과 연결되는 7세기 초의 작이라 생각된다.

현전하는 백제의 독립된 環造圓刻像으로 유일한 익산 연동리 石造如來坐像은 삼국 시대 양식의 最完의 광배가 주목된다. 身光部에는 백제식의 부드러운 동세의 화염문과 化佛 7軀가, 頭光部에는 연화문과 보주연화문이 있어 백제의 전형적인 광배상이며, 蓮華化生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상은 일본 法隆寺金堂釋迦三尊 등의 7세기 飛鳥 광배에도 발견되어 조각사적인 의의가 크며, 조성 시기는 7세기 초엽으로 본다.

이 밖에도 木塔址心礎石에서 나온 6세기 말로 보이는 方形座臺의 부여 군수리 출토 蠟石製禪定印如來坐像, 영락과 천의가 X자로 교차되고 한손에 보주를 든 7세기 경에 조성된 부여 규암면 출토 金銅觀音菩薩立像과 지금까지 출토된 대좌 가운데 최대적인 7세기 중엽의 것으로 보이는 청양 출토 도제(陶製) 불상 대좌가 있다.

□고신라의 불상: 신라의 불상은 경주 인왕동 출토 石造如來坐像, 경주 배리 三尊石佛立像, 경주 삼화령 石造佛立像, 경주 남산 佛谷石佛坐像 등을 볼 때 투박하고 단순한 옷의 주름과 단의 처리, 동세가 부족한 불신을 볼 때 생동감이 부족하고 비례 또한 영성하여 삼국 가운데 조각 기술이나 조형 감각이 뒤떨어짐은 불교 전래 시기가 늦음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반가사유상은 일찍이 인도와 중국에서는 깃달타 태자의 사유상으로 조성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에 많이 조성되었다. 명문이나 문헌적 근거가 없어 佛名은 알 수 없으나 미륵보살로 알려져 있다.

반가사유상 가운데 이란 사산 왕조의 왕관에서 그 기원을 찾는 日月飾寶冠을 쓴 국보 78호와 三山冠을 쓴 국보 83호는 크기나 조형적인 아름다움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 이들은 세장하면서도 귀퉁이 어린 불신과 보관은 물론 대좌의 옷주름, 유려한 조각선, 입가의 미소, 끝마무리까지 세심한 정성을 들인 솜씨가 삼국 시대의 완숙한 조각 솜씨를 보여 주어 한국 불교 미술의 금자탑임을 증명하고 있다.

石造如來像의 각부 명칭



□통일신라의 불상: 통일신라의 불상은 삼국 불상의 조각적 특성을 계승하여 조각 기법, 주조 기술, 표현 감각 등이 상호 융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국가, 왕실, 귀족의 후원과 신라인의 깊은 신앙심, 그리고 예술적인 창조성이 조화를 이루어 불교 미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에 외래 문화를 활발히 수용한 당과의 교류는 불상 조형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을 가져 왔다.

이 시대의 조각 표현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통일 직후부터 7세기 말까지로, 삼국의 조각이 하나로 집약되고, 당 등의 외국 불상 양식을 수용하여 새로운 양식을 조성하는 시기이다.

군위의 三尊三佛, 경주 四天王寺址 출토 緣紉四天王像片; 感恩寺址석탑 출토 靑銅製舍利外函의 사천왕상, 안압지 출토 金銅板佛, 그리고 燕岐碑像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7세기 말로 알려진 녹유사천왕편과 감은사지 사리함의 사천왕은 그 세부 표현이 매우 섬세하고 사실적인



조용중

중앙대 사학과,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 석사 학위를 받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임. 논문으로, <백제 불상의 광배에 관한 연구>와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광배에 관한 연구>가 있음.

방형대좌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높이 28.5cm·7세기·보물 331호·국립중앙박물관 ▶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본존 높이 2.66m·신라(8C)·보물 200호·경북 경주 ▼



통일신라의 새로운 조형 수법이다. 그리고 연기비상군은 조상 명기에 의해 673, 683, 689년에 백제 유민의 조성임을 알 수 있듯 百濟佛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2기, 8세기 전기간으로서 당당한 어깨와 자신감 있는 가슴, 신체의 적절한 비례로 조화를 이루고, 밀착된 얇은 옷자락과 양감이 강조된 불신에 降魔觸地印이 유행하고, 通肩보다 偏袒右肩이 많다. 좌상의 중대석도 방형에서 8각 또는 6각으로 바뀌며 옷주름이 대좌를 덮은 상현좌가 아닌, 즉 옷자락이 올라가 대좌를 완전히 노출된다.

이상은 감산사지 출토 석불 입상 2구, 구황리 삼층석탑 출토 순금여래좌상·입상, 경주 七佛庵磨崖三尊과 石窟庵本尊佛에 반영됨을 본다. 이 중 감산사지 석불은 명문에 의해 719년, 통일신라의 편년 설정의 기준작이 된다.

경주 남산은 신라 조각의 총본산이다. 그 중 칠불암 마애삼존은 당당한 체구의 편단우견에 향마촉지인인 본존불과 협시보살 입상이 각각 연화와 보병을 든 배치로, 당시 보편적인 도상이며, 다리의 양감, 연화대좌의 조각 기법이 미숙함으로 보아 8세기 초기 작으로 본다.

원숙한 조각 기술과 완전한 불교 도상으로는 석굴암의 본존불과 주변 조각을 꼽는다. 석굴과 불상을 만드는 기술이 총합되어 불교의 이상을 해탈의 경지까지로 이끌고 있다.

제3기, 9세기 이후의 시기로 전기의 이상적인 완숙한 조각 수준이 말기부터 다소 도식화, 경색화되어 승고의 미가 위축되는 시기이다. 이런 현상은 신라 사회의 내부 모순과 禪宗의 유행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주 남산 彌勒谷石造如來坐像, 청량사 석조여래와 고운사 석조 여래좌상에서 잘 드러난다. 즉 석굴암 본존불에 비해 좁아진 가슴



과 어깨 등 위축된 신체 비례, 주름의 도식적인 처리가 전체적인 조형적 통일감이 감소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철불 좌상이 늘어나며, 毘盧舍那佛의 등장 이 특기할 만하다. 철불의 등장 배경을 선종의 등장과 관련 짓는 견해가 있다. 즉 금동이란 귀족적 재료보다도 禪的 질박함을 잘 드러내는 철을 불상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림사 철불(858년), 실상사 철불(865년) 등 대표적 선종 사찰에서 발견됨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

비로자나불의 등장은 통일신라 말기의 다양한 형태의 불교 성격 파악을 돕고, 특히 당나라보다도 먼저 指拳印의 여래형이 만들어져 정착되었다는 조각사적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 예로 앞의 보림사상과 철원 到彼岸寺(863년), 봉화 축서사의 철조비로자나불(867년)을 들 수 있다.

□**고려의 불상**: 불교를 국교, 왕실 종교로 신봉한 결과 교세가 확산되어, 국초부터 도성 70여사를 비롯 전국에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고 불상 조성도 활발하여 통일신라 말부터 전개된 여러 양식들도 변형, 형식화, 토착화라는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고려 초기의 대표적 불상군은 灌獨寺·大鳥寺石造菩薩立像, 예산 삼교 石造立像 등이다. 이들은 옛 백제 지역에 위치하면서 거대한 규모에 주목하게 한다. 원통형의 보관과 이중의 천개, 토속적 인상의 넓적한 相好와 石柱 같은 동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거구의 각부 처리는 엉성하여 조각적인 우수성은 감소되어 있다.



▲ 경주 남산 선각마애삼존불공양상·아미타삼존상 바위 높이 7m 밑폭 3.58m 석가삼존 바위 높이 7m, 폭 7.27m·신라·경북 경주

경주의 남산은 산 전체가 그대로 하나의 박물관이며, 신라 조각의 총본산이라고 한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처님의 영은 고요한 산이나 잘 생긴 바위 속에 머물러 계시다가 필요할 때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크고 잘 생긴 바위를 선택하여 부처를 새겼던 것이다. 그러기에 남산에는 78체가 되는 바위에 새긴 불상들이 있어도 대부분이 바위를 다듬지 않은 채 조각하였다. 신과 부처가 계신 자연이라 자연 그대로 숭상했지 훼손하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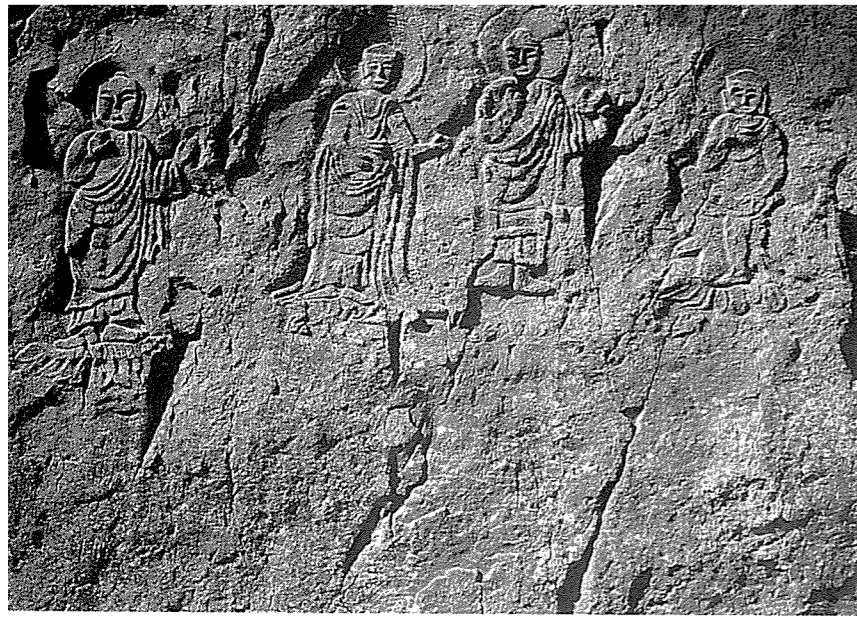
사진 김대벽 (사진작가)

논산 개태사 석불입상 ▶
·본존 높이 4.15m
·고려·보물 219호
·충남 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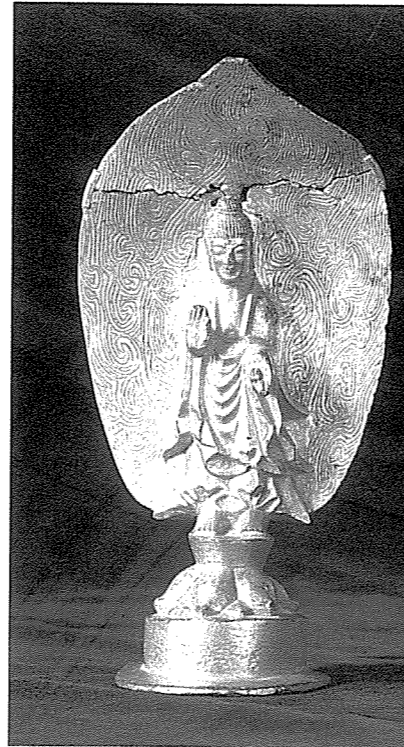
소발(素髮)에 육계가 큼직하며, 등골고 평평한 얼굴, 도식적인 귀, 두리몽실한 어깨와 가슴, 둔중한 수족이 마치 분묘의 석인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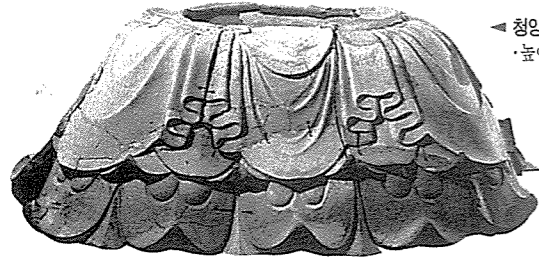
자료 제공·국립중앙박물관



▲ 신선사 마애불상군 · 높이 주존 8.2m, 반가상 1.1m, 여래입상 1.6m, 1.02, 1.05m · 신라(6C) · 경북 월성



▲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 높이 16.2cm · 고구려(6C) · 국보 119호 · 국립중앙박물관(경남 의령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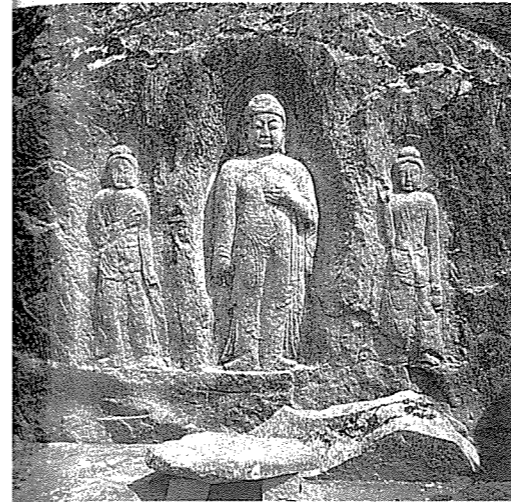
◀ 청양 출토 도제불상대좌 · 높이 90cm · 충남 청양

▼ 서산 마애삼존불상 · 본존입상 높이 2.8m · 백제(7C) · 국보 84호 · 충남 서산



서산 마애삼존불은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깊은 산중의 인바위 동면에 새긴 삼존으로 중앙에 여래입상을,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했는데 협시는 통례와 달리 각기 다른 양식이 특이함. 이 삼존상은 1960년에 발견 조사되었으며 백제 조각사에 대한 주목을 새롭게 하여 삼국 시대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상, 남면 좌상 · 높이 170cm · 충남 예산



▲ 경주 두대리 마애석불입상 · 높이 3.32m · 통일신라 · 보물 122호 · 경북 경주

▶ 석굴암 본존불 · 높이 3.26m · 통일신라(8C중엽) · 국보 24호 · 경북 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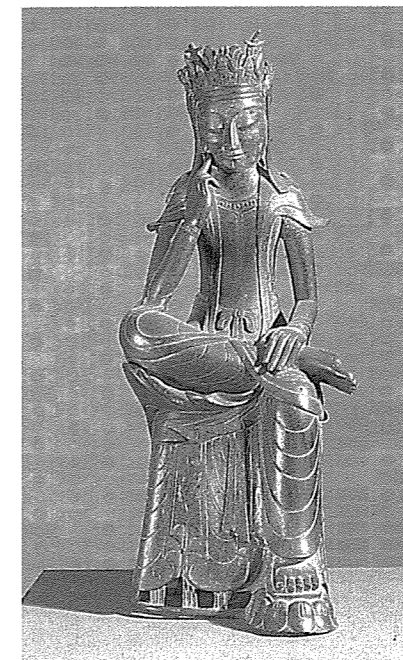
석굴암은 경주 토함산의 동쪽 정상 가까이 인공의 석굴을 만들어 동동남으로 방향을 잡았음. 전방후원(前方後圓)의 평면을 기본으로, 인도나 중국과는 달리 천연의 암벽을 뚫지 않고 화강암을 궁형으로 쌓아 석굴을 마련하고 그 위에 흙을 덮었으며, 석굴 앞에 예배를 올리기 위한 전실을 꾸몄음.

석굴은 입구 좌우에 사천왕, 인왕상을, 내부 돌레벽에 십대제자, 범천, 제석 등의 상을 양각하고, 주실의 중앙에 높이 1.58m의 연화대를 쌓고 그 위에 3.26m의 석가여래상을 안치함. 벽 상방에 10개의 감실을 만들어 작은 불상 1구씩을 두었으나 2구는 일제 침략기에 일인이 훔쳐가서 8구가 현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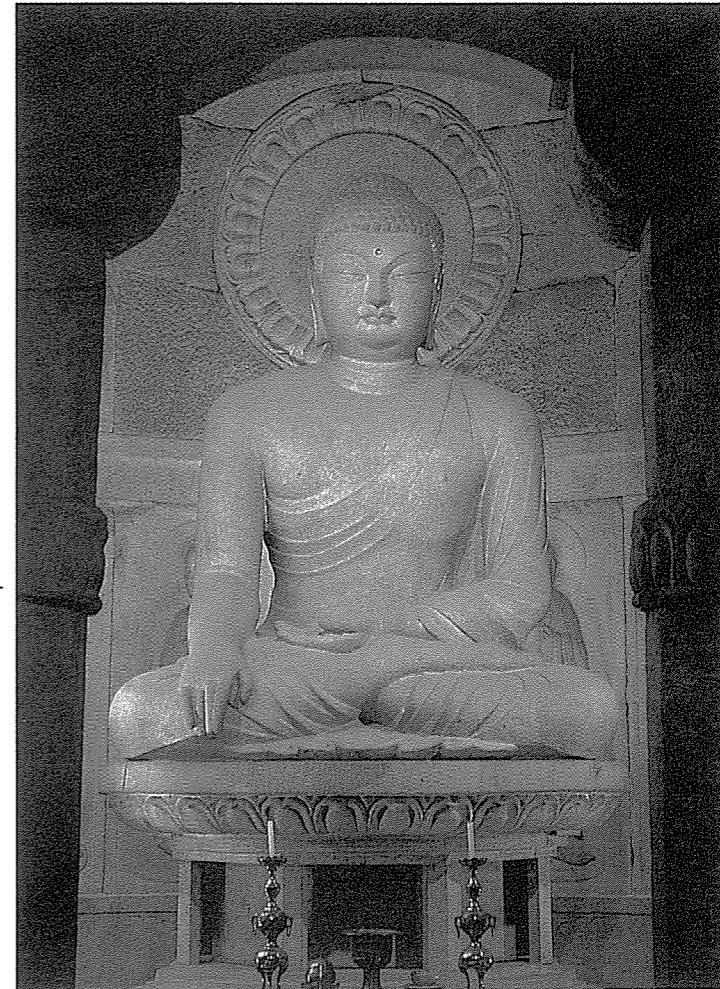
◀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높이 17.5cm · 고구려(6C) · 국보 118호



◀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높이 83.2cm · 6~7C · 국보 78호



▶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높이 93.5cm · 7C · 국보 83호





▲ 관촉사 석조관음보살입상 · 높이 18.12m · 고려(10C) · 보물 218호 · 충남 논산
▼ 경주 남산 미륵곡석조좌불 · 높이 4.36m · 통일신라(8C) · 보물 136호 · 경북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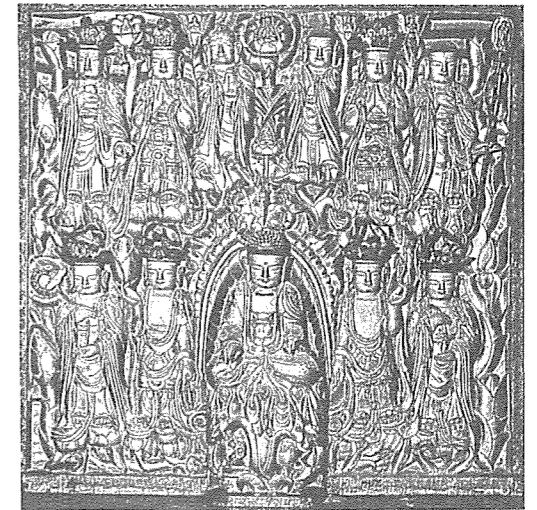
▲ 금동여래좌상 · 높이 10.5cm · 조선(15C) · 국립중앙박물관
상체에 비해 하체가 극히 빈약함은 조선조 불상의 공통적 특징임.
▼ 괴산 미륵리 석불입상 · 높이 10.6m · 고려(11C) · 보물 96호 · 충북 괴산



▲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 높이 2.5m · 858년 · 국보 117호 · 전남 장흥



◀ 부석사소조여래좌상 · 높이 2.78m · 고려 중엽 · 국보 45호 · 경북 영동
▼ 실상사약수입목각불탱 · 높이 1.81m · 1782년 · 보물 421호 · 전북 남원



마교 양식으로 화려한 보관에法輪形의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 복잡한 영락 등으로, 伝 金剛山出土金銅觀音菩薩像과 최근 북한 자료에 소개된 금강산 만폭동 발견 불상군, 익산 출토 순금 佛坐像이 이에 속한다.

초·중기의 불상들은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남원 용담사지, 괴산 원풍리, 니주 철천리, 함안 대산리, 청양 읍내리의 석불입상들을 꼽는데, 모두 높이가 3~10m의 거상이고 기교는 전대보다 부족하다.

반면에 같은 대의 2m 내외의 석불인 만복사지, 청룡사, 관촉사, 도감사, 운문사, 천성사, 운주사, 청암사 수도암 등의 석불 좌상 등은 유려한 조각 기술을 보인다. 대개蓮花唐草文, 蓮花文, 火焰文 등이 가득 새겨진 광배와 仰·伏蓮에 眼像까지 갖춘 대좌가 보인다.

이들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북한산 구기동, 월출산 마애여래좌상(977년)에서 보이는 알맞은 신체 비례, 정교히 묘사된 연화대좌 등도 통일신라 양식의 고려적 계승이라고 본다.

고려 후기에 이르면 불상 조성이 확산되지만 크기는 작아진다. 그나마 형식화된 相好, 각부 처리의 단순성 및 치졸성이 역력하고 그 중 불상이라고보다는 장승처럼 처리된 예도 있다. 그 이유는 잦은 외침과 국내 정세의 불안, 기술의 퇴보, 불교의 타락 등에 있다고 본다.

이 시기에 금동불의 경우 두 가지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조선 시대로 이어진다.

하나는 장곡사 金銅藥師如來坐像(1346), 서산 文殊寺金銅阿彌陀如來坐像(1346) 등으로 대표되는 불상군으로 균형 잡힌 체구와 단아한 모습, 계란꼴의 부드러운 相好, 通肩이지만 넓게 트인 가슴, 금구 장식 등 섬세한 세부 표현 등이 주요 특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元에서 유입된 라

◻ **조선의 불상**: 조선 왕조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쇠퇴의 길을 치닫는다. 世祖, 明宗년간에 일시 부흥되기도 했지만 작은 물결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여건에서 불교는 서민 대중들의 소박한 신앙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였고, 자연 그 성격은 기복적이고 은둔적으로 변해, 고려 이후 지속된 조각 양식의 단순화·퇴보화가 가속되어 종교적 숭고미를 지닌 불상은 드물었다.

이러한 경향은 水鐘寺金銅佛에서 볼 수 있다. 1493년 작으로 두꺼운 통견 법의와 승각기, 띠매듭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을 보게 되나 불신에서 두부의 비율이 크고, 무릎 폭이 좁아지고, 고개를 숙인 것은 조선 양식의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경주 祇林寺乾漆菩薩坐像(1501년)과 같이 당당한 체구에 약간 비만하지만 북스런 얼굴과 자연스레 흐른 天衣 등에서 수준 높은 불상들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木刻眞蹟을 들 수 있다. 현존하는 예로는 예천 용문사(1684), 남장사(1694), 실상사 약수암(1782), 대승사(19세기), 서울 경국사(20세기초 추정)에서 볼 수 있는데 중앙에 본존과 협시보살, 불계자, 비천 등을 배치하여 장엄한 극락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조선시대 조각사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잔디를 베고 누워



최일순

공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과 출.
(현대문학)에 수필 추천,
(아동문학) 수필 부문 신인상.
현재 대전 백운국민학교 교사

산소 자리는 대개가 양지바르며 물빠짐이 좋고 경관 또한 수려하다. 더구나 빼대 있는 집안의 소유일 경우 면적 또한 넓어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으스름 저녁이나 달빛내리는 밤이면 동네 처녀 총각들의 밀회 장소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7분만 걸으면 꼭 그런 말에 합당할 듯싶은 산소가 있다. 한자로 뽀뽀히 적힌 비문을 건성으로 보아 그분의 행적을 알 수는 없지만, 조선 시대의 유학자인 모양이다.

사철 열려 있는 커다란 철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공지의 후박나무와 아무렇게나 방치된 잡목의 푸르름이 지나는 사람을 유인한다. 망초가 무리지어 피어 있는가 하면 아무데나 감아 올라가 피어난 청초한 메꽃이 고향 들판을 연상케도 한다.

비탈진 길을 따라 오르면 한옥이 한 채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목판으로 된 책이 사방 벽을 꼭 메우고 있다.

잔디가 곱게 자란 산소 뒤편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그 주변은 성벽으로 빙 둘러쳐져 있다. 왼쪽의 방치된 수림에 비해 입구에서 산소로 오르는 계단 둘레에는 잘 손질된 정원수들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저녁 식사 후 한가할 때면 나는 가끔 이곳에 온다. 더러는 신문이나 부담이 가지 않는 책을 들고와 읽기도 하고, 무심히 앉아 청량한 저녁 바람 속에 나를 담그기도 한다.

늘 분주해 보이던 저 아래 시가지의 풍경도 여기서 내려다 볼 때만은 한가

해 보인다. 불과 2, 3분 거리에 큰 도로가 있지만 떠가는 흰구름에도, 바람결도 태고적 신비가 묻어 있는 듯싶은 것은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주변의 묵은 기와집과 도산서원 및 이 산소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잔디에 누워 푸른 하늘의 흰구름을 바라보기도 하고, 미풍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뜻 없이 바라보는 맛도 그런 대로 괜찮다. 하는 일마다 목적이 따라야 하고, 결과를 따지며 사는 삶에도 어지간히 지쳐 있었던 모양이다.

어둠이 내려 사방이 음산함 속에 묻힐 때도 웬지가 선생이라는 이분의 혼이 나를 지켜줄 듯싶어 오래도록 앉아 있곤 했다.

일요일인 오늘은 국민학교 3학년인 딸아이랑 옆집의 여섯 살 난 사내아이를 데리고 왔다. 넓다란 잔디밭과 탁트인 주변의 경관에 매료되었는지 아이들

도 푹 기뻐한다.

녀석은 앞구르기를 하기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힘찬 기합까지 넣으며 태권도 연습을 한다. 포즈도 기합 소리도 제법 그럴 듯하다.

이 꼬마들 앞에 서니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다.

“애들아, 여기서 굴러 봐.”
나는 아이들을 묘 언덕으로 유인했다.

“어떻게요?”
“요렇게.”

나는 양팔을 몸에 바짝 밀착시킨 후 구르는 요령을 설명했다.

고향집 마당은 높은 언덕과 이어져 있었다. 그 때 여섯 살이던 나는 바로 손위 오빠랑 동네 사내 아이와 함께 지금 이 아이들처럼 언덕 아래로 때굴때 굴 굴렀었다.

종일 낮선 이 한 사람 지나지 않던 뒤에 산골 내 고향. 심심한 산골의 정적을 깨며 어찌다 비행기가 지나면 반가워 두 손 들고 환호했으니까, 그 무료한 날들 속에서 언덕에서 구르는 놀이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스릴과 기쁨을 선사했던 것이다.

그냥 구르면 흙이 쏟아져 내렸기에 언덕에 가마니를 깔고 맨 아래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 구르고, 또 굴렀다 기어오르다 미끄러질 때면 흙이 와르르 쏟아져 내려 쌓이곤 했다.

그 때의 추억거리가 영원한 기념되어 작은 오빠는 지금도 그 표적을 달고 산다. 세수할 때면 손바닥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아 늘 앞자락이 젖는 것이다. 언덕에서 구르다 부러진 팔 때문에.

“요렇게요?”

양팔을 십자로 어깨 위에 얹고 힘차게 구르는 딸아이 모습 위로 그 옛날의 내 모습이 보이고, 고만고만하던 동네 조무라기들의 모습도 겹쳐서 떠오른다.

“엄마, 따가워서 나는 못 하겠어.”
잔디에 몸을 눕히다 일어서고, 눕히다 또 일어서는 딸아이다.

“이런, 녀석 같으니라구.”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내고 있었다. 나는 내 아이가 자연에 대해 깊은 친화력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자라 주었으면 싶었는데, 사내애랑 계집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

조용조용 걸어 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한 쌍의 교복 입은 고교생이 귀여운 듯이 녀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다. 문득 저렇게 수더분하고 용감한 사내 녀석이 하나 있었으면 싶다. 땀 젖은 머리칼에 별정계 상기된 녀석의 얼굴이 보기에도 좋다.

신문을 읽다 고개를 드니 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두 녀석들은 무덤 앞의 넓다란 상석 위에 나란히 누워 있다. 해진 뒤 오래전만, 직사각형의 매끈매끈한 상석에는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고, 셋이 다리 뻗고 편히 누워도 넉넉한 자리다.

신문을 읽다 고개를 드니 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두 녀석들은 무덤 앞의 넓다란 상석 위에 나란히 누워 있다. 해진 뒤 오래전만, 직사각형의 매끈매끈한 상석에는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고, 셋이 다리 뻗고 편히 누워도 넉넉한 자리다.

녀석들은 느닷없이 할아버지한테 절한다며 장난기 거둔 의젓한 모습으로 무덤에 절까지 올린다.

무덤의 주인이 누가 내 밥상에 누웠느냐고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꼬마들의 재물에 호호해 하실 것만 같다.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습 보고 기뻐하실 것도 같고.

무덤 속의 주인은 어둠 내리는 오늘 저녁 외롭지 않았으리라. 더러 지나치게 큰 터 잡아 묘를 꾸미면 산 사람 살

산



애태움에 바둥거리며
태고적 울분을 안고 터질 듯 치솟아
흙더미 속에 바위를 이고
온갖 수풀에 싸여 몸부림치며

진달래, 철쭉이랑 노오란 작은 꽃잎의
웅석에 잡히어
맑은 미소로 속살거리는
산 개울물 소리에 잠이 들고

인간의 함성과 아이들의 보챌며
맹수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터질 듯 들끓는 가슴을 안고

무겁디 무거운 몸매로
구름과 비와 바람과
그리고 뇌성 벽력의 으르렁거림에도
더 밝은 날의 꿈을 꿔며
오늘도 기다림에 지쳐 말없이 서 있다.



전정배

부산대법대 출, 경남대 대학원 출.
현 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공간도 부족한데 저래서야 쓰나 싶어
거부감부터 일었는데, 그런 것만도 아
님을 새삼스레 깨달은 셈이다.

늘 고요와 산바람 속에 잠겨 있던 산
소가 이제는 찌들리고 지친 도시인들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썩 좋은
휴식 공간이 된 것 같아 여간 마음 내키
는 것이 아니다.

어둠에 질게 싸인 높은 산소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무덤 속의 주인이 집에
당도할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 같은 안
도감으로 옮기는 발걸음에도 흔들림이
전혀 일지를 앓는다. 인가 근처에 공원
처럼 꾸며 지친 마음 쉴 수 있는 산소를
마련해 놓은 그 후손과 무덤 속의 주인
에게 복 있을진저. *

첫 발령의 추억들

시퍼렇게 우거진 산골짜기에 방아깨비, 여치, 소금쟁이 등을 찾아 볼 수 있고, 깊은 산중에서 구슬프게 울어대는 소쩍새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름이 오면, 나는 발령장을 들고 임지를 찾아 가던 시절이 절로 생각난다. 교직의 첫 출발지는 단양 팔경 중 상선암이 위치한 곳에서 30분쯤 걸어 간 벽지 학교인 방곡 분교이다. 산수 좋고 인심이 후덕한 절경의 벽지 마을 학교였다.

학교에 도착하자, 어른스런 표정을 지닌 50명 학생들이 반색하며 반겨 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모두 4명이 근무하는 가족적인 학교였다. 그 당시만 해도 교사가 부족할 무렵이라 보수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된 나는, 교사로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면서 공부하려고 스스로 분교 근무를 희망했다.

그 때는 학교가 질서도 잡히지 않아, 울타리가 없어 운동장 가운데로 소를 몰고 다니는 실정이었다. 학교가 아니라 놀이터였다. 내가 운동장의 길을 막자고 주장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큰 일이 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그 후 교장의 명에 의하여 학교를 책임지는 분교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 때부터 선생님들과 협의하면서 울타리 막기를 시작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착수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육성회장을 만나 울타리를 막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락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학교에는 사무실도 없어 사택 방에



손 의 종

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 한국교원대 대학원 졸업
충북 단양 방곡국교 등을 거쳐
현재 청주 사직국교 교사.

모여서 직원 협의회를 열곤했다. 그 후 나는 새로 사무실을 꾸미고, 군대에서 익힌 차드 솜씨로 학교 현황도 준비해, 학교에 손님이 오시면 열심히 브리핑을 하던 일들이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하다.

그 당시에는 가정 실습이 있어 직원들은 고향 길을 찾을 수 있으나, 나는 학교 조정 사업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가난에 찌든 마을 학생들이라 옷차림이 남루하고, 옥수수밥을 주식으로 하는 마을이므로 약방, 이발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불쌍한 학생들이었다. 머리에는 이가 독실거리는 장발 학생들이 많았다. 참으로 그냥 보고 넘기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청주 나오는 기회에 이발 도구를 준비해 머리가 긴 학생들 머리를 손질하는 이발사 노릇을 하였다. 그 때에 익힌 솜씨 때문에 지금도 가끔은 그 기술을 써 먹곤 한다. 평소 마음껏 뛰고 자라 별로 아픈 학생들은 드물었지만 구급 약품을 준비해 놓고 아동

들의 건강을 보살폈고, 기본적인 침술도 익혀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해준 일도 있었고, 인근 부락민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학교로 찾아오곤 하였다.

어느날 아침, 철호 아빠가 산모가 실신되었다고 신발도 거꾸로 신은 채 달려왔다. 급히 나가 보니 산모는 의식 불명이었고, 가족들은 산모를 잡고 몸부림만 치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9km쯤 걸어가야 읍내 병원이 있었다. 나는 시간을 놓치면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가마니로 들것을 만들어 네 명이 일조가 되어 정신없이 달려가는 도중에 공사장으로 가는 트럭을 만났다. 인정 넘치는 기사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하니 임신 중독증인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날 뻔했다면서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의사는 말해 주었다. 그 후 아들을 낳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에피소드도 첫발령지의 추억이다.

수업이 끝난 다음은 주로 가정 방문을 했는데 깊은 산중, 길도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따라가 보면, 바위 틈에서 나오는 맑은 물, 머루, 다래, 산울림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한쪽의 그림 같았다. 깊은 산속에 자리잡은 한두 집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나 하고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러나 얼마나 인심이 후한지, 옥수수밥, 옥수수술, 맷돼지고기, 노루고기 등 다른 데서는 구경할 수 없는 산속 특미의 대접을 받았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군침이 돈다. 그런가 하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씀을 자주하시며, 생일·제사 때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던 상투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교사를 보는 눈과 상투 할아버지가 보는 눈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많다.

그 당시는 중학교를 시험 전형으로 입학하던 시절이라서 입시 준비에 불꽃을 튀기던 때였다. 그 곳은 학교가 생긴 이래 한 명만이 상급 학교를 진학했다고 했다. 그 주인공은 지금 국교 교사가 되어 청주에서 근무 중이다. 나는 첫해에 6학년 담임을 하게 되었다. 그 교장 사람들이 애타게 바라던 중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진학시키려고 등잔불빛 밑에서 자정이 넘도록 정열을 태우던 일이 기억에 선하다.

그 시절 나에게는 갓태어난 예쁜 딸 마리아가 있었다. 마리아는 출생하자마자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였다. 저녁에는 몹시 울어대는 안타까움,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가슴을 오려내는 아픔을 느낀다. 밤중에 들쳐업고 몇 시간을 뛰어서 읍내 병원문을 두드리던 추억들, 어떨 때는 진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울음 소리가 방해가 된다고, 아내가 마리아를 등에 업고 밖에서 몇 시간을 서성거리던 일들, 현재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뼈를 쥐는 아픔이었다. 그런 엄마의 정성에도 끝내 그 애는 일 년 후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아내의 가끔 그때를 원망하곤 한다. 그런 병원도 없는 벽지 학교 근무의 탓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다.

그런 마음이 편치 못한 약조건에서도 입시 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 명을 중학교에 합격시키는 영광을 안았다. 참으로 교직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지만, 이런 값진 매력 때문에 어떤 직종보다도 더욱 인기가 있나 보다.

2년 후에는 고향인 음성군으로 발령

나의 일상

조심스레
교실문을 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도

고귀
귀엽기만한
사랑 덩어리.

정다운 눈빛 마주보며
슬기의 샘물을 마십니다.
행복한 삶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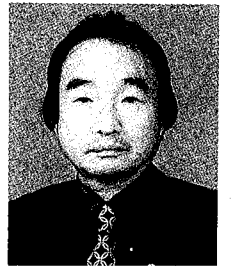
꽃다운
젊음은
뜨거운 가슴이 되어
사랑은
모두 나눠 주고
텅 빈 마음에

소망을 심어 가는
뿌듯한
나의 일상입니다.

조심조심
교실문을 닫습니다.

쿵쿵대며 숨가쁘게 달려 온
소중한 하루가
해거름에 묻혀 갑니다.

나의 일상은
그렇게 시작이고 끝이 납니다.



최 진 기

시인·아동문학가
현재 경남 충무시
유영국민학교 교감

되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과 정들었던 그 곳을 떠나던 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추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곳을 찾기도 하고, 그곳 사람들과도 전화 연락도 가끔 한다. 참으로 단양은 울고 들어 가서 울고 나온다는 옛말과 같이 인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내 예쁜 딸의 생명을 앗아간 곳이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고, 내 인생 중 교직의 첫발을 디딘 곳으로서 그 시절을 고히삼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 가며 교육에 불태우고 있다.

올해는 '책의 해'이므로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5학년을 담임하면서 언론 매체를 통하여 어린이글, 교사글을 수십 차례 발표하였다. 어린이들도 신바람이 나서 적극적으로 짓기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문집 대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발표된 글을 모아 학급 문집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까지 뽑힌 글만 해도 훌륭한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두었다. 이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이 교육에 더욱 전념하리라 다짐해 본다.*

학습 교재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 고시

교육부는 6월 19일 학습자료협회, 2종교과서협회 및 교과용도서 발행사에 '학습 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통보하고, 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습 교재와 관련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일소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정착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구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에도 이 기준을 알려서 각급 학교 교직원들에게 고시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킴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의 유인 행위에 관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지도하도록 조치하였다.

학습 교재 알선·채택과 관련된 부조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를 행정 쇄신 개혁 과제로 선정 추진해 온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습 교재의 알선·채택과 관련된 부조리와 잡음을 일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대책으로서 국·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교재를 제작·판매·발행하는 사업자가 교직원 등에게 금품 제공 등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고시된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도록 권유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 제의를 하는 행위
② 사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학습 교재 등을 채택 또는 구입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

③ 사업자가 학생에게 학습 교재 등을 구입하도록 알선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알선한 경우에 사례의 뜻으로 학교의 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

④ 사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채택 사례비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습 교재 등의 판매 가격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행위에 따라 다음달 7월 1일부터는 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기준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자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입법 예고

교육부는 '93. 6. 25자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한 입

법 예고를 공고하였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학교 교장은 임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정년(65세)전 1년~10년에 본인이 희망

교육부, '공직자 청탁·압력 신고 센터' 설치·운영

교육부는 교육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사 활동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공직자 청탁·압력 신고 센터'의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하 전기관에 재통보하고, 이 신고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에

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이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 신고 대상

- 교육부 및 산하 전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인사 기타 이권 관련 부정·비위를 저지르게 하는 부당한 청탁 및 압력

- 불가피한 정황에서 금품 수

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신고처: 교육부 감사관실 '공직자 청탁·압력 신고 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511호
• 전화: 730-6528, 720-3423
• FAX: 736-3402, 739-6028
○ 신고 방법 및 요령: 서면, 면담, 전화(FAX포함) 등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에 관하여는 비밀 보장
○ 신고 사항의 처리
- 신고된 사항은 정상 참작 관용 처리하되, 미신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임중 문책
- 신고된 사항은 처리하고, 대장에 기록 유지하며, 행정감사시 정보 자료로 활용

망하면 명예 퇴직을 할 수 있었으나, '91. 3. 8 교장 임기제가 시행되면서 교장 재직 중에는 명예 퇴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인사 정제 및 교장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임기제 교장이라 하더라도 교장의 경력은 명예 퇴직 기준인 교육 경력 30년 이상에 거의 모두 해당되므로 일반 교원과 차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장에 게도 명예 퇴직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현재, 공립 학교 교장과 시·도 교육청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용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인해서 교장 결원시 신속한 충원이 곤란하여 학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해마다 1천400여 명의 신규 임용의 절차와 '95. 8월 말의 8천500여 명의 임기제 교장의 중임 임용 절차를 고려할 때, 이는 지방 자치 행정의 분권화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임용권을 시·도교육청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학교에 배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한 학생 수련 기관, 과학교육원, 야영장 등에도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회 교사제 활용 등을 통한 교원의 교육적 활용을 제고하고자 한다.

'94 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 전형 계획

교육부와 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는 '94년도 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 전형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였다.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신규 채용) 부칙 중 '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출신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초등 85%, 중등 70% 수준)의 인원을 구분 선발하던 것을 동경과 조치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는 국립 및 사립, 기타 출신자의 구분 없이 완전 공개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교사 공개 전형에 있어서도 전년도까지는 교육대학 등 사범계 대학 출신 교직 무경력 응시자의 경우 1차 필기 시험 대신에 대학 재학 기간 중의 성적으로 전형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1차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대학 성적은 50%를 환산, 가산하도록 하였다.

금년도 신규 교사 공개 전형은 12월 중(초등: 중순, 중등: 초순)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험 과목별 배점 및 출제 범위, 대학 성적 반영(중등) 및 가산점 부여, 응시 자격 등 기본적인 사항은 '93년도 전형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초등 및 중등(과목별) 신규 교사의 모집 예정 인원과 시험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10월 말경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모집 요강을 통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94신규 교사 공개 전형 시험 과목별 배점 및 출제 범위

구분	내 용	반영 비율	비고(출제 범위 등)	
1차 시험 (100%)	중등	일반 과목	교육학 30% 전 공 70%	교직 과목 6개 영역과 교사론, 생활지도 등 포함 교과 교육 20% 이상 출제 (교과 교육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 등)
		실기 시험 (부과 과목: 음악, 미술, 체육 등)	교육학 30% 전 공 30% 실 기 40%	일반 과목과 동일
	초등	필답 고사	교육학 30% 전 공 70%	중등과 동일 9개 교과 균등 출제(각 교과 교수법 및 교재 연구 포함)
		대학 성적 가산점	초 등 50% 별도 중 등 20% 별도 초·중등 15% 이내 별도	교육대학 등 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응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10% 응시 지역의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5%
1차 합격자	모집 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2차 시험 (50%)	논술 고사	초·중등 25%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평가 일반 면접과 전공 면접 *초등의 경우 전공 면접시에·체능에 대한 실기 능력 평가 포함. *수업 능력 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 결정 시행	
	면접 고사	초·중등 25%		
최종 합격자	1, 2차 전형 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1.2배수 이내 선발			

* 교직 과목 6개 영역: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 방법 및 공학, 교육 행정 및 경영

* 초등의 경우 응시 지역 외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 시 직할시 이상 및 경기도 지역 응시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제외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교육부 직원 1일 교사

교육부는 교육 정책 결정 참여자들의 교육 현장 체험을 통한 교육 행정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선생님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일선 학교와 교육부와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교육부 직원들을 서울사내국·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1일 교사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에 근무하는 사무관, 교육연구관, 장학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14명을 엄선하여 7월 2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1일씩 활동하였던 '교육부 직원 1일 교사' 들은 아침 8시에 근무 학교에 출근하여, 1-2시간 정도 수업을 실시한 후 오후 5시까지 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일 교사로 활동하는 교육부 직원은 최이식 교직국장, 김성

동 사회국제교육국장을 비롯하여 과장 4명, 장학관 2명, 교육연구관 1명, 사무관 5명 등 총 14명으로서 이들 중 대부분이 이미 교단 근무 경력을 갖고 있어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원의 생각, 관심사, 애로 사항 등에 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1일간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들의 교육 현장 체험 내용들은 교육 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고, 교육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엔 실시하는 1일 교사들의 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부 직원들의 현장 연수 차원에서 이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육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 예고

교육부는 중학교의 전학 배정 방법 및 그 절차를 개선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법시행령개정령(안)을 '93. 7. 6입법 예고 했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해 학년도 국민학교 학생 수용 계획은 작년도 예산 편성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당해 학년도 개시 22월 전에 제출토록 한다.

2. 학교군 및 중학구의 구역울 조례로 정하던 것을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위해 교육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시

3. 거주지 이전으로 전·편입학 하는 중학생의 추천 배정을 추천 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장이 추천·배정토록 한다.

4. 국민학교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결정권자가 당해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학생의 수학 능력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한 당해 학교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5.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편입학 할시만 5% 이내에서 정원의 외로 하던 것을 지역간 구분 없이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편입학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이게 한다.

연수상 기금 운영 개선

교육부는 교원 연수의 효과를 높이고, 연수 참여 유인 체제

기관별 기금액 (단위:천원)

기관명	연수상 기금	총액 기금액
서울특별시	115,000	200,000
부산직할시	60,000	78,000
대구직할시		44,000
인천직할시		34,000
광주직할시		29,000
대전직할시		24,000
경기도울국	24,000	121,000
강원도	24,000	46,000
충청북도단체	30,000	36,000
충청남도		51,000
전라북도	88,000	58,000
전라남도	80,000	73,000
경상북도	106,000	78,000
경상남도	78,000	91,000
제주도	42,000	14,000
타라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55,000	64,00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13,000	16,000
계	691,000	1,057,000

* 기금설치 기준일: 1987.4.17

* 기금조성 기준일: 1993.12.31

강화를 위하여 1987년 대통령 하시기금 6억9천1백만원으로서 울 등 9개 시·도 지방교원연수원과 중앙교원연수원 및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등 11억 3천만원으로 증식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등 6개 시·도에는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금이 설치된 9개 시·도와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왔고, 시상 인원과 시상 대상 연수 과정, 시상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어 연수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연수원장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왔으며, 또한 기금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부 연수 과정을 이수한 성적 우수자에게만 시상이 되고 있는 등 연수상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교원연수원장과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이 연수상 기금 운영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연수상 기금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첫째, 연수상 기금이 미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등 6개 시·도 교육청에도 이미 확보된 기금을 배분하여 15개 전시·도와 2개 중앙 단위 연수 기관에 연수상 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시·도간 및 연수원간의 연수상 기금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었다.

둘째, 시상 대상 과정과 시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3주 이상 실시되는 연수 과정을 이수한 성적 우수자 한 사람에게만 시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상(60시간 이상)의 모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성적 우수자 1인 이상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과 시상 인원을 확대하되, 세부적인 시상 대상 과정과 인원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셋째, 시상 방법을 종전에는 상금으로만 시상하던 것을 상금, 상품, 특별 휴가, 국외 연수 참가 기회 부여 등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시상 방법을 선택해 시상토록 하였다.

넷째, 연수상 기금 운영 주체가 종전에는 연수원장이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주관 사람에게만 시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상(60시간 이상)의 모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성적 우수자 1인 이상에게

주요 사항별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시상 인원	성적 우수자 1인	성적 우수자 1인 이상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시상 인원 확대
시상 대상	· 직급별 기본 교육 과정 · 교원 자격 연수 과정 · 교관반 과정 ·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 과정으로서 평가 실시되는 과정	60시간(10일) 이상의 연수 과정 중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시상 대상 연수 과정 대폭 확대
시상 방법	상금으로 지급	상금, 상품, 특별 휴가, 국외 연수 기회 부여 등 시·도별 자율적 기준에 의함	시상 방법의 다양화 및 자율화
기금의 관리 운영	연수기관장	시·도 교육감이 관리 운영하되, 그 권한을 연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기금 조성 및 관리 주체를 연수 기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변경
기금의 재원 확보	· 기본금 691백만원 · '92년도 말 1,129백만원 · 11개 연수 기관	기금의 현재액을 재해분 하되, 추가 소요액은 시·도별로 조성 ※ 재해분 예정액: 1,057백만원	기금 미설치 6개 시·도에 기금 배분 및 설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교육부는 각급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운동 능력이나 이동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93년 7월 15일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관계 전문가, 장애인 학부모, 특수 학교 교사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92년 10월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교육에 대한 평등 정신을 강조하고 통합 교육, 순회 교육, 요육 등 특수 교육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2. 특수 교육 대상자의 교육 배치를 위한 진단·평가시 학부모(보호자)의 의견 진술 등 참여 기회를 보장토록 한다.

3. 특수 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 교육(초·중학부)과 무상 교육(유·고등부)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4. 순회 교육과 통합 교육 실시 여건을 정비하며, 장애 유아

를 위한 특수 유치원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5.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 특성 등 능력에 알맞은 학습이 가능토록 개별화 교육 방법을 도입·강화한다.

6.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

7. 요육 담당자를 요육 교사로 일원화하여 배치하고, 그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치료 교육의 전문화를 기하며, 직업 교육 심화를 위해 전문화된 지도 교사 배치를 명시한다.

8.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사들의 현직 연수 프로그램 운영시 특수 교사로서의 수행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여 특수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기한다.

9. 효율적인 교육 배치와 그 업무 지원을 위하여 특수 교육 기관에는 기숙사를 설치하거나 통학 버스를 운영토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통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번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은 1977년 제정되어 두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친 현행의 특수교육진흥법이 그동안의 급격한 교육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

교육뉴스종합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근 폭증하고 있는 특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할 때 학위 수여 예정자 명부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학위증서에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일일이 날인하여 왔으며, 특히, 명예박사 학위 수

여에 있어서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대학의 학위 수여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이를 보완·개선하여 대학의 학사 자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주요 골자는 학위 공신력은 유지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학위 등록시 교육부장관의 직인 날인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대학에서 학

위 수여 예정자 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일괄 등록하도록 하며, 총·학장이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에 교육부에 등록된 학위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토록 하고,

둘째, 박사 학위 수여자 명부 제출시 논문과 논문 심사 요지를 첨부하게 하던 것을 폐지하며,

셋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거나 또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학위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던 것을 폐지하여 대학 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총·학장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부는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교육부령인 명예박사학위수여승인규칙을 폐지하여 '94.1.1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학위 수여에

관한 대학 자율화 시책을 접진 자를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대학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주) 시장에 조규향 전 교육부차관 임명

정부는 7월 9일 국정교과서를 나와 교육부 대학국장, 대학 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지난 3월까지 교육부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조 사장은 서울대 법대

학위 등록 및 명예박사 학위 수여 업무 개선

교육부는 7월 10일 대학 자 등록 및 명예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추진 방안의 하나로 학위 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 인사

1993.6.7자

감사관실 과건	서기관	김홍진	충북대학교
감사관실 과건	행정사무관	강구도	강원대학교
감사관실 과건	"	이장길	공주대학교
감사관실 과건	"	조영기	안동대학교
감사관실	행정주사	조호식	대학학무과
감사관실	"	김관수	전문대학행정과
감사관실	"	하만호	학사관리과
감사관실	"	박 준	총무과(인사)
감사관실	"	송현환	양성과
감사관실	"	하현삼	교육계정과
감사관실	"	정영준	총무과(경리)
총무과(서무)	"	장현성	설비관리과
총무과(인사)	"	민병제	학술진흥과
총무과(인사)	"	윤권수	교육방송운영관실
총무과(경리)	"	홍지청	감사관실
총무과(교육훈련)	"	허수호	대학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	황건수	과학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실	"	이인식	학술진흥과
장학편수실(서무)	"	변광화	총무과(교육훈련)
편수관리관실	"	최규봉	학사관리과
교육방송운영관실	"	김철운	대학학무과
대학행정과	"	박규성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학재정과	"	최현성	감사관실
대학학무과	"	이재달	교육행정과
대학학무과	"	정민택	편수관리관실
학사관리과	"	이만호	대학재정과

학술진흥과	"	최인필	의무교육과
학술진흥과	"	김희원	사회교육제도과
교육행정과	"	한문식	전문대학행정과
의무교육과	"	박동선	전문대학학무과
교육계정과	"	신동주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직과	"	이호기	장학편수실(서무)
교원복지과	"	공병여	외지사업과
과학교육과	"	노준희	교직과
전문대학행정과	"	구영창	감사관실
전문대학행정과	"	서수교	감사관실
전문대학학무과	"	성낙승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회교육진흥과	"	전찬구	총무과(인사)
사회교육제도과	"	최홍순	총무과(서무)
설비관리과	"	박노화	교원복지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정일교	교원연수과(승진)
행정관리담당관실	"	유승권	총무과(경리)(승진)
총무과(서무)	행정주사	한창진	학술진흥과
총무과(경리)	"	경영호	교육부
총무과(교육훈련)	"	차양호	전문대학학무과
장학편수실(서무)	"	이병문	대학행정과
대학행정과	"	임장주	장학편수실(서무)
학술진흥과	"	김정섭	총무과(서무)
교원연수과	"	이주호	외지사업과
전문대학학무과	"	배문수	총무과(교육훈련)
외지사업과	"	이찬조	교육부

(93.7.1 일자)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이성호	연세대학교 교수(겸임)
교육부 장학편수실장	장학관	정용술 서울광남고등학교 교장
전북대 사무국장	이사관	하태일 서울북부교육장
교육부 생활지도장학관	장학관	김성식 서울강일중학교 교장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	교육장	오종호 교육부 생활지도장학관
서울광남고등학교	교 장	김순오 교육부 교과지도장학관
서울강일중학교	교 장	박성우 교육부 사회교육제도과
제주도교육청 관리국장	서기관	홍봉근 제주대 경리과장
제주대학교	서기관	고성극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국가직 전임)
한국체육대 서무과장	서기관	김의동 충북대 교무과장
전남대 시설과장	시설서기관	정계성 목포대 시설과장
강원대 시설과장	시설서기관	김영석 서울시교육청 건축과장
서울시교육청 건축과장	시설서기관	신원식 부산시교육청 시설과장
부산시교육청 시설과장	시설서기관	김영권 제주대 시설과장
목포대 시설과장	공업서기관	전동찬 강원대 시설과장
제주대학교	행정사무관	류춘근 교육부 교육행정과
경상대학교	행정사무관	신현종 전남교육청 총무과장
경북대학교	행정사무관	변기용 교육부
전북대학교	행정사무관	오원태 군산대학교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관	김익수 제주대학교
제주교대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한계섭 제주도교육청 행정과장
제주대학교	행정사무관	정동진 제주교대 서무과장
진주산업대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하정룡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건축사무관	김병호 순천대학교
군산대학교	건축사무관	이동근 전남대학교

1993. 7. 7 자

경상남도교육청	건축사무관	김민남	경상남도교육청 (국가직전임)
시설과장	건축사무관	박종달	강원대학교
순천대학교	건축사무관	홍의표	경북대학교
창원대학교	건축사무관	김영수	창원대학교
교육부 설비관리과	전기사무관	김상태	군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사서사무관	홍성채	충남대학교
군산대학교	사서사무관	홍성채	충남대학교

(1993.7.13 자)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득수	서울시 부교육감(임기3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허갑중	교육부 교육시설국장(임기3년)
서울시 부교육감	관리관	유해돈 중앙교육연수원장
교육부 교육시설국장	시설이사관	유영철 서울대 시설관리국장
서울대 시설관리국장	부이사관	이태우 부산시교육청 관리국장
부산시교육청 관리국장	부이사관	고현숙 창원대 사무국장
강원도 부교육감	부이사관	김용배 부산수대 사무국장

제주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유춘근	제주대학교(승진)
제주대학교 경리과장	서기관	김남식	제주대학교(승진)
경상대학교 교무과장	서기관	신현종	경상대학교(승진)
제주대학교 시설과장	시설서기관	김병호	제주대학교(승진)

시·도교육청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 의식 개혁 특별 연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93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교육청 사무관급 이상 전문직 및 일반직 중견 공무원 490여 명을 대상으로 '대성의 집'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3기에 걸쳐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의식 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 연찬을 실시했다.

이준해 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민 봉사자로서의 실천 의지를 굳게 다지고, 부단한 자기 성찰로써 신한국 창조에 적극 참여, 개혁의 주체가 되자."고 역설했다.

이어 초빙 강사들의 강좌순으로 '신경계를 살리는 길',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소리', '공직자의 윤리관' 및 '총화의 밤', '분임 토의' 등의 알찬 연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분임 토의'에서 모든 연수자들은 직급을 초월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격의 없는 대화로 주제 설정 및 토의에 참여, 분임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 모든 의견을 결집한 '우리의 실천 다짐'을 결의함으로써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산직할시교육청

시청각 교육 자료 활용



부산교육연구원은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일선 국·중·고등학교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시청각 교육 자료의 활용 실적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일선 국·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한 시청각 교육 자료는 모두 2만 7천 931건으로, 이는 '91년도 1만 5천 534건에 비해 무려 80%가 늘어났다

것이다. 지난 한해 동안의 활용 실적

보면 의뢰 녹음 3천 292건, VTR 자료 복제 2만 2천 51건, TV 교육방송 녹화 2천 19건, 교육 자료 대여 569건 등이다.

시청각 교육 자료는 교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사물이나 현상을 시청각적 방법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자나 청각 매체만으로 거두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또한, 인쇄 매체가 논리적이고 정적인데 비해 전자 매체는 음향, 역양, 표정까지도 전할 수 있는 등 정서에 호소하는 힘이 강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육연구원은 전자 매체의 효과적 도입 등으로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직할시교육청

고교생 외국어 경시 대회

대구직할시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29일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일본어 등 4개 외국어에 대한 학력 경시 대회를 실시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기하고, 외국어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 격려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학습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며, 외국어 교과 학습 및 평가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외국어의 교양적, 실용적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생활 외국어의 일 반화를 도모코자 시행한 본 대회에서는 해당 외국어 각 과목별로 청취력, 구사력, 독해력, 작문력 등 각 영역에 걸친 균형적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대회 참가 학생들은 학교별 교내 예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서 평소 꾸준히 쌓아 온 외국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평가 시행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외국어 학력 수준은 지난해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회 결과 입상 학생 44명과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4명의 교사에게 교육감의 상장 및 부상과 표창장이 각각 수여되었으며, 본 대회를 계기로 생활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제고되었다.



인천직할시교육청

과학 전람회 입상자 발표

인천직할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과학 전람회 입상자 63명과 학생 과학 경진 대회 입상자 86명 등 1백49명이 확정, 발표됐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지난 7일까지 출품 마감된 과학 전람회 41점과 학생 발명품 경진 대회 1백 52점의 작품을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등에 비중을 두 심사한 결과 특상 48명, 우수상 49명, 장려상 52명 등 1백49명을 구분, 결정하고 24일 시상식을



갖게 된다.

입상작은 과학전람회 분야에

- 물리: 찬물에 담구었던 삶은 달걀의 껍질이 잘 벗겨지는 까닭은(남부국교 6년 장현진·손경민)의 3점, • 화학: 식물체의 구성 성분 함량 분석(용현국교 6년 손인성)의 2점, • 생물: 달팽이와 눈우렁이의 생활에 대한 탐구(용일국교 6년 유경희, 김정옥)의 3점, • 지구과학: 화강암 입자와 그 조암 광물의 열전도 비교 조사(신현중 2년 김용희, 연용룡), • 농수산: 민물 메기 양식(신현국교 교감 이신근) • 공업: 탄화수소 오염 방지에 관한 연구(부개서국교 교사 김수환, 이기형),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 분야에
- 생활 과학: 개량 분무기(간석국교 6년 고문식)의 7점 • 학습 용품: 다용도 각도기(부광국교 6년 김우섭)의 4점 • 과학 완구: 늘임줄 오르기(조동국교 6년 박희룡)의 3점 • 폐품 활용: 곤충 채집통(남동국교 4년 김찬유)의 2점 등이다.

광주직할시교육청

6·25점진 학업중단자 졸업

광주직할시교육청은 지난 6월 25일 6·25동란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학업을 중단한 문



재영 씨 등 7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

시교육청은 6·25참전으로 학업을 중단한 참전자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키로 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각 학교에 명단을 파악토록 권장하여 문재영(60세, 당시 광주상업중 4학년)씨 등 7명이 재학 중 학도병 참전 사실을 확인되어 6·25 발발 제 43주년을 맞아 모교에서 손자 또래인 후배들과 가족·친지들의 축하 속에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이들 7명은, 43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던 학업 중단의 한을 풀었다며 노안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당시의 학적부를 근거하여 학업 중단자를 수소문하거나 당사자들의 신고를 받아 매년 6월 25일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대전직할시교육청

소규모 학교 발전 협의회 개최

대전직할시교육청은 6월 15일 대전 산홍국민학교에서 관내 소규모 학교의 교장·교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당면 과제로 대두됐던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덕군내에서 편입된 변두리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환경 문제와 학력 신장 문제가 논의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협의됐다.

이들 소규모 학교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해 ▲ 교실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해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학습 참고서·도서·실험실습 자료와 학습 용구를 확보하며 ▲ 교사들의 업무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소규모 학교에 담당 장학사를 각 1명씩 배정, 수업 연구회와 장학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일반 프로그램을 운영, 학습 과제별로 단위 학습 시간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방학 과제 해결 방법 개선

경기도교육청은 '93년도 여름 방학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40일간) 실시하면서 국민학교 어린이의 방학 과제 해결 방법을 개선해 가고 있다.

중전의 확실적인 방학 과제 제시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스스로 각자의 취미·능력·정성에 따라 방학 과제 및 생활 계획을 자기 능력 수준에 맞게 계획하여, 담임 교사의 사전 지도를 받은 후 방학 중에 이를 해결하며,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간의 연계를 갖고 지도해 줌으로써 어린이 자신이 과제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자기 학습을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방법을 전환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탐구 생활, 일기 쓰기, 편지 쓰기는 어린이 전체가 필수 과제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일기 쓰기도 생활 일기, 효행 일기, 질서 생활 일기, 근검 절약 생활 일기 등에서 선택하여 쓰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자기 계획 수립에 참고할 과제로는 방학 중에서 제일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계획에 수립하되, 각국의 문화 자료 모으기, 동식물 채집하기, 각종 상표 모으기, 만들기, 그리기, 쓰기, 독서하기 등 어느 과제를 선택, 계획에서 해

강원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정년 퇴임식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본청 회의실에서 김병두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과 교육 동료, 그리고 가족·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퇴임한 공무원은 김진열

시·도교육청뉴스

춘천교육청 관리과장과 지방기능직 5명 등 모두 6명으로, 인제대 원통국민학교 김용수 씨가 근전포장을, 김진열 씨와 춘천군 남산국민학교 최춘길 씨가 대통령 표창을, 원주군 문막국민학교 신종호 씨, 회천군 간척국민학교 여정구 씨, 평창군 봉평중학교 김남익 씨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전수받았다.

김병두 교육감은 차사를 통해, 지난 수많은 세월을 인고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강원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며,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육 행정 기관에서 참된 봉사 행정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 준 데 대하여 치하하고, 앞으로도 헌직에 남아 있는 후배들을 계속 지도 조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오늘의 영광된 날이 있기까지 어려운 삶의 길을 함께 해 온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석별의 아쉬움을 달랬다고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 풍토 쇄신 간담회

충청북도교육청은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고, 존경받는 교직 풍토 조성으로 교직 사회의 기강을 일신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인영 교육감이 6월 8일 오

전 10시 제천·단양 지역 11개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오후에는 충주·증원 지역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6월 9일에는 박동기 부교육감이 오전에 진천·음성·괴산 지역, 오후에는 청주·청원 지역 고등학교장들과, 나세웅 중등교육국장은 6월 9일 오후 보은·옥천·영동 지역 고등학교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는 등 도내 71개 고등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직 풍토 쇄신 추진, 바람직한 교사상, 바람직한 교장상, 인간 교육과 우리의 다짐 등이 논의되었는데, 정인영 교육감은 간담회를 통해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등 교직자의 사명감 부족과 자정 노력이 미흡함은 물론 임시 준비와 제자 사랑을 표방한 비교육적 행위의 합리화 등 왜곡된 교육 관리의 영향으로 비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부정 비리의 과감한 척결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상담 자원 봉사원 연찬회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16일 도교원연수원 대강당에서 지역 교육청 상담 자원 봉사원 등 55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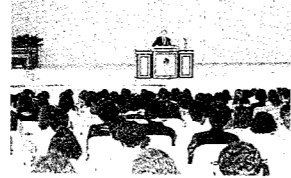
연찬회를 개최했다.

15개 지역 교육청의 538명의 상담 자원 봉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신규 봉사원 247명에게 백승탁 교육감의 위촉패를 수여했으며, 유공 봉사원으로 천안교육청 소속 최성해 씨 외 29명이 교육감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백승탁 교육감의 '새시대

전라북도교육청

4회 相談自願奉仕員 研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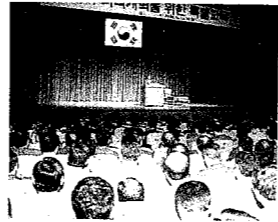
를 대비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으며, 연세대학교 연문희 교수의 '상담의 중요성 및 성공적인 상담자의 자질'이란 주제 강의에 이어, 대전 청소년상담실 정윤애 실장의 '집단 상담 사례' 및 천안 중앙고 교도주임 김영진 교사와 상담 자원 봉사원 김윤옥 씨의 상담 사례 발표도 있었다.

이날 연찬회에서 백승탁 교육감은 상담 자원 봉사제의 운영은 지역 학교의 진로 상담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내 자식처럼 보살펴 줌으로써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학생 상담 활동에 봉사해 오고 있는 상담 자원 봉사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 특별 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6월 7일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공사립 국·중·고등학교장, 도내 교육 전문직 및 일반직 5급 이상 등 1천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관에서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개혁의 주체로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 자세를 확립하며, '신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임승래 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권위주의를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 정신을 함양하며, 부정 부패를 추방하여 새시대에 걸맞은 공직자상을 구현,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광대학교 이상기 교수의 '개혁' 주체로서 공직자의 윤리와 자세에 대한 강의와 전북대학교 박승기 교수의 '신경제를 건설하는 길'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한국걸스카우트 전북연맹 김옥엽 사무국장으로부터 '국민의 소리'를 청취, 전 공직자가 의식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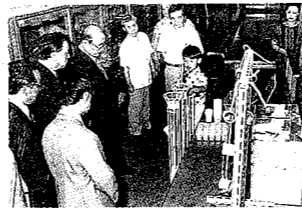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

제 15회 경상북도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에서 우수 작품 90점이 입상을 했으며, 출품작은 6. 18~2. 21까지 일반에게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 참가 대

상을 국·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출품 부문은 생활 화학, 학습 용품, 과학 완구, 폐품 활용 등 4개 부문으로 하여 지난 4월 중 학교 단위 예선 대회와 5월 중 지역 교육청 단위 예선 대회를 거쳐 122점이 도대회에 출품되어 심사를 한 결과 생활 과학 부문 55점, 학습 용품 부문 24점, 과학 완구 2점, 폐품 활용 9점 등 수준높은 90점이 입상했다.

입상 내역으로는 안동 송천국교 전용현(6년)군이 출품한 '양손을 사용하는 분무기' 외 24명이 영예의 금상을 차지했고, 은상에는 '편리한 스위치'를 출



품한 봉화 소천중학교 김진성(3년)군 외 29명이 차지했으며, 동상에는 '자동 유리창 닦기'를 출품한 김천 능치국교 이은섭(6년)군 외 34명이 차지했다.

한편, 금상 수상 작품 중에서도 특별히 우수한 작품 20점은 7월에 있을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에 출품키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지역별 학부모 연찬회

전라남도교육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내 각급 학교 학부모 대표 75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찬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목포, 나주, 순천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93 학부모 연찬회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주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양우 교육감의 특강과 각 지역 학생진로교육상담실 자원 봉사자도 대표의 상담 지도 실천 사례 발표에 이어, 학부모와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양우 교육감은 특강에서 "새 정부가 주도하는 신한국 창조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사회 곧,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검, 절약생활을 바탕으로 고통을 나누어 가는 국민적 자세가 요구된다. House-wife(주부)의 과생어군 속에 House-wives(반진교리), House-wifery(근검, 절약) 등의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은, 주부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묵자(墨子)도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위정자의 도리요,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했다."고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근검, 절약을 당부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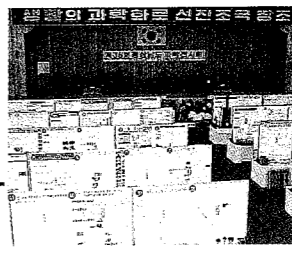
제 36회 경남 과학 전시회와 제 15회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 시상식이 6월 22일 오후 10시 경남과학교육원에서 강신화 교육감과 정순용 의장을 비롯

한 교육 관계자 수상자, 학교장 및 내의빈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무학산 일대의 나방상에 관한 연구"라는 작품이 최고상인 교육위원회 의장상을 수상했고, 거제 성포중학교 김재식 교사의 지도를 받은 우정식(3년)군이 '다기능을 갖춘 220V용 계량용 콘센트'를 출품, 교원단체연합회 회장상을 받는 등 특별상 61점, 우수상 89점, 노력상 119점 등 모두 269점이 입상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남과학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경진 대회는 일선 시·군별로 예선을 거친 297점이 출품되어 전년도 329점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는 다소 줄었으나 작품의 질적면에서 있어서는 고급화, 대형화, 첨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강신화 교육감은 차사를 통해 창의력 개발을 통한 기초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수상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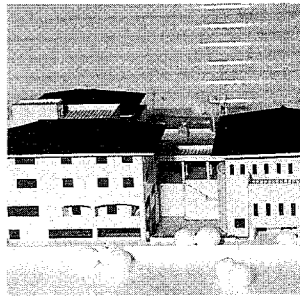


제주도교육청

교육박물관 자료 수집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제주교육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범도민 운동으로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교육박물관은 개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별 교육의 변천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등 박물관 개관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우선 시급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도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도내 및 도외까지도 협조 서한을 발송,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주축으로 자료 수집 활동을 벌이고, 타 박물관, 골동품상을 통한 자료 수집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기한으로 설정, 개화기 이전의 고서(古書) 등 교과서를 비롯 50년대 이전의 졸업장, 상장, 성적표 등 교육서장(書狀), 개화기 이후 60년대 이전의 교사 건물 등의 사진 자료, 개화기 이후의 각급 학교 남녀 아동복, 교모, 배지, 학습 용구, 각종교육 기록, 주판, 풍금 등 교구, 시청각 교재를 망라해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계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집 자료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월보,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여러분의 참여 속에 만들어지는
교육월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은 말한다 교육 현장에서 느끼신 것, 알리고 싶은 것, 귀뚱하시고 싶은 교육 아이디어, 교육 행정 당국이나 일반 사회에 대한 제언 등을 200자 원고지 두 장으로 써 보내 주십시오.

독자 문인 교육 활동 틈틈이 갈고 닦으신 글 솜씨를 이 난을 통해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수필·교단 수기 등. 시는 가급적 20행 정도, 산문은 200자 원고지 14장 정도.

교육월보에 대한 의견 독자 여러분들께서 '교육월보'를 읽으시고 가장 유익하였다고 느끼신 내용, 다소 미흡하였다고 느끼신 내용, 새로 발굴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 내용 등 어느 것이라고 좋습니다. 형식에 얽매임 없이 일반 우편물로 보내 주시면 편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신간 안내 시·도 교육청·교육연구원 및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발간한 간행물, 기타 일반 출판사에서 간행한 교육 양서 등을 보내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선생님 교육 현장에서 천직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선정,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뜨거운 사명감으로 학생들과 일체가 되어 新한국 교육을 창출해 내는 감동적이고 참신한 활동을 펴고 계시는 선생님에 관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편집실에서 방문, 취재하여 게재하겠습니다.

교육월보 편집위원

위원장 이돈희 서울대 교수
위원 김기주 용산공고 교장
강무섭 KEDI 교육정책연구본부장
권순용 월간중앙 주간
김광하 서울사대부고 교장
심경석 서울명일국고 교장
한명희 교육부 사회과학연구소

교육월보 편집진

정학편수실장 정용술
교육연구정책관 김진성
편집실무 김노현 남기수 김영윤
이안세 김태경

정간위심의필 16-5-58
1986년 10월 8일
제3층 우편(나)급인가
발간등록번호 27000-81103-32-9301
1982년 1월 20일 창간
1993년 7월 31일 인쇄
1993년 8월 1일 발행
월간 교육월보 통권 제140호
발행인 교육부 장관 오병문
011-71610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77
전화:736-3977, 738-2343
FAX 738-2343
인쇄 국정교과서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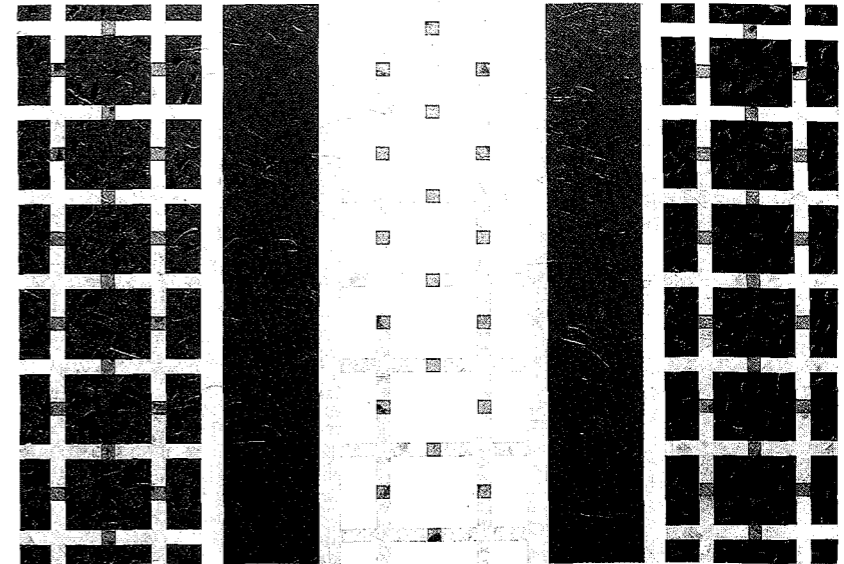
교육월보 지상전 우리 교육 가족의 작은 전시실입니다. 그림, 조각, 서예, 사진 등을 컬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슬라이드나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지난 호의 주요 내용

이달의 선생님/동심 가꾸며 외길 사십년,
김중상 교감
초대석/송자 연세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시론/정직한 사회를 위한 준법 교육
특별기획 1/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관계법의
재검토
특별기획 2/원자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다음 호의 주요 내용

현장 제언/교육 개혁을 위한 제언
시론/새 학기, 새 발상, 새 행동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특별기획 1/신교육의 기본 구상과
추진 과제
특별기획 2/신교육을 위한 대학의
혁신 과제



관계 93-120A, 두 개의 상황 173 x 182cm Acrylic on Canvas+Korean paper 1993



김재관 청주대 예술대학 회화학과 교수

최근 나의 작품은 '80년대 작품이 점점 유희성에 빠지게 되고, 지나치게 개념화되면서 이것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다시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해석에 변화를 갖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이원적 구조'로부터 '다원적 대비의 복합 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80년대까지의 white로 제어된 illusion의 평면적 구조에서 자연 형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절대적 가치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회화의 이원론에서의 반대 개념의 문제, 색상의 문제, 직관과 수학상의 문제, 음과 양의 문제 등 총체적 관점에서의 기하학적 구조로서 새로운 기준치가 나의 작품의 내재율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월보에 게재된 내용은 교육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